2004
제13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ww.wm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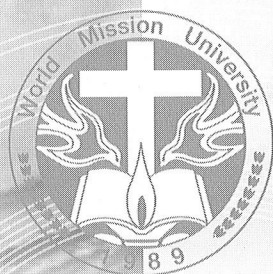
목차

1 들어가기

2 교수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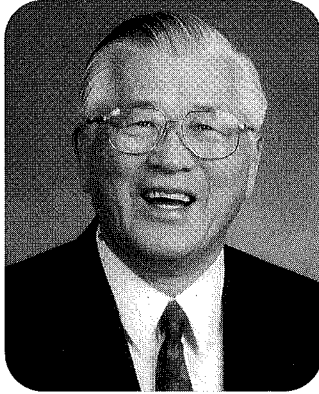
3 학생논단

4 광고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남종성
디자인 남윤철
편집위원 안용균, 이대일, 김춘일
발행일 2004년 6월 5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5-2322, 팩스 213-385-2332
E-mail:info@wmu.edu. Website:www.wmu.edu

1 들어가기

지도자의 삶은 배움의 삶에 있다.
끊임 없는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성장에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훈련을 통한 평생
학습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수 있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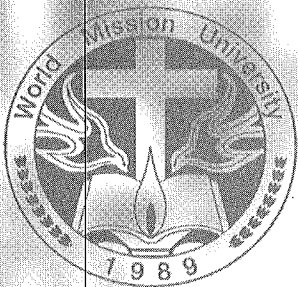
총장 임동선 박사

영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십시오

빠른 변화가 있는 21세기에는 영성과 관계중심의 지도력, 또 평생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아직도 세계선교의 길은 넓고 많은 사역자들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21세기에는 리더십의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21세기는 목회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21세기는 물질세계를 넘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깊은 영성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통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강한 말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1세기는 관계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술 과학 문명(High Tech)을 넘어 인간과의 만남(High Touch)을 소중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을 더욱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는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위와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실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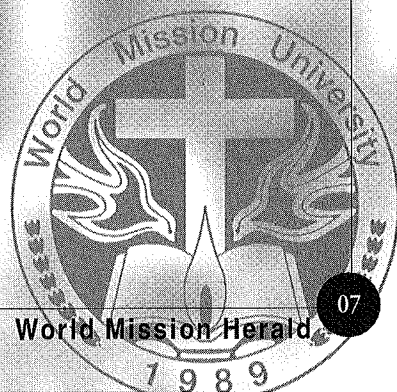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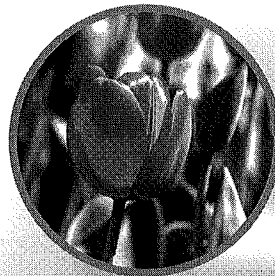
이렇게 변화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였겠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총 장 훈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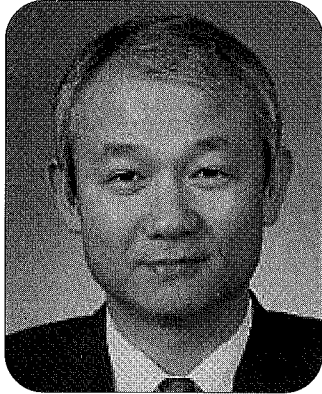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현재 사역자들이 넘쳐 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사역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에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독일, 아프리카, 터어키, 토론토, 남미 등에서 땀을 흘리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 학업에 정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각 처소에서 주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의 기회와 장은 많이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현장에 나가 새롭게 공부하며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합당한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미션이 세계와 교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으로, 그 사명대로 놀랍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하심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규태 장로 명예 인문학 박사

이규태 장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기

이규태장로님은
"주님의 빛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일념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본 대학교 13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이규태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규태 장로는 1950년 10월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경찰대학을 졸업하여 국제문제 연구소와 내무부에서 경찰간부로 근무하였다. 미국의 New Bridge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와 Pacific States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다.

1985년도에 현재의 주식회사 일광공영을 설립하여 19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법인 산하의 초등학교를 미션스쿨로 전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규태 장로는 서울 돈암동 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으며 한국 성결교단 신문사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 중앙신학교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한국과학영재콘텐츠 협회의 이사, 환경운동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National Trust 자문위원과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2000년에는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규태 장로가 몸담고 있는 일광공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기업이다. 주로 군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고, 나라의 국방을 방어하기위한 안보의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이름을 일광공영(日光共榮)으로 지었는데, 이 말의 뜻은 "주님의 빛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라는 의미이다. 회사 설립 시부터 주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리우지기를 기도하며 설립하였고, 매주 월요일은 전 직원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규태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5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아나톨리 프칠렌습 변호사

아나톨리 프칠렌습 변호사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프칠렌습 변호사는 군복무 시절부터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헌법제정, 신학교육에 큰 기여를 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본대학교는 제13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아나톨리 프칠렌습(Anatoly Pchelintsev)변호사에게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아나톨리 프칠렌습 변호사는 1955년 4월 1일에 태어났다. 1978년에 모스크바 군사대학에서 법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하여 군 검사로 활동하면서 군사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특별히 러시아 국방성이 후원하는 군사재판에 대한 연구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프칠렌습 변호사는 1991년에 모스크바 중앙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같은 해 "신앙과 용기" (Faith and Courage)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대표가 되었다. 이 단체는 러시아 기독 군인들의 모임으로서, 러시아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만권의 신약성경을 군부대와 군함에 배포하였다.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앙과 용기"라는 러시아 잡지와 "명령"이라는 영어 잡지를 발행하였다. 1993년에는 이 잡지 발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중령의 계급으로 군대에서 제대를 하였다. 같은 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새로운 러시아 헌법을 만드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때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조항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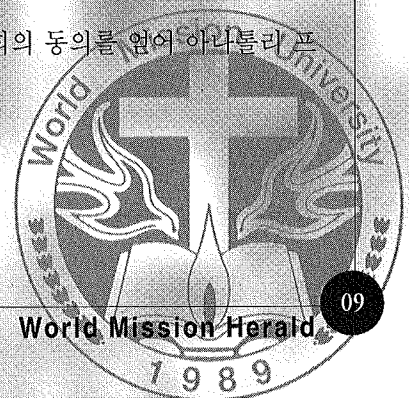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150편 이상의 소논문을 썼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헝가리어, 그리고 영어로 출판이 되었다. 그는 법률학에 대한 Ph.D. 학위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인문학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종교와 법" 이라는 잡지의 주 편집인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 프랑스, 스페인, 미국, 그리고 핀란드 등의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92년에는 러시아 종교 자유 연합회(Russian Association of Religious Freedom)를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998년에는 이 단체의 총무로 선임이 되었으며, 지금은 이사로 봉직하고 있다. 1994년에는 종교와 법 연구소의 대표로 일을 하였으며 기독교 재판 센터의 공동의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1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 재판소 등지에서 인권을 위해 수십 건의 소송을 맡아서 변호를 하였다. 특별히 러시아 전역을 바쁘게 다니면서 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특별히 신학교육에도 관심이 커서 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교재들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신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아나톨리 프칠렌습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5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부총장 강준민 목사

작은 승리를 큰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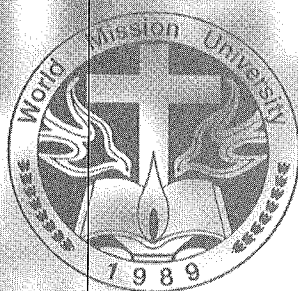
초심으로 겸손히 배우며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세가지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심으시고 배우고 훈련받는 삶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우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한 일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한 일을 시작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여러분은 소원한 것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승리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승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졸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초심입니다. 초심이란 처음 먹은 마음입니다. 또한 초심이란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전문가는 모든 것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끝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학습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졸업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꿈과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큰 꿈을 품으십시오. 또한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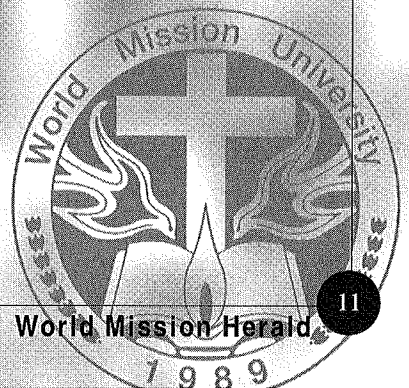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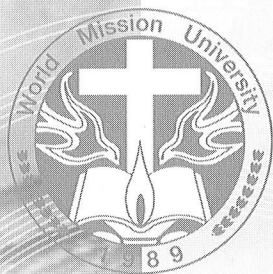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고, 어디에서나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출중해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재능과 은사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배움은 아낌입니다. 아낌은 키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은 그냥 땅에 묻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낌은 부지런히 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을 키웁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배움을 통해 자신을 키웁니다. 자신을 키움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총장훈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복음을 위한 세계적인 인물로 그들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첫째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둘째는 배우고 훈련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잘 준비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 인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세 가지 일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졸업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평생학습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작은 승리를 큰 승리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넘치시길 빕니다.

강준민 목사 드림

2 교수논단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의
전진은 준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진정한 실력은 자기의 실력을
활용할 기회가 오기까지
감출 수 있는 능력이다.

Dr. John McKenna (본교 부총장)

The 'Little Credo'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the Old Testament

His perfections are to be understood in his own Eternal being and Nature

The scholarly community has made the observation commonly today. The strong resonance of Exodus 34:6–7 with Exodus 3:14–15 is well established. Durham calls it a confession (J.I. Durham, Exodus, WBC, pp. 452–454), and he refers to J. Sharbert's article, in Biblica, 38 (1957) 130–50, in order to establish the fact that the confession is formulated and employ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Many scholars refer to the use of Exodus 34:6–7 in the books of Joel 2:13 and Jonah 4:2, and point to its use in the Psalter (See for instance D.A. Hubbard's Joel & Amos, p. 58 and H.W. Wolff's Joel & Amos, pp. 49–50).

A simple word study of the terms employed from Exodus 34:6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will verify these observations.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is not merely a Self–Revealing and Self–Naming Lord and God (Exodus 3:14–15), but also a Self–Defining Lord God who is to be found steadily struggling across the centuries with the history of Israel in her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her Redeemer and Creator.

Many commentators agree on the cultic origin of this confession about Yahweh's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It is remarkable that Gerhard von Rad, with his profound concern for credos in the Old Testament, does not concern himself with Exodus 34:6–7 as a credo in ancient Israel. I believe this omission to be a result of his analytical methods. However, R. W. L. Moberly is cited as arguing for its narrative origin, entailed in the cultic life of ancient Israel (Mountain of God, pp. 138–131). R.C. Dentan has summarized these debates in his article on "The Literary Affinities of Exodus XXXIV 6f" in VT 13 (1963) pp. 34–51. He suggests that the use of the confession was developed by Wisdom circles, refined for use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 Durham writes, 'Yahweh's confession of his nature is a powerful exegesis of the meaning of "Yahweh, Yahweh", onebrilliantly matched to (or by) the narrative of which it is part and on that summarizes dramatically that Yahweh will not accommodate his nature to the vagaries of his people's commitment.'

If we understand the confession's context as covenant renewal in the history of Israel, to which Yahweh is utterly committed against all idol-making, as 'El-Qanah (Exodus 34:14), then the cultic feast of weeks is the time and place when and where the People of God are to experience, under the renewed command of the Lord God as the Great I-AM who is who He is with Israel (Exodus 3:14-15), the redemptive renewal or ransom from Egypt (Exodus 34:20) in its context of Israel's preference for her Golden Calf. The new stone tablets preserve the righteousness of this Lord and God in His Covenant with His 'stiff-necked'People. Israel's history with the Giver of the Torah is no utterly pious time, but Israel's cultic life and the shape its meaning took with her canonical history cannot be utterly isolated or divorced from one another. Perhaps the Wisdom Tradition does provide a ground for the honoring their marriage in time. See the works of B.S. Childs and G.T. Shepherd for arguments about this significance of the Wisdom Tradition in the history of Israel's religion, going beyond the Old Testament Theologies of G. von Rad and W. Eichrodt. I would suggest that this means we may best understand Exodus 34:6-7 as the 'Little Credo' of the Great I-AM in the history of Israel. What was whispered to Moses at Horeb became fundamental to that knowledge of the Lord God upon which Israel's covenant renewals depended. She lived and worked and had her being because this Yahweh Elohim was indeed 'compassionate (逋擘), favoring (鳴俺), long-suffering (星 宬勛), and of great grace (塢) and truth (攝)' with her in her time and times.

This essay will argue that the confession founded with Moses through Yahweh's response to the Golden Calf experience in the life of Israel must be understood as the terms of the Self-Defining, Self-Naming, Self-Revealing Lord and God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s the Great I-AM He is with her. In this definition, the Lord God established Himself as the Lord God with His compassionate care for her beginnings and endings, His constant sustaining of her, His patience and slowness to anger in His longsuffering with her, and His great loyal love and faithfulness in His struggle for her. In this way, He has intended to fulfill the purpose of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Israel, in spite of His People's 'stiff-necked' (Exodus), 'high-handed (Leviticus), 'murmuring' (Numbers), and 'self-centered'(Deuteronomy, Joshua, and Judges) opposition to Him in this relationship. In this self-definition, self-accommodation or condescension does not mean any lose of the being of His righteousness, but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ord God will not be denied to the Great I-AM He is in His covenanted relationship that He has established with His People. As such, this 'Little Credo' is invoked throughout Israel's history in a plethora of ways that give us great insight into the way the Lord God with His divine freedom is purposed to make Himself known in His presence with the history of His People, in spite of His People's evil opposition to Him. These definitions must be appreciated in various times and places as well as with who the Lord God truly is with Himself.There is no greater argument that we can make than Karl Barth's explication of the Freedom of God's Being in His Acts and His Acts in His Being with His Word, found throughout His Church Dogmatics. I would

I would understand these terms, then, not as static defini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of the Lord God, but in this confession as the dynamics of His divine perfections in the acts of His Being in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Israel across the centuries of His struggle with His People. It is the dynamics of this free self-defining Lord and God in His perfections to be present and in dialogue with His People that we may read rightly their significance in the nature of the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these divine perfections He freely acts to bring about for His People the fulfillment of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Israel among the nations in the Creation that the world is. Yahweh Elohim (the Lord God) will accomplish His covenanted purposes with the People of God in His Creation, and in the latter days of this history, in spite of all opposition to Him, Israel will be His People and He will be Israel's Lord and God, the Great I-AM. In this way, we may understand the context of Exodus 34 as the locus of the Divine Righteousness for the Self-Revealing, Self-Naming, Self-Defining Lord of the Covenant.

I have published two articles on the Great I-AM that the Lord God Himself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ccording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of the Bible.J.E. McKenna, "The Great I-AM the God in Biblical Covenant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orld," Quodlibet Journal, Volume 1, Number 8, December, 1999, and "The Great I-AM of the Lord God in Covenant with His People in the New Testament," Volume 3, Number 2, Spring, 2001. My purpose in those essays was to argue for the recovery by Biblical Exegetes of a Biblical Ontology, whose domain is entailed by the transcendent ground upon whic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al nature of the Biblical Covenant Relationship, where the experience in history of the immanence of this One shapes and forms the substance and content of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It is on this transcendent ground and freedom that we may rest our understanding of both the old and the new forms of the covenanted relationship the Lord God has Himself established with His People. That is, the covenant relationship in the Biblical World is not merely an idea or concept, but a living reality whose nature is rooted in the ground of the freedom of God's own Being to act with Himself and to make Himself present in His Creation with His People. In this way, we may take seriously the real subject of the Bible as the Great I-AM that He is. I would anticipate my argument's purpose by stating that I believe we learn the patient wisdom of the longsuffering Lord and God of the Bible in time with His grace and truth or we miss the God of the Bible al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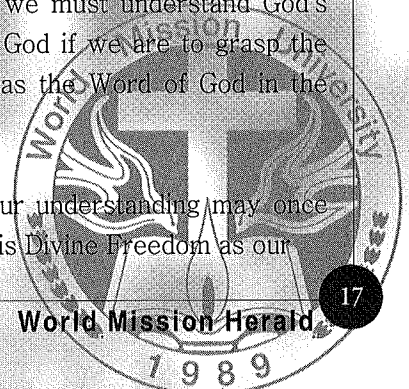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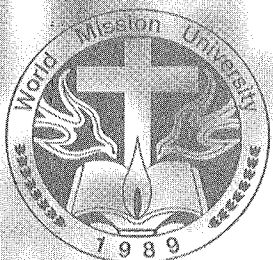
On this ground we are taught to apprehend from within this relationship both the continuities provided by His passion to be known in the scope of His covenanted reality and the radical discontinuities inherent in its development from time to time across the covenanted centuries of Israel's history as the People of God.

In this way, both the old and the new forms of the covenant are understoo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to which the Lord and God of the Bible has absolutely

committed Himself. I sought to show in my articles that the Biblical World does not allow us to divorce the God who His Acts in history from the God who is who He is in Himself and His Eternity, even in our knowledge of Him. It is this split that recognize that posited the chasm we have created between Biblical Theology and Dogmatic Theology in our time. It is this abyss that plagues so much of modern Biblical commentary.

I hoped to persuade that the One who truly is who He is in lordly freedom in His revelation provides with Himself the transcendent, immanent, and empirical experience ground upon which we may stand before the Holy One and live. Though we may and must distinguish who He is inHis acts from who He is in Himself, we can never divorce utterly the One from the Other. In the historical events of His Self-Revealing, Self-Naming, Self-Defining covenant renewing Lord and God we are given to possess real knowledge of His love and purposes for His People in His Creation. He is not someone different in His acts from who He is in Himself. His Nature and His Being are free with Himself to act in a Self-Defining communication within the orders of time and place that we are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He is not someone different in the history of a world than He is His Himself, however much we must appreciate that who He is in His acts does not exhaust who He is in Himself. His Essence and His Existence in history are not divided in Himself. All our knowledge of God is gained within the real mystery and freedom of the nature of this Being for us in this way.

I would argue, with the early fathers of the Church, that the Great I-AM of the Burning Bush of the Old Testament is none other than Great I-AM (John 8:58) about whom we read in the Incarnation and Resurrection of the Word in the New Testament. It is with this lordly and divine freedom that He enters the world as a man and Israel's Messiah to be understood as the Holy One that He is. It is as such that He is the 'Light of the World'(John 8:12). Without this kind of resonance the real dimensionality of the Lord God is lost upon our exege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e become committed to letting go of the Bible's witness to its Creator and Redeemer, to reducing our understanding either up or down the ladder we might like to place in the chasm between history and eternity, and to remaining imprisoned in our own abilities to measure and give meaning to things that more often than not escape our attention. This is especially disastrous when we split apart from one another the Will and Being of the Word of God as the Great I-AM He is in Jesus Christ. See the works of Karl Barth (cf. Church Dogmatics Vol. II. 1 & 2) and Thomas F. Torrance (cf. Trinitarian Faith) that argue we must understand God's Being in His Acts and God's Acts in His Being as One God if we are to grasp the reality of the Lord and God of the Bible we proclaim as the Word of God in the Church.

But with a recovery of these ontological dimensions, our understanding may once more become rooted in the Being of God Himself, with His Divine Freedom as our

Creator and Redeemer to reveal and name and define Himself with us in the Biblical World. We may become free of our self-centered understandings, and free then for understanding Him who actually is our Lord and God with in His own Being and Becoming for us in the world. We may say that He is free from within Himself to become our Creator. We may also say that He is free to go outside of Himself and become what He is asour Redeemer. We may in fact be made able to say that we have given to know Him as He is in His is freedom, thus overcoming the temptations to make Him something less that who He truly is---the Living One. We may know Him who has gone outside of Himselfand become something that He has never been---a man, while remaining who He truly is with His own eternity and divine and holy life. The Incarnation of His Word in the history His Creation could then be take seriously as an event whose meaning and significance bears eternal realities into the world where we have our being and know ourselves. There is, thus, much at stake when we would argue that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Himself provides the ground upon which His Revelation in history, recorded as it is in Holy Scriptures, is given to us to be known by us.

In so far as we understand the Bible as this witness to its Lord and God, the Great I-AM, we read and interpret rightly the form and content of the canonical truth bound up with His majestic truth. The Bible is in this way that one book in the world where we may gain real knowledge of Him who is its Living Lord and God. Even within those human languages that we find written down on its pages, the Bible witnesses to Him for the sake of its readers, who are asked to interpret it in the Light of this Being. Readers of the Bible are asked to face in this literature the very face of God Himself. Such is the nature of His freedom to make present with us. In this witness, we meet none other than the Great I-AM that we are not and we become willing to meet our Judge and Savior. What we cannot understand, left to ourselves, is the God who is for us in spite of our notions about and opposition to Him. We need, I would argue, in our time, to be pried open to this witness and to hear even while existing on the level of history a Word that we cannot tell ourselves. We need to learn to hear from within this world the Word that has come to us from out of this world. All Biblical Interpretation must learn to serve this Word.

With this in mind, I would like to develop a Biblical Ontology of the Self-Revealing, Self-Naming, Self-Defining Lord and God in whose freedom we are asked to read His commitment to His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I would like to hold before us as steadily as I can the significance we ought to hear when we read what I have called "The 'Little Credo'of the Great I-AM". In Exodus 34:4-7, we read: 'So Moses chiseled out two stone tablets like the first ones and went up Mount Sinai early in the morning, as the Lord had commanded him. He carried the two stone tablets in his hands. Then the Lord came down in the cloud and stood there with him and proclaimed His Name, the Lord. He passed by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Lord, God of compassion and favor, slowness of anger,

and abounding in grace and faithfulness, who maintains grace for thousands, forgiving wickedness, rebellion, and si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the children and their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he context for this confrontation between Moses and the Voice from the Burning Bush (Exodus 3:13-15) belongs to the story of the Golden Calf. In it we are shown the preference the People of God possess for another beside the Great I-AM their Lord and God is with them. Because of this opposition to Him, Israel is know as 'a stiff-necked' people. Their preference for their Golden Calf serves to uncover their opposition to His actual Being and Nature who is the Great I-AM of their lives. He is the One who delivered them from Egypt. He is the One who freed them from Egyptian gods and tyrannical grip of Pharaoh upon their lives. He is the One who gave them at Sinai His Torah, His Tabernacle, and His Worship, that they might enjoy fellowship with Him in this world. He is the One the People of God will not serve. But in spite of their opposition to this Redeemer, the Creator of all that is, He remains free in His relationship with them to fulfill his purposes for them in the world. He remains free for them in this way in His Covenant with them. He will be compassionate and favoring, slow to anger, and of great covenant love and truth even with His 'stiff-necked'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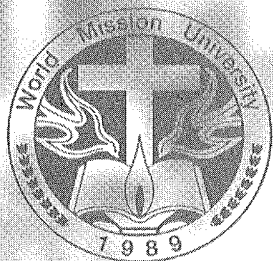
What He shows to Moses on Sinai of Himself then, this second time around, becomes known as the backbone or heartbeat of the covenanted relationship's continuity with Him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 in spite of His People's 'stiff-necked'opposition to who He is. Once the Lord God has whispered these words into the ears of Moses on the Holy Mountain at Sinai, they are spread abroad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Tribes and the Kings of Israel's struggle as His People against His passionate and relentless purpose for them in the world.

Some simple word study is sufficient to realize this profound influence of this 'Little Credo' upon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This one event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with Israel is sufficient to give significance to the whole history of this people among the nations as the People of the Lord God. In His Covenant with them, Israel as His People must learn to confess Him as their Redeemer and Creator. In Numbers 14:18, we read: 'The Lord is slow to anger, abounding in grace, forgiving sin and rebellio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In the great struggle between the Lord God and His murmuring and complaining People, when the whole of the old generation will die off so that a new generation can be taken into the Promised Land, Moses once again intercedes for the stiff-necked tribes. Divine grace is known by the new generation in the Land promised Abraham long ago (Genesis 12:1-3). Israel must learn to understand that the great grace and forgiveness of their Lord and God has not only delivered them Egypt but also shall keep the ancient covenant and take them into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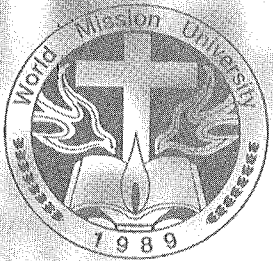
land of Canaan. The grace of the Lord God in their history gives a very specific shape to its substance, one that reflects both the slowness of God's anger with His People and His abounding grace even in His salvation for and punishment against them in their covenanted history with Him.

Among the prophets the words of the 'Little Credo' are very well understood, indeed. Joel 2:13 reads: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In the midst of the Day of the Lord in the prophetic development of the hope of the People of God, because of who He is in Covenant with them, there is this time to turn to Him, a turning that is central to the prophetic vision for Israel's future among the nations. Unless His People are able to turn to Him, Israel must suffer the curse of their covenant with Him, in which history they have possessed their existence. Without this turning to Him, punishment is their lot. He may be patient with their Golden Calfs, but He will not forever tolerate them before Him. So when they turn, become centered in Him then, they shall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and enjoy the blessing of His faithfulness in His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them.

Jonah 4:2, after the wayward prophet has been delivered from his escape to Tarshish, having been swallowed up by the Lord's Big Fish, reads: 'O Lord, is this not what I said when I was still at home? That is why I was so quick to flee to Tarshish. I knew that you are the God of favor and compassion,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 a God who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Jonah, delivered onto dry ground from his drowning in the waters of the sea, is yet unable to be anything but angry with the Assyrians and his God. Jonah hated to see the people of Nineveh turn to Him. Jonah knew His grace was sufficient for them in their turning to Him. I remember being reminded by one of my professors in school that, if I knew the Assyrians the way that Jonah knew the Assyrians, I would not want them to turn and experience the grace of the Lord God, who provides salvation even for the cruel armies of the infamous Assyrian Empire. The prophet felt he would rather die than see the turning of the Ninevites to his Redeemer and Creator. The God whose grace abounds to all those who turn to Him is faithful to Himself in this way. Angry enough to die, Jonah must learn that the 'Little Credo'of the Great I—AM could also apply even to His enemies. It is this that the prophets of Israel know well with their visions of the ultimate salvation of the Lord God for Israel: 'You will establish 'emet for Jacob; chesed with Abraham, as you vowed to our fathers from of old.' (Micah 7:20)

Lest we think that Jonah's circumstances present us with timeless truths, Nahum 1:3 reads,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and he will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Thus, the end of Nineveh is in view. Slowness to anger means patience, but it is a patience that belongs to the wisdom of the Lord God. In time, the wisdom of the Lord decides who He will be judged and who will be saved in His covenanted faithfulness with His People among the peoples of the nations of the world.

Nahum will gaze upon what Jonah desired to see. Persistent opposition among the peoples against Israel brings with it, in the good time of the Lord's good wisdom, the divine punishment for all those who oppose Him in opposing them. I like to think that, if the Lord God were not patient in this way, none of us would deserve to know anything but the meaning of this punishment. It is deeply comforting for me to realize that God is free to surround His wisdom with His favor and compassion, grace and faithfulness in such a way that all peoples are called to turn to Him. I find in the Book of James and its understanding of Israel's Abraham and Job the wisdom that is the Lord God's slowness to anger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 priestly tradition of Israel's history knows just as well as the prophets the Great I-AM's freedom to be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 and faithfulness. Psalm 86:15 knows that the Lord is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bounding in grace and faithfulness.'Deliverance from the enemies of God means, because of who He is with them, deliverance may be petitioned by His People, by His People's King. When the goodness of this God is experienced, His enemies are shamed. When His People are comforted, their enemies are ashamed. Psalm 103 rehearses all this goodness with a very purposeful exercise of Israel's memory. All of His benefits may be remembered because He is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103:8). And He is this way with His People because He is the same with Himself who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from before His Beginning and after His End. His People praise Him because Helifts them up to live on the throne of His Own Life. I like to think of Psalm 103 as the anthropology of the Bible. Humanity does not rightly know itself except in the light of His benefits with Mankind, except in the blessings of His Covenant with our kind. Again, in Psalm 145:8, in a psalm devoted in praise to the doctrine of the deliverance the Lord God is for His People, we read, 'The Lord is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 in the realm of His Kingdom. From beginning to end, His Kingdom embraces all that has been made to be and will keep covenant with His Word there. Those who love Him will know His blessing. But the wicked He will punish. From 'A' to 'Z' we can count the ways of this God in Covenant with His People among the nations. Here is defined the way of the Kingdom of the Lord.

We may also find these words with the post-exilic community. Ezra the skilled scribe of the times of the rebuilding of Jerusalem and the Temple knows the God who once whispered into the ears of Moses: 'But you are a forgiving God,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grace.'(Nehemiah 9:17).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Torah can be read aloud once more, that the priests can once again minister in the Temple, even when the Jews are ruled by foreign kings, oppressed by the pagan empires of the nations. Even while His People must learn to wait for the One whom the Lord God will send, they know that He is favorable to them, compassionate towards them, patient in His wisdom with them, and of great

grace and truth or faithfulness for them. This is the Lord of the Covenant. This is the God of the Creation. This is the One who will not lie about who He is with His People. They need but only wait and watch for Him. They need only turn from their stiff–necked opposition against Him to this One who is the Great I–AM.

I trust that these few short observations are sufficient to show that, across the centuries of Israel's history both in and out of the Land of Promise, the People of God knew their Redeemer and Creator as the One who was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of great grace and faithfulness with them. What has once been whispered in the ears of Moses had been proclaimed and sung across the years. Israel was to know that when she turned to Him who was this way with her, her time with Him would teach her that He was who He says He is–––the Great I–AM of the Lord God, favoring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great of grace and truth for her. I do not believe we have heard these words rightly unless we have heard them ringing through the centuries of her history with her Creator and Redeemer, and when we hear them in this way–––the Self–Defining Lord of the Self–Revealing God in Covenant as the Great I–AM with His People–––then I believe we shall best be able to know God not merely in His acts in history with Israel but also who He is in Himself even outside the His ways with His People in the world. Because the Lord God is with us as He truly is with Himself. It is in this freedom that we may learn the significance of these words in the Biblical World. I have therefore characterized Exodus 34:6b as The Little Credo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se predicates are not attributes derived from a principle, but the freedom of the Lord God to define Himself in His presence with His People in their history.

We need to do our best, therefore, to appreciate these words in the context of the One who employs them to define Himself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 We need, as far as it is possible for us, to penetrate into their meanings as the divine perfections of the Great I–AM in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those He has chosen to know Him and for whom He truly makes Himself present in this world. That is the words must understood as terms referring us to who He is in both His Eternity and in His chosen times with His People. The fact that even His 'stiff–necked' people know Him in thisway with their history ought to remind us that we are not talking about a dictionary definition of words or terms, but the action of God Himself in the world. We want to speak about the way God in His freedom has actually chosen with Himself to name Himself and to define Himself in covenanted relationship with his chosen people. The terms of the Credo must point us to the actual Being and Nature of the Lord God in His Freedom to be present with and for us in the history of Israel and the world with a purpose that belongs to His dialogue with His People and His Creation. The terms of the Credomean what they mean in the context of the ontological reality of the nature of this Being, established with divine freedom by God Himself, as the Great I–AM who isboth the Creator and Redeemer of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y have a significance as they bear

meaning in time and time while pointing us away timefully to realties that belong to God. His perfections are to be understood in His own Eternal Being and Nature. I believe that this means it is well worth our while to spend some time on each of the terms in the Little Credo of the Great I-AM and in the wholeness in which they participate with God Him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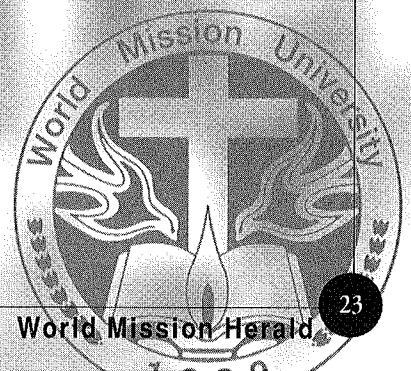
Dr. John McKenna
World Mission University

1. It is remarkable that Gerhard von Rad, with his profound concern for credos in the Old Testament, does not concern himself with Exodus 34:6-7 as a credo in ancient Israel. I believe this omission to be a result of his analytical methods.

2. See the works of B.S. Childs and G.T. Shepherd for arguments about this significance of the Wisdom Tradition in the history of Israel's religion, going beyond the Old Testament Theologies of G. von Rad and W. Eichrodt.

3. There is no greater argument that we can make than Karl Barth's explication of the Freedom of God's Being in His Acts and His Acts in His Being with His Word, found throughout His Church Dogmatics.

4. J.E. McKenna, "The Great I-AM the God in Biblical Covenant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orld," Quodlibet Journal, Volume 1, Number 8, December, 1999, and "The Great I-AM of the Lord God in Covenant with His People in the New Testament,"Volume 3, Number 2, Spring, 2001.

5. See the works of Karl Barth (cf. Church Dogmatics Vol. II. 1 & 2) and Thomas F. Torrance (cf. Trinitarian Faith) that argue we must understand God's Being in His Acts and God's Acts in His Being as One God if we are to grasp the reality of the Lord and God of the Bible we proclaim as the Word of God in the Church.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학감)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의 전진

월드미션대학교의 AABC 가입으로 학교 역사와 발전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원격교육(통신과정), 집중영어프로그램,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장기발전모금 계획은 이러한 학교 성장의 밑거름이 되며 방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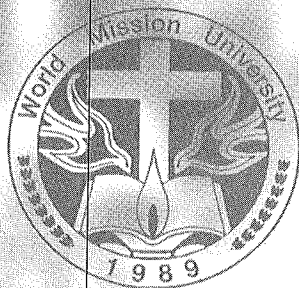
2004년 2월 20일에 AABC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미국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월드미션대학교는 세계를 향한 비젼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작은 일을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미국대학의 회원자격을 획득함으로 인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부적인 성숙과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교에 속한 교수, 이사, 동문, 후원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본교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역들은 원격교육(통신과정), 영어집중교육(ESL), Financial Aid, 장기발전계획 등 이다.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I. 원격교육(통신과정)

원격교육은 거의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원격교육은 시작단계부터 교육효과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나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부정적인 견해를 다 극복하고 대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 기술, 특히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원격교육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 교육부에 의하면 1995년 기준으로 미국 내 1/3 대학들이 원격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의 25%의 학교들이 3년 이내에 원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가 원격교육을 개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교의 사명이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임을 고려할 때,
1) 시간, 재정, 지역적인 이유로 신학 교육을 받고 싶으나 학교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나 성인 중 재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이며
2) 학생 모집의 한계성을 벗어나 바른 지도자들을 키워 내고자 하는 본교의 영향력을 남가주 이내에 국한 시키지 않고 미주 모든 지역과 나아가서는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본교가 구상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대상은
1) 미주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동양선교 교회의 지교회 중 신학교가 없는 지역의 교회 성도로서 신학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2)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또는 평신도 사역자 중 재교육, 연장교육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3) 공부를 하고 싶으나 Full-time으로 일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는 L.A. 지역의 사람들이다.

원격교육의 방법은 독자적online (modified online) 방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Modified online은 강의 내용을 담은 영상 CD나 DVD, 교재, 강의안, 강의 안내서를 학생에게 발송하는 면에서는 통신교육 (correspondence)의 형태이나 통신교육의 취약점인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교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수와 동료 학생끼리 상호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Chat Room이나 게시판을 제공한다. 또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집중강의 (modules)를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원격교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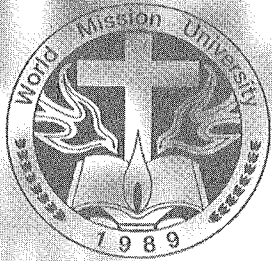
원격교육의 개설로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장교육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본교의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며, 원격교육이 발전함으로 더 많은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집중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ESL)

본교가 AABC의 준회원으로 인준됨에 따라서 학생의 영어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동안은 한국어 중심의 교육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영어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어권의 사역자들이 본교에서 교육을 받기 원하며, 한국어권 사역자들이 한국어 중심사역에서 영어권을 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교가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미국 주류 대학이나 신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문적 영어실력을 높여 미국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이 가능하며 영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 목회나 선교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절한 영어로 성경적, 신학적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민 교회에 영어권 사역자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가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인식하고, 영어권 사역에 뜻을 둔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인 신학 교육 기관에서 영어권 사역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이민 교회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성경적, 선교지향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본교의 사명에 매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인적 목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4년 가을 학기부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신입생은 본교에 입학할 때 실시하는 영어 평가 시험을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III. 학자금보조 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FSA) program)

본교가 AABC에 가입함으로 수여받는 특권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정부차원의 학자금보조와 학생융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물론 학교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때문에 학교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혜택을 받는 학교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자금보조는 "Title IV" 라고 하며 자격을 갖춘 학교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U. 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주관한다. 학자금보조는 무상으로 제공 받는 grant와 다시 갚아야 하는 저금리의 장기 융자(loan) 두 종류가 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자격이 구비된 학생만 제공 받을 수 있다.

Federal Pell Grant Program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Program
Federal Work-Study (FWS) Program
Federal Perkins Loan Program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Program
Leveraging Educational Assistance Partnership (LEAP) Program [formerly State Student Incentive Grants (SSIG)] grants
Special Leveraging Educational Assistance Partnership (SLEAP) Program
Robert C. Byrd Honors Scholarship Program

IV. 장기발전계획(모금계획)

장기발전계획은 본교의 발전계획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금모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본교와 같이 발전도상에 있는 교육기관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동양선교교회를 중심한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결실이 맺혀지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모금 계획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더하여 많은 후원자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본교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본교 후원자의 필요성을 알리어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원자가 되기를 원할 때, 처음부터 부담이 되면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적은 부분부터 동참케 하는 것이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일단 기도후원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후원 음악회와 월드미션의 밤 등의 행사에 기도 후원자들을 초대하고,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소식지를 보낸다. 소식지에나 후원금 요구 편지에는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동문들의 활동사항을 소개하여 후원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한다. 이들에게 학교를 후원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 각종 혜택을 확대, 학교의 평신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그들을 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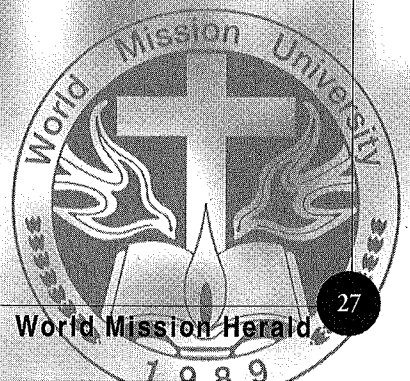
후원자의 범위를 동양선교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지역사회전체를 목표로 한다. 동양선교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한인 지역사회 전체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의 비전을 나누고 동참을 독려한다. 동문 회원들도 물론 모두 기도후원회원으로 참가하게 한다. 지역교회도 다른 방식의 도움보다는 우리 교수들이 방문하여 설교하고 기도후원회원이 되도록 독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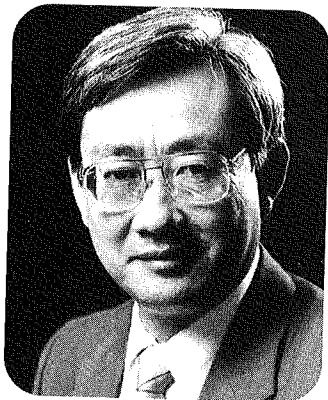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양한 후원 방식을 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후원자들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후원 방식을 크게 장학금 기증과 학교운영기금후원으로 분류한다. 기도후원자의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입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중요한 모금 대상자들을 통하여 학교의 중요한 부분의 장기적인 자원을 확보한다. 장학 기금을 특별한 이름으로 장학 기금을 지정하여 계속 정립할 수가 있다. 매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그들을 초대하여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유산이나 생명보험 바치기 운동: 유산이나 생명 보험 중에서 10분의 1을 헌금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장기발전 기금: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정하여 적립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건물 융자금을 상환하기위한 모금을 시행한다. 현재 학교 건물로 인한 장기 부채가 3,400,000불이다. 학교가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부채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융자금만 상환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안정적인 발전계획을 수행하여 나갈 수 있다. 2006년까지 총 340 만불을 마련하여 본교의 건물에 대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통신과정, 집중영어교육, 학자금보조 등이 계획되어 실천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 직접 관계된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 본교를 사랑하는 모든 후원자들이 작은 부분을 나누어서 감당하여 그 힘이 하나로 모여지면 어떤 계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하는 일이 더욱 귀한 것이다.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의 대열에 여러분 모두를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조석환 교수 [본교 조직신학교수]

"신앙" 에 대한 Kierkegaard 의 실존주의적 이해

케에르케고르는 무관계를 "절망" 이라고 부른다. 절망의 의식은 구원을 위한 치유의 시작이다. 즉, 내향으로 돌아서 영원한 신에게 자신을 관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1. 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인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적과 초자연적 계시 등을 믿는 신앙의 내용은 합리적이며 객관적 진실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신앙의 진실성 또는 정당성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 할 수 있는가? 신앙의 진리가 교회가 제정한 교리의 암송이나 윤리적, 합리적 용어로 이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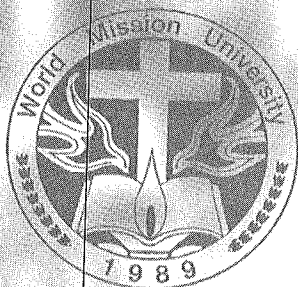
이번 학기, (신학생을 위한) 철학개론의 인식론과 논리학을 공부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 를 다루었다.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인식이나 진술(statement)이 그릇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는 표준들(criteria)에 여러 가지가 있음을 주목하였었다. 그 표준들 가운데는 본능이나 감정을 포함하는 "직관적" 인 것, 전통과 보편적 합의와 권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 것, 통일성(coherence)과 실용주의 (pragmatism)를 포함하는 "합리적 또는 철학적" 인 것이 있음을 보았다. Cf. Warren C. Young, A Christian Approach to Philosophy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3), pp. 47-58.

신앙의 진리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표준을 사용해야 옳은가? 신앙은 신자의 감정에 불과하고 객관성이 없는 것일까? 신앙은 습관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합리적으로 수궁 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인가? 신앙에 대한 개관적 인식이나 설명이 주관적 체험으로써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합리주의나 교권주의에 대해 반기를 들며, 신앙의 진리에 대해 독특한 입장을 강조한 Kierkegaard 의 "실존주의" 적 이해를 여기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객관적 이해에 대한 비판

키엘케골 은 정열적이고 진지한 비평가요 반항아였다. 그는 당시 Heglel 의 절대 관념론(absolute idealism)으로 대표되는 사변적 철학(speculative philosophy)을 비판하고 관료적 교회에 반기를 들었다.

1813년 코펜하겐 에서 태어나 같은 도시 길거리에서 쓰려져 숨질 때까지 정열적이나 고독했던 그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1843), 반복(1843), 철학적 단편(1844), 인생의 계단(1845), 결론을 내리는 비학문적 추서(1846), 죽음에 이르는 병(1849), 기독교 훈련

(1850), 기독교 왕국에 대한 공격(1854-55)등 짧은 기간에 많은 저서들을 내 놓았다. 그의 모든 저서의 핵심 문제의 하나는 신앙의 개념 또는 신앙의 진실이었다.

키엘케골 은 신앙에 대한 (1)객관적 또는 합리적(objective or rational) 견해와 (2)주관적 확실성, 선택의 행동 또는 최고의 정열(an act of choice or the highest passion) 로서의 신앙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신앙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취급하게 될 때에 신앙은 (가) "종교-역사적" 으로 취급 되든지, (나) "철학적" 으로 취급되게 된다. 신앙의 문제를 전자의 관점에서 취급 할 때에 신앙의 진실성은 여러 가지 자료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후자의 관점에서 다루어 질 때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교리와 영구불변의 진리와의 관계를 철학이 결정짓게 된다. 그럼으로 키엘케골 은 이 두 가지 "객관적" 방법 모두에 반기를 들었다.

(가). "종교-역사적" 왜곡에 대한 반론

"종겨=역사적" 기독교에서 성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연적인 결론(a probable conclusion)에 도달 할 뿐이다. 키엘케골 은 비학문적 추서 에서, "an approximation is the only certainty attainable for historical knowledge- but also an inadequate basis for eternal happiness."라고 말하였다. S. Kierkgaard,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r. David F. Swenson and compl. by Walter Lowri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1), p. 31.

교회도 신앙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데 의지할 만 한 것이 못 된다. 교회의 교훈의 객관성도 개인의 무한한 관심사(infinite interest)와 맞지 않는다(incommensur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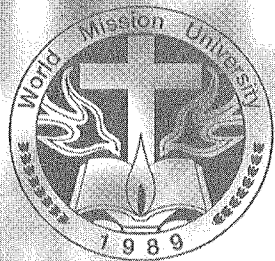
신앙이 무엇인가를 소위 "역사를 통한 증거(the proof of centuries)"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도 잘 못 된 생각이다. 키엘케골 은 비학문적 추서에서," an hypothesis may become more probable by maintaining itself against objections for three thousand years, but it does not on that account become an eternal truth, adequately decisive for one's eternal happiness." 라고 선언하였다. Ibid. p. 45.

내적 확신으로써의 주관적 신앙은 객관적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생겨나지 않는다. 역사적 증거가 신앙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신앙을 종교의 형식(the forms of a religion)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신앙은 종교적 권위(religious authorities)에 대한 신뢰나 신조에 대한 고백(oral profession in religious creeds)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저자로써의 나의 저서에 대한 견해란 책에서 그는 "이 수천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부르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는 꽤 낮선 범주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으며, S. K., The Point of View for my Work as an Author, tr. W. Lowrie (Oxford University Press, 1939). p. 22.

비학문적 추서에서 참 신도가 되지 못하며 신앙이 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며 세례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세레를 받은 이교도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 사변적 관점(speculative point of view)에 대한 반론

키엘케골에 의하면, 사변적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철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사변적 철학에서는 가능성이 실재보다 더 중요해지며, 사변적 이해는 철학의 방법론에 의해 진행된다. 철학적 사색에 있어서 영구불변의(incorruptible) 하나님의 영광은 철학자의 부패한 초상의 형상(the image of his corruptible likeness)으로 변한다. Ref. Harold V. Martin, The Wings of Faith (London: Lutterworth Press, 1950P. 49. Also see, S. K. Philosophical Fragments, tr. D. F. Swens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8), p. 36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체계와 방법론과 모든 운동은 낮은데서 높은 데로 움직이고, 상상과 감정은 뒤에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하여, 철학은 본래의 실존적 인상과 경험에서 더욱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는 비학문적 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very thing has been finished, and speculative thought has now to lubricate, classify, and methodically arrange the various concepts. One does not believe; but one knows what love and faith are, and it only remains to determine their place in the System." (Postscript, p. 307.)

그에 의하면, 신앙은 실존하는 인간의 주관적 열정(passion)이며 내적 확실성 (inward certainty)이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으로써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불확실(objectively uncertain)하나 주관적으로 이해된 존재이다(subjectively grasped). 신의 존재에 대한 연역법의 증명은 미혹 하게하는 논리이다(deceptive). 실존에 있어서 사고와 인식력은 상상과 감정보다 더 높지 아니하며 그들은 대등하다(they are coordinate).

3. 신앙에 대한 실존주위적 이해

키엘케골 에 의하면, 신앙은 종교-역사적 권위나 비실존화 된 철학적 사고의 결론에 대한 신뢰 이상의 것이다. 신앙은 신뢰와 사색에다 정열과 주체성을 실존에서 합한 개인의 "자기됨" 의 운동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자기가 되려고 의도하는 것" (willing to be oneself) 을 의미한다. Frederick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Vol. 7, Part II (New York: Image Books, 1965), p. 470.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포괄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철학가의 결론이나 객관적 권위(신부나 교회의 말)에 대한 무비판적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주관적으로 내향적으로 "영원한 행복" 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신앙은 "영원한 행복" 과의 관계에 있는 실존하는 개인의 "최고의 정열" (the highest passion)이요, 도약(leap)이요, 의지에 의한 선택(an act of choice, self-commitment)이다.

그러면 "실존" 하는 개인이란 무슨 뜻인가? 그에게 있어서 "실존" 이란 "사고된 존재" 에 대조 되는 말로써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존재의 전체(totality)를 의미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한다는 말은 영원한 신(神)앞에서 개인으로 살며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인은 그의 모든 실제적 고난과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에 관계된 개인이다. 이 실존하는 개인의 과업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 무한한 정열을 가지고 내향하여 돌아서는데 있다.

그의 한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는 실존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혼(魂)이다. 혼은 자아이다. 자아는 자아를 자체에게 관계시키는 관계이다. 이 자아는 그 자체를 또 다란 자체에 관계시킨다. S. K., The Sickness unto Death, tr. W. Lwrie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4), p. 154.

이 관계에 있어서의 무관계를 그는 "절망" 이라고 부른다. 그런고로 누구든지 절망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절망을 불러 그는 자아 안에 있는 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질병을 의식이란 국면에서 볼 때 세 형태로 나눠진다. 즉, 자아를 가지는 의식이 없을 때와 자아가 되지 않으려는 때와 자아가 되려고 뜻 할 때의 세 가지 경우의 절망이다. 첫 번째는 자아가 절망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식하지 못 할 때의 절망이다. 이것은 절망의 극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리와 구원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절망 중에 가장 위험한 형태의 절망이다. 두 번째는 절망을 의식하는 절망의 한 형태로써 다른 것이 되려고 소원하는데서 오는 절망이다. 세 번째는 절망을 의식하는 다른 종류의 절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뜻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다.

절망의 의식은 구원을 위한 치유의 시작이다. 이것은 신앙에로의 통로이다. 절망에 빠진 개인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이 운동은 그의 과업이다.

실존하는 개인의 과업이란 다른 말로 말해 심사수고(reflection)의 주관적 방법을 통해 자가 자신이 되는 것을 뜻한다. 즉, 내향하여 돌아서 영원한 신에게 자신을 관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내향함으로 실존하는 개인은 자신을 자신의 궁극적 목적(Telos)에 관계시킨다. 이것은 자신의 실존을 변화케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비학문적 추서에서 "만일 영원한 행복의 이념이 그의 실존을 아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에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만일 무엇 한나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관계는 거기 없는 것이다." Postscript, p. 353.

라고 말 하였다. 그런고로 이러한 관계는 모든 상대적 목적을 초월한 궁극적 목적 곧 영원한 행복과의 관계이다.

궁극적 목적에 관계시킨다는 것은 무든 두 겹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관계시키는 것 뜻한다고 그는 그의 저서, 마음의 수결은 하나를 뜻하는 것에서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책임을 지고 개인으로서 살라" S. K.,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 1956), p. 187.

는 것이 그의 실존주의적 호소이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 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설명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파악된 "최고의 선" 이다. 인간은 이것을 위하여 최고의 정열을 가지고 무한한 운동을 전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 은 이 세상과 마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엉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결정되는 선이다. 그런고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신자와 영원한 행복과의 관계의 표현은 "비애" 적이다.

이 비애의 본질적 표현은 고통(suffering)이요, 결정적 표현은 죄의식(guilt)이다. 자신과 하나님께로 내향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개인은 고통 속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원한 행복에 관계시킴으로 그 개인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직접성(immediacy)으로부터 사라져가야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실존적 관계의 한 본질적 표현으로 고통이다.

이 고통의 영역 안에 시험(Anfechtung)이란 특수한 종교적 투쟁이 놓여 있다. 이 시험은 유혹(temptation)과 구분 된다. 유혹은 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윤리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 하면 유혹은 윤리적 인간에 대한 최고의 위험이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개인의 제한이다. 직접성으로부터 죽어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고통과 종교적 투쟁으로서의 시험은 행복의 징조(Sign)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바로 영원한 행복에 관계되는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적 의미에서 말하는 죄의식(guilt)은 영원한 행복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관계의 의식(the consciousness of disrelationship)을 의미한다. 비학문적 추서에서 "죄의식의 본질적 의식은 실존에로 깊이 빠지는 첫걸음이요, 동시에 실존자가 영원한 행복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다. ……. 조화의 불가능성 또는 무관계의 표현이다."라고 말 했다. Postscript, p. 473.

인과보응(因果報應)이나 난행(難行)의 사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죄 의식의 최고의 표현은 " 죄의 영원한 회상 "이라고 그는 말한다.

키엘케골 은 이상에서 말 한 토대 위에서 종교성을 A와 B로 나눈다. 종교성 A는 자기 실존의 "비애" 적 변형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통한 신앙에 의한 실존의 역설적 변화는 아니다. 종교성 B는 실존의 역설적 변화를 뜻한다. 여기에 있어

서 영원한 행복에 관계된 실존하는 개인은 이 세상으로 돌아 와 "죄인" 이 되고 "새 사람" 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실존자" 는 절대 목적(absolute telos)에 관계돼 있으며, 절대적인 것을 위해 상대적 목적들(relative ends)을 포기(renounce)하나, 동시에 이 유한한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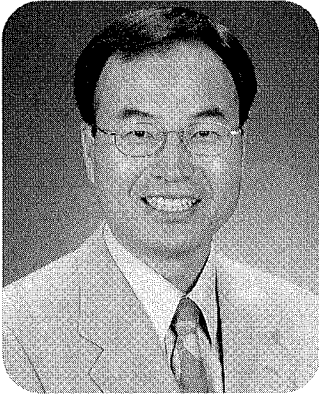
자기의 사명(mission)이행에 전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 "레기나" 와 약혼마저 포기하고 짧은 생애를 고독하나 분주하게 산 키엘케골 은 관료적 교회에 반기를 들고, 위에서 말 한 실존적 신앙을 전하기 위해 개개인을 향한 호소의 글을 쓰다가 1855년 피로에 지친 몸으로 쓰려져 숨을 거두었다. 그에 의하면 실존은 단순한 지적인 사고(intellectual thought)로 축소(reduce)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의 진실을 단순한 윤리적 과학적 용어로 만으로는 파악 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은 교권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나 합리적인 설명에 의 해 생겨나지 않는다.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진 실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정하는 "선택" 이요 "도약" 이요 "최고의 정열" 이다.

물론 이러한 실존주의적 신앙관에 대해서 합리성이 결여 된 독단주의와 고집(stubbornness)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Niegel Warburton, Philosophy, The Basics (London: Routledge, 2002), p. 35.

특히 인간과 인간사이의 법에 관한 윤리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약자와 눌린 자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 반항하는 사회정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성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절대화하는 것을 반대 한 것이며, 사변적 관점(speculative point of view)과 신앙 자체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음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극도로 비인간화하고 집단화하는 사회와, 극도의 물량주의와 권위주의로 세속화하는 종교계에서, 절대자 앞에 개인으로 서 있는 실존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궁극적 관심으로써의 신앙의 진실성을 일 깨워준데 그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종성 교수 [본교 학생처장 및 신약학 교수]

서기관들에 대한 소고

서기관들은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들이자 동시에 훌륭한 교사들이었다. 그들의 교육방법중 특이한 것은 "비의적"교수법이었는데 이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제한된 사람에게만 전수된 지식들이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공관복음서에서 57회 나타난다. 많은 경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율법사, 교법사 등의 단어와 혼용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아 서기관의 기능이 다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역할들을 종합해 보면 "서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율법학자" 로 부르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실지로 우리말의 공동번역성경이나 표준새번역 성경은 "서기관" 이라는 말 대신 "율법학자" 라고 쓰고있다.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기관들은 평민출신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이들은 출생이나 가문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고, 실력을 통해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날품팔이, 상인, 목수, 천막제조자, 수공업자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힐렐학파의 창시자였던 위대한 선생 힐렐은 바벨론 태생으로 날품팔이를 하던 평민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율법에 대한 실력이 그의 출신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수하고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통달한 율법학자들이었다.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다. 율법을 어떻게 보전하고, 해석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할지를 결정하였다. 또한 전통을 수호하되 절기, 기도, 정결법 등에 대한 이들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권위가 있어서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전 생애를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동시에 훌륭한 교사들이었다. 자신의 집이나 성전 또는 회당에서 문답식 교육을 하며 반복학습을 통하여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교육의 이면에는 존경과 신뢰에 바탕을 둔 생활교육이었다. 부모보다도 스승을 더 존경하는 사회분위기가 될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부모와 스승이 짐을 들고 오면 스승의 것을 먼저 받아 들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은 절대적이었다. 이 만큼 서기관들은 훌륭한 교사가 되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던 것이다.

서기관들의 교육방법 중에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비의적" (esoteric) 교수법

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대중에게 공개가 될 수 있었지만,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스승과 가장 신뢰하는 학생만이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지식을 전달하였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깊은 비밀이라든지, 우주생성의 원리라든지, 성경의 특정본문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교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중들에 의한 말씀의 오용, 거룩성의 파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가능성 등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것이다. 즉 말씀에 대한 신중함과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에서 온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11:52)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비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공관복음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대중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비유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신 것을 보게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것도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 비의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밖에도 구원계획의 비밀, 종말에 대한 비밀 등을 예수님께서 서서히 밝히시는 것을 보게된다. 교회도 이런 비의적 전승을 이어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만찬 예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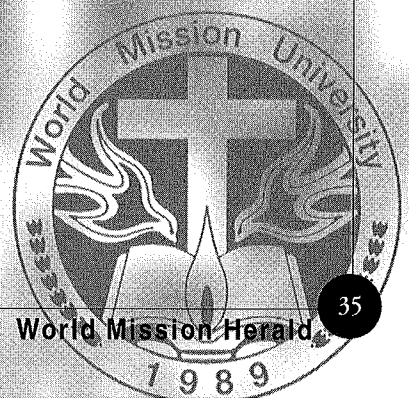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비의적 성격은 그들에게 더욱 권위를 실어주었고 구약 예언자들의 직계선상에 위치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다. 잔치에 오면 맨 상석으로 안내를 하고, 그가 참석했다는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었다. 멋진 장식을 달고 긴 옷을 걸친 이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백성들은 존경의 마음이 떠올랐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소송이 걸렸을 때 이들이 판결해 주기를 원했다. 또 이들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들었다. 행5:34에 나오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경우도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그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탈무드의 전승은 이들의 무덤이 족장들과 예언자들의 무덤 옆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서기관들의 위치가 족장들이나 예언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음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도 당시 여러 단체들과 비교하여 서기관들에 대하여 비교적 호감적인 태도를 취하셨다.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보완설명해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서기관을 칭찬해 주시기도하였다. 책망을 받을 때는 꼭 다른 집단과 함께 책망을 받았다. 서기관들만 유일하게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즉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책망이었다.

이 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동조한 그룹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한 몫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고 학자계층의 선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일들에 연루가 되었을까? 아마도 율법에 전문가들인 이들이 점차 산헤드린이나 사회의 중요한 요직에 등용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게되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서기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이 정치적인 일들에 관여를 하게 되고, 특히 당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예수님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을 것이다. 왜 믿지 않았을까?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잘못일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 잘못일까? 아니면 이들은 학문적인 편협성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통하여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롬11:25-26까지 "신비한 비밀"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을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부함으로 복음이 유대인게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기관들이 던져주는 교훈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열정, 학문적 진지함, 탁월한 가르침, 존경받는 지도력 등은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들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헌신과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서기관들이 되어야 하겠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13:52)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변명혜 교수 (본교 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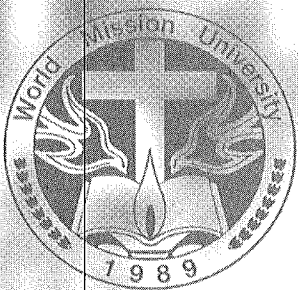
Experiencing Divorce or Death of a Husband and God-Image

The loss of one's spouse through death or divorce impact on almost every aspect of life inclucling spintual life

A person's God-image, one's understanding and feelings of God is critical in one's relationship with God since one's thoughts and actions are shaped by his or her God-image. Knowing God as He is leads a person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Eph 3:17-19) and eternal life (Jn 17:3). Tozer (1961) affirms the importance of God-image in a person's spiritual life by saying that "we tend by a secret law of the soul to move toward our mental image of God" (p. 9). A person's view of God may translate itself into a general predisposition for the conduct of his or her life.

Thus, a person's God-image that is in accord with what God is really like is the basis for the intimate relationshipwith God. On the contrary, distorted or unhealthy images of God prevent spiritual growth of a person. A person cannot afford to have a distorted God-image if he or she desires to live in the way God wills for him or her. Thus, understanding people's God-image is a key avenue to helping them resolve their difficulties with God.

God Imag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God is beyond human ability. Human attempts to know God do not lead to knowledge of the true God (1Cor 1:21). Limited, as a part of creation, man is incapable of attaining a valid knowledge of the transcendent Creator through natural means. Terrien (1978) affirms that the reality of the presence of God stands at the center of biblical faith, but it is always elusive since God hides himself. A person can never hope to form an adequate image or a concept of God through the means of cognition. Contrary to the man's knowledge of God, which is limited to the world experience, God reveals Himself through His Word. According to the Bible, God is known only through His self-revelation. Each person sees a fragment of the nature of God as God wills by His Spirit (1Cor 2:10-11). God makes Himself the object of human knowledge so that people can truly know Him through the creation (Rom 1:20) and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People have changing images of an unchanging God as they experience God in their lives. Even though the foundation of a person's God-image forms in earliest childhood through

experiences with significant others impact the person's God−image. Thus, knowing God is a process that covers the entire life cycle from birth to death (Rizzuto, 1979). In other words, life is a continuous process of reshaping the God−image.

To some degree, each person's God−image depends on the nature of his or her experiences and needs. Mac Rae (1977) studied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need to God concept. Based on Maslow's Hierarchy of Needs (physiological, safety, love and belongingness, esteem, and self−actualization), he examined the God concept of people who were in each psychological need level.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person's predominant psychological needs were reflected in the attributes of God that one perceives asmost meaningful to oneself. Hazard (1995) affirms that when we speak of God as we know Him, we are likely to describe our own inner selves at that time our selves and our need (p.46). A person's God−image provides a picture of his/her spiritual life.

God of the Bible

Ifpeople have a changing view of an unchanging God, then who is the God of the Bible? The God of the Bible is first a personal being. God knows and wills in accord with our concept of personality (1Cor 2:10−11; Eph 1:11). The biblical description of God as Father certainly involves personal traits. God, as the source and sustainer of His creatures, personally cares for them (Mt 5:45; 6:26−32), and He is the one whom man can trust.

The Bible describes God as Spirit (Jn 4:24). The spiritualnature of God refers to the infinite superiority of His nature over all created life. God as Spirit is the living God who is the source of all other life (Job 33:4; Ps 104:30). The weaknesses of creatures are contrasted to God as the creator.

The God of the Bible is also depicted as holy. The holiness of God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features of God's being (Is 40:25; Ps 99:2−3). In His holiness, God exists as transcendent Lord over all time and place (Ps 90:2; 1Kings 8:27). God's transcendent holiness is biblically balanced with the teaching of His immanence. The immanence of God signifies that He is wholly present in His being and power in every part and moment of the universe (Eph 4:6; Ps 139:1−10). Isaiah 57:15 describes God's personal presence with, and for, His people.

Death of a Spouse or Divorce and God−Image

Death of a spouse or divorce is a crisis that brings adverse mental, physical and health consequences to individuals. Among the 43 stressful life events that require readjustment of life style, death of a spouse was found to be the most stressful life event with divorce being the second (Holmes & Rahe, 1967). If death of a spouse and divorce has a disruptive impact on almost every aspect of a person's life, they may also affect one's spiritual life including one's God−image. As a biblical example, in her desolate distress Naomi ascribed the death of her husband to God expressing her bitterness (Ru 1:20−21). In contrast, Job's concept of God did not change in spite of the severity of his suffering (Job).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t is continually transformed and reshaped as new

Even though a person understands that God is not responsible for causing divorce or death, he/she may experience conflict between his/her learned God-image and his/her God-image after the loss. In experiencing the loss of a spouse, a person's God-image, which may not fit with realities in his or her life, can be distorted. In spite of their efforts to find explanation for the loss experience, people in crisis feel isolated from God, unable to understand or be understood by God. As a person feels abandoned by God, the God-image of a caring Father consequently begins to dissolve, replaced by an image of perverse cruelty or blind indifference. Some may feel a sense of betrayal that what the church taught them no longer seems valid or true.

Rizzuto (1979) suggests that each crisis creates three possibilities: belief ceases because it loses meaning, remains developmentally anachronistic or is revised (p. 203). Some people may reject God when their loving God-image no longer seems true. Sechrist (1976) affirms that when trauma ensues, some people regress to a more primitive level and often in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ir faith.

Over time, a person who experiences the loss of a spouse either reinterprets the event as compatible with his or her pre-existing God-image or attempts to alter the God-image to accommodate the loss. Since the grief process is "a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cess in which a person gradually changes his view of the world"(Parks, 1970, p. 465), reformulating a person's God-image will take place over a period of time. The reformulation of a person's God-image can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spite their attempts to integrate the loss into their spirituality, some individuals will be unable to do so and will continue to have a distorted or punitive image of God. Concerning the punitive image of God, Barth (cited in Ripple, 1982) said that "for too long we have taught Christians about a God that is not faithful to who God is for us." He continues that people learned about a "therefore" God -- a vindictive and punishing God grew out of the knowledge of how human beings respond to and treat one other. Barth emphasizes the need to replace this God with a "nevertheless" God -- a God who loves and accepts us under all circumstances. Others, however, may grown in a more deepening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e opportunity to move from a questioning and uncritical faith to a more developed and personalized faith.

A person's perception of God is changed, sometimes severely, and possibly destroyed after the loss (Mitchell and Anderson, 1983). In case of divorce, people raise questions of acceptability to God since the marriage vow made before God is broken. Any relationship of intimacy is grounded upon a basis of love and trust, and this is true of the relationship one has with God. Yet, these very issues intimacy, trust , love are central to the crisis of divorce.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these questions will arise in terms of a divorced person's relationship with God.

The study by Bloomquist (1984) indicated the effect of divorce on a person's God-image. Pursuing the question of how and why the divorce experience can make a difference in one's spiritual life, she interviewed 15 persons who were either divorced or in the process of divorce within the mainline Protestant churches. Interview questions for the divorced included both external (objective) and internal

attendance and activity, and internal measures included God-images, patterns of prayer, and self-evaluation concerning various issues (e.g. the effect of the divorce o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terviewees described disappointment, shattered hopes and dreams, estrangement from God, blaming God, a sense of abandonment by God, anger and confusion early in the divorce experience. One person said that during the process of divorce, guilt and shame prevented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For some people, the God-image during the process of divorce is vengeful and wrathful, while later it becomes loving and accep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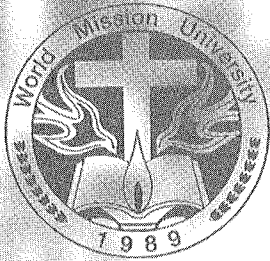
Rizzuto (1993) pointed out that it is the worst abuse of religion when believers in suffering projected their personal hatred onto a cruel and destructive God. On the other hand, religion that transforms human suffering into a faith that allows personal development may be an essential component of individual health (p. 32-33).

Nathanson (1995) also studied the effect of divorce on women's spirituality including God-image. The 12 female volunteers who divorced for 3 years or less and were recruited from support groups. Each person was interviewed with open-ended questions that explored a person's spiritual history and profile of divorce experience. The majority of them (42 %) expressed anger toward God. They were disappointed and confused.

However, as a person reexamines and reworks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God, his or her God-image, which has been significantly challenged or altered, can be reformulated resulting in spiritual maturity. A distorted God-image brings damage to one's spiritual life. If the loss experience of a spouse is an opportunity for spiritual growth, distortions of the God-image need to be identified, and proper teachings and support to recover the healthy God-image have to be provided.

Conclusion

The loss of one's spouse through death or divorce has disruptive impact on almost every aspect of life including spiritual life. Death is usually an unavoidable involuntary vent while divorce, in most cases, is a voluntary act based on human choice. In spite of the church's continuous teaching about sanctity of marriage, there is more divorce among people in the church. Even though divorce is only one of many instances of human sinfulness, most divorced Christians feel a sense of guilt and failure. Being divorced as a believer is apparently one of the most shattering experiences.

For the divorced and the widowed, confusion about God comes from the thought that God is a comfort, yet the divorced and widowed wonder if God knows what he is doing. In the resolution of the loss, building a healthy God-image is necessary. Rizzuto (1979) agrees that if one's God-image is to be found relevant for lasting belief, it needs to be recreated in crisis. First, acknowledging and confronting the unhealthy and negative God-image is necessary even when one's confidence in God is a source of strength in grief. This acknowledging process may raise the level of anxiety, but the resultant understanding of God in the face of senseless loss spurs (subjective) measures. External measures included such as level of church on

spiritual growth.

Second, the capacity to build a healthy God-image in the aftermath of loss depends on several factors. Among them, support received after the loss is a very critical one. Considering the church as a family of God(Mt 12:50; Mk 3:35; 1Pet 2:17; Heb 2:11), the church could be the supporting community that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resolution of loss. Due to the lack of preparation and knowledge, however, the church does not function well as a helping communityto the widowed and divorced (Koons & Anthony, 1991). Without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e loss on spirituality, sometimes churches put more pressure on people who are in a crisis to maintain God-image as lov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God-image of the widows and divorcees seems a necessary task for the faith community.

REFERENCES

Bloomquist, J. (1984). The effect of divorce on spiritual growth: A study in Protestant spirituality. Thesis,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CA.

Hazard, D. (1995). Seeing more of God. Discipleship Journal. 15(1), 44-50.

Holmes, T. & Rahe, R.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Koons, C. & Anthony, M. (1991). Single adult passag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Mac Rae, D. (1977).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need to God concept and religious perceptions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1976). Dissertation Absract International, 38, 1954B.

Mitchell, K.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Nathanson, I. (1995). Divorce and women's spirituality.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2(3/4), 179-188.

Parks, C. (1970). The first year of bereav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action of London widows to the death of their husbands. Psychiatry, 33(4), 444-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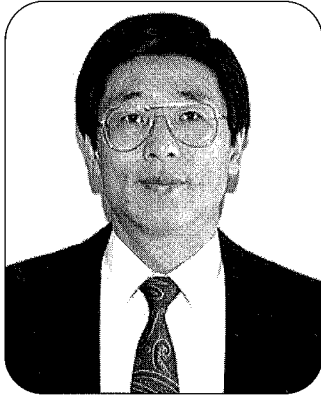
Rizzuto, A. (1979).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Exploring sacred landscapes. In M. Randour (Ed.), Exploring sacred landscapes: Religious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psychotherapy. (pp. 16-33). N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Sechrist, C. (1976). Hostility and concepts of God as functions of character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1975).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 3097B.

Terrien, S. (1978). The elusive presence: The heart of biblical theology. New York, NY:Harper & Row.

Tozer, A. (1961). The knowledge of the holy; The attributes of God: Their meaning in the Christian life. NY, NY: Har

김진광 교수 [본교 성경신학 및 실천신학 교수]

THE PLACE OF HOPE IN SPIRITUALITY(A FOCUS ON I PETER)

Hope produces patrence and perseverance even in the midst of wordly suffering, and it negates fear and anxiety.

A person's God–image, one's understanding and feelings of God is critical in one's Bertrand Russell wrote that only on the firm foundation of unyielding despair can the souls habitation be safely build. 1 And he is far from alone in affirming such: realism. Even among Christians, hope has been largely relegated to the fanatics.

What has happened to hope? For me this is a personal quest. I still remember clearly the eager anticipation I had as a new Christian. I sprang from bed each morning for a year, wondering and hoping, Maybe today Jesus will return! But as I matured, I gradually left that expectancy behind. Does true Christian hope necessitate unclear thinking and closed eyes to present reality? Somehow I sense that we have repudiated only an imposter, whereas the real Christian hope the hope which is included with faith and love as Christianity's highest and abiding virtues needs only to be rediscovered.

What, then, is Christian hope? E. Hoffman defined it as always a confident, sure expectation of divine saving actions. 2 F. W. Beare expands this, adding that hope, as the sum of the content of Christian profession, is not just an eternal expectation, but the very spring of the life within. 3 Beare drew this conclusion from I Peter 3:15 which calls us to account for the hope that is within us. In this enquiry, we will focus on the salient concept of hope in I Peter, an epistle which lives by hope. 4

The first thing Peter5 tells us about our hope is that it is living. (1:3) Benedikt Schwank compares this living hope into which we are born anew of imperishable seed (1:23) as a reality equal to a mothers hope for a child which is carried in her womb. This is indeed more than a pious wish. Such living hope had no corollaries in the religious attitudes of Greek culture.6 Rather hope was generally regarded them, as it is now: simply mans projection of the future. 7 Such secular hopes as they did have only amounted to a faint optimism. Any such hope which puts value in this world could only be a dead hope, a delusion which would vanish like a puff of smoke. 8 The New Testament conception of

hope, however, has nothing to do with any this-worldly prospects. I Peter 1:13, in telling us to set our hope on the grace that is coming to us at the revelation of Christ Jesus, reveals that Christian hope is through and through eschatological, always bearing reference to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at the end of the age. 9

In saying that we are born anew to hope, Peter implies that hope is not simply an optimistic attitude, but is the mark and the result of new life. Hope as an attitude is inseparable from the content of hope; hope is, itself, an eschatological blessing, the the regenerated man is himself, in the very essence of his new being, a living hope.

Before we explore any further I Peters concept of hope, let us regress for a while to examine its Old Testament heritage. As Rudolf Bultmann writes, The New Testament concept of hope is essentially determined by the Old Testament. 10 Scholars agree that the outstanding element of hope in the Old Testament is its relation to God as the source, basis, author, sustaining power, embodiment, guarantor, goal and unseen yet certain object of hope.11 Hope is only stable and valid because it is grounded in the undeviating reliability of Gods character, 12 and on the basis of His past saving acts and because of His covenant promises. This element of hopes relation to God appears at least twice in I Peter. Peter holds up Sarah and the holy women because they hoped in God. (3:5) Because the verb here (?λ π ?ζ ο υ σ α ι) is a durative present participle, the real meaning is that hope in God was the continuing attitude of their lives.13 By the context we see that meant that their values, life-styles and fearlessness all issued from their hope in God. In 1:21, Peter says that our confidence, faith and hope are also in God, but with one important difference: through Christ. Because we have our hope through Christ our confidence should be all the greater.

The Old Testament concept of hope also includes the totality of human response to God in all its inseparable aspects of trust, joyful assurance, eager expectation of the future and patient endurance waiting on God.14 Old Testament waiting, however, is never passive and inactive. So in I Peter, hope, as disciplined waiting, is set in motion by the goal ahead waiting in this movement towards the goals. 15 Likewise, Peter tells us to gird up our mind to prepare for action and then to set our hope fully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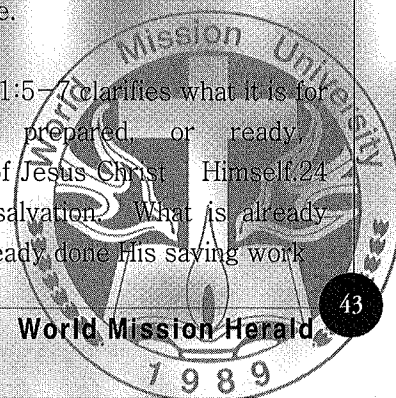
Such patient, disciplined and active hope in God revealed how the Jews perceived history as the arena of Gods saving actions towards His people. The idea of salvation-history, of Gods progressive redeeming activity, is even further elaborated in New Testament hope. We are now living in the end times for which Israel hoped. But Gods work is not yet fully consummated. We, the Church, live in the eschatological in-between times in which our salvation can be described as both already and not yet. Thus the Church affirms that Christ ha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Because of our baptism into participation in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this creed applies also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pects of our own salvation. I Peter 1:9 assures us that as the outcome of our faith we obtain the salvation of our souls. That salvation, according to C.F.C. Moule, is constituted by the mighty acts of God already manifested in the past, at work in the present, and justifying our hope in him as the consummation of our future. 16 The foundation of our hope is Christs historical resurrection; hope, then has its base in the past. The object or goal of hope is the final realization of our salvation at the parousia of Christ; so the focus of hope is the future. But we whose hope is already secured live in the midst of the present worlds reality; hope, then, will find its expression as it is lived out in the present.\

Rudolf Schbnackenburg writes that, as Christians, our hope is not vague and empty; it is based on Gods saving acts and the salvation already given us.17 Our hope is entirely different from secular hope, which can only be a wish trying to escape misgivings, because in Christs resurrection we have a clear guarantee.. in the facts on history.18 I Peter 1:21 declares that it is through the resurrection that we have been born anew to a living hope. Because in Christs resurrection God revealed His intentions for all His people, the resurrection is the historical symbol of the eschaton and our ultimate salvation, and is, therefore, the ground of our hope.19

I Peter 1:21 tells us that, on the ground of Christs atoning death and resurrection, both our faith and our hope are in God. In 1:9, Peter clarifies that as the outcome of our faith we obtain the salvation of our souls that salvation which is the object of Christian hope. What, then is the relation between faith and hope? Emil Brunner explains that the whole content of the Christian faith is orientated towards the telos, the end;20 thus the orientation of faith is the same as that of hope. Brunner and Jurgen Moltmann agree that hope rests on the foundation of faith in Gods past acts for our salvation, while hope in the future consummation of salvation nourishes, sustains and gives content to faith.21 Thus, the loss of hope within present Christianity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signifies the death of faith by starvation. As Moltmann states, it is through faith that man finds the path of true life, but it is only hope that keeps him on that path.22 Christian hope is not as dispensable as we have supposed!

The foundation of hope is in the past, but our hope is for the future. We cannot, therefore, have our focus fixed on history, but must, as the apostles, who of all people are most aware of the wonders of the past, look forward with our eyes on the future.23 And this is hope: faith looking at the future.

The locus of the object of hope is the future. I Peter 1:5-7 clarifies what it is for which we hope: the revelation of our (?τ ο ?μ η γ), prepared, or ready, salvation (1:5), which is the same a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Himself.24 The time of revelation will complete Gods work of salvation. What is already realized of salvation is only the first-fruits. God has already done His saving work

in the world and we live in the time of the eschaton, but we live by the hope of things not seen as yet,25 because Christ, though in His glory, has not yet appeared in his glory. The best is yet to come that is what Scripture affirms! God is always doing a new thing, up ahead of us, calling us forward.26 To what is He calling us forward? I Peter 1:4 answers, to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To Greek-speaking Jew, κ λ η ρ ο ν ο μ ?α ν would bring back images of Israels inheritance which was the promised land of Canaan. Our inheritance is also, in a sense property: a place to be, our true home. But it outshines Israels inheritance because this cannot be affected by any calamity, can never be wrenched away from us, is not vulnerable by earthly conditions at all.27 This hope surpasses and even can ignore circumstances.

Stephen Travis relayed a story of a minister who went to visit a very ill man. The mans wife intercepted him on his way upstairs to see her ill husband and whispered apprehensively, Say something hopeful to him, won't you? not about heaven and all that.28 Not too long ago I would have added a hearty amen! to her comment. But. . . if we cannot hope for the glorious things which God has prepared for us, what else can we hope for? I suspect that, caught in an age which has been taught by two devastating world wars to not believe in progress or the future, but rather to value only the present, we feel insecure and cheated if we have nothing in our immediate grasp. Hope is cheapened, and we ask of Christianity, Do you only offer us hope? Can we have nothing at hand now? E. G. Selwyn answers, We have indeed. Because the thing hoped for namely, Life Eternal, which is a certain quality of life is already partly present.29 Christianity is eschatological oriented the future: forward looking and forward moving, and therefore also revolutionizing and transforming the present.30

Our exploration of hope brings us, then, to the present to the locus where hope is lived out as a reality. The promises God has given us for the future give meaning to the present and exert and influence on the present through the hope they awaken.31

The primary way that eschatological hope affects or present lives is by changing our perspective broadening our field of vision so that we can see things in the perspective of Gods ultimate purpose and direct our lives according to the deepest, though hidden, reality. I Peter is called a book of hope because Peter bids his readers look at their troubles in the light of their glorious destiny to chart their lives, that is, on a large ma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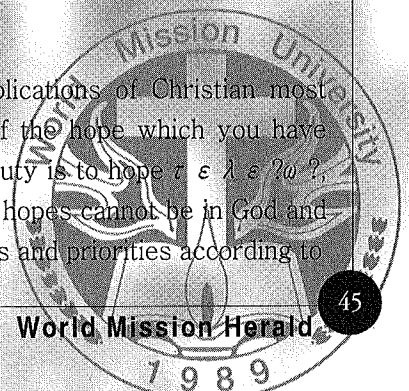
Let us look again at the inheritance spoken of in 1:4. The content and substance of our hope, the κ λ η ρ ο ν ο μ ?α ν , was used in the Septuagint to denote Canaan as the actual possession of Israel; it implied to them, and still does, not merely expectation but real possession. Further, it is kept in heaven. According to Selwyn, When the Jew wished to designate something as predestined, he spoke of it as already existing in heaven.33 Therefore, Selwyn can declare that The

Church in this Epistle lives by a hope which bears within itself the power and certainty of its realization.34 Brunner describes this as a function of hope: Hope means the presence of the future, or more precisely it is one of the ways in which what is merely future and potential is made vividly present and actual to us.35

Because our inheritance is not of this world, we are to see ourselves as exiles, temporarily sojourning in a foreign land. So Peter in 1:1 addresses this letter to all Christians as π α ρ ε π ι δ ?μ ο ι ?. We will always, if we remember our hope, have a higher allegiance in another sphere. 36 We can never be free from tension as long as we are in this world because we are in this world because we are not of it. This world, according to the new perspective hope provides us can only be a transient reality that is left behind."37

Does this new perspective have any relevant consequence? Yes! We should now live in such a manner that we show where we really belong where our true homeland is. In a very real sense we need to affirm with Brunner that the future for which we hope is the present in which we live.38 Our hope, then, should play the very positive, present role of presenting us with both the proper motives and the adequate resources to live a truly Christian life. Hopelessness, as we all know too well, leads only to a clinging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and our over-abundant sins of omission. St. Chrysostom could be speaking now: It is not so much sin that plunges is unto disaster, as rather despair.39 But the hope we have is guaranteed in us by Gods quarding (1:5) and by the seal of the Holy Spirit. We have no cause to despair if we do not forsake the object of our hope.

The Bible always issues us a challenge when it speaks of the object of our hope. I Peter is a perfect example of how biblical indicatives lead to biblical imperatives. The content of our hope the inheritance, the full revelation of our salvation, the parousia of Jesus Himself is conveyed in the indicative mood in 1:1-12. The following section, 1:13-2:3 is in the imperative mood and is the natural consequence and implication of what has proceeded: the very quality of I Peters indicatives drives us out with an irresistible imperative to become to the world what Christ has made us.40 2:11f also demonstrates the way in which Peter uses our hope as the moral stimulus on which he builds his ethical teaching. Peter is essentially saying, live as the aliens and exiles which you are; abstain from the passions of the flesh which are foreign to you. Let the Gentiles see by your conduct that you are a foreigner, so that they, too, might come to understand and glorify God. Be what you are!

Peters words in 1:13 perhaps show the moral implications of Christian most clearly. It begins with δ ι ?, therefore, because of the hope which you have (content), ?λ π ?σ α τ ε , fix your hope. The first duty is to hope τ ε λ ε ?ω ?, to the hilt, fully. This implies that the Christians hopes cannot be in God and in anything earthly. This is an imperative to set our goals and priorities according to

the new perspective hope provides. Schwank explains that the image of girding up carries possible connotations of preparing for an Exodus-like journey Therefore:

What is at issue here is the whole of mans volition; his deepest drives. These are to be mobilized for a lifes journey on which the wanderer is motivated by the hope of the return of the Lord.41

The picture of hope here is strenuous, concentrated and sober. We are to willfully adopt an attitude of hope because the content of hope is already ours.

I Peter 4:7 again emphasizes the sobering aspects of our hope tha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Peter makes this hope the ground for patience, courage, sobriety, love and reverent humility. It warns us against slackness, consoles us, and encourages us to endure to the end.42 It is a very different hope from that which would make us so heavenly-minded we could be of no earthly good.

Hope does not lead us to be of "earthly" good, but it does lead us to be a source of good in the earth. It gives a selfless, purposeful dimension to the Christians life because the content is "never ego-centric. Its heart is not the blessing of the individual but the universal kingly rule of God."43 We are not of this world, but the world is still Gods, and so the individual Christian can share in Gods purpose for all of humanity. If our attitude is formed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hope, our dealings with others will not be determined by their dealings with us. If we are focused on the content of our hope, the "blessing" we will obtain, we will be enabled to "have unity of spirit, sympathy, love of the brethren, a tender heart and a humble mind," and to not return evil for evil or reviling for reviling, but on the contrary to bless (3:8-9). As we focus on our unseen inheritance, we will be able to perceive the unseen potential in each person for whom Christ died, and will have discovered inexhaustible resources for the creative, inventive imagination of love.44 Rather than a hope of "no earthly good," true Christian hope is a well of goodness springing up within the earth and blessing it by providing the resources for Christianity rigorous love-et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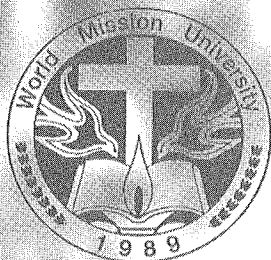
Hope, by giving its new perspective, also provides the resources of patience perseverance and joy which Christians need. As long as we are in the world, there will be myriad causes for fear and anxiety; there will be suffering and even persecution. I Peter tells us that in this, also, hope should prove to be an invaluable resource. How familiar we all are with the decapitating, stifling, paralyzing effects of fear and anxiety. In 5:10, Peter outlines the liberating perspective of Gods overriding purpose: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the God of all grace, who has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will himself restore, establish, and strengthen you. Some ancient authorities read strengthen and settle you, as though to draw our attention to our inheritance and remind us that only there should we expect to be able to settle. Because our suffering is just for a little while and

points us forward to the heavenly glory which is kept for us and for which we ourselves are guarded (1:5), we can persevere in the faith. Peter tells us that even if we do suffer, we will be blessed. Therefore we are to have no fear of anyone nor to be troubled (3:14). As Hoffman writes, Through confidence · hope becomes a patient, persevering waiting which can endure anxiety.45 Concerning 4:19-- Therefore let those who suffer. . . entrust their souls to a faithful creator -- Schwank writes that all anxieties and questions concerning suffering . . . are answered quite simply thereby: He is God the creator. He does not act senselessly.46 It is no wonder, then, that Peter exhorts us (5:7) to cast all our anxieties on Him; our hope is that He cares about us! Rather than abandoning the faith, we must abandon ourselves to God.

Hope, then, produces patience and perseverance even in the midst of worldly suffering, and it negates fear and anxiety. I Peter shows us that, above all this, hope is also the spring of joy. Christian joy is headless of present circumstances (1:6). Because of our hope, although we do not now see God, we rejoice with unutterable and exalted joy. (1:8)

Joy takes its place alongside faith and love as the prime corollaries 47 of hope in I Peter. Perhaps our joy is growing faint-hearted, our faith weak and our love cool because we have abandoned our Christian hope which is the spring of joy, the sustainer of faith, and both the motive and resource of love.

We have explored how hope expresses the essential nature of the Church in this in-between eschatological age. Hope could be described as the eye-glasses through which we perceive the world. But these glasses are not rosetinted, producing an unrealistic view; rather they sharpen our vision so that we see through present realities to the more lasting realities beyond. Any suffering we face will only strengthen our hope by weaning us from any false, this-worldly securities.

The death of secular hopes everywhere evident may be leaving a wide path for the return of a firmly grounded, realistic and powerful Christian hope. In leaving behind the happily-ever-after motif, as Travis calls it, and looking for more realistic endings to movies, plays and books, we have had to settle for the frustration of non-resolution endings. We dont want to return to calculated security, but God created us such that we need hope to live. Christianity offers just such a hope, a hope which we can only possess if we do not timidly calculate security but cast ourselves trustfully into the deep which is Gods character. To hug the shore is to cherish a disappointing hope; really to let myself go and swim is to have discovered the buoyancy of hope.48 Let us, then, grieve over our ungrounded timidity and false skepticism which keep us clinging to the shore and set our hope fully upon the grace that is coming to us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End Notes

1 Bertrand Russell, Mysticism and Logic, pp. 47ff., cited in J.E. Fison, The Christian Hope, NY: Longmans, Green and Co., 1954, p. 29

2 E. Hoffman, Hope, Expectatio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Ed. Co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1976, p. 243.

3 F. W. Beare, The First Epistle of Peter: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Notes, ed. 3, Oxford: Blackwell & Mott, 1970, p. 165.

4 Rudolf Schnackenburg, The Moral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NY: Seabury Press, 1965, p. 368.

5 For a debate of the authorship consult E.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Essays, London: MacMissan & Co. Ltd., 1949.

6 See Hofman, p. 239.

7 Rudolf Bultmann, "Elp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2, ed. Gerhard Kittel, Grand Rapids: Eerdman's 1964, p. 521

8 E.G. Selwyn, The Epistle of Christian Courage: Studies i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NY: Morehouse-Gorham Co., 1940, p. 82.

9 Allan Richardson, Hope,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NY: MacMillan, 1951, p. 109.

10 Beare, p. 82. See also Bultmann, pp. 532f, and Hoffman, p. 243.

11 Paul S. Minear, Hop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NY: Abingdon Press, 1962, pp. 641ff.

12 C.F.C. Moule, Meaning of Hope, Phil: Fortress Press, 1963, p. 18.

13 Beare, p. 156.

14 Compare Minear, p. 643 and Bultmann, p. 531.

15 Hoffman, pp. 243-4.

16 Moule, p. 11.

17 Schnackenburg, p. 282.

18 Moule, pp. 23-26.

19 Richardson, p. 109.

20 Emil Brunner, Eternal Hope, trans. Harold Knight, London: Lutterworth Press, 1964, p. 28.

21 Ibid. See also Moltmann, p. 20.

22 Moltmann, Ibid.

23 Fison, p. 141.

24 Schwank, p. 16.

25 Beare, p. 107.

26 Stephen Travis, The Jesus Hope, Downers Grove, IL: I.V.P., 1976, p. 93.

27 Moule, P. 44

28 Travis, p. 69.

29 Selwyn, The Epistle of Christian Courage, p. 86.

30 Moltmann, pp. 15f.

31 Ibid. p. 18.

32 Selwyn, The Epistle of Chrisrtian Courage, p. 52.

33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p. 124.

34 Ibid. P. 140.

35 Brunner, p. 7.

36 Beare, p. 75

37 Moltmann, p. 18.

38 Brunner, p. 30.

39 Chrysostom cited in Mostmann, p. 23.

40 Moule, p. 42.

41 Schwank, pp. 22f.

42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p. 216. Beare, p.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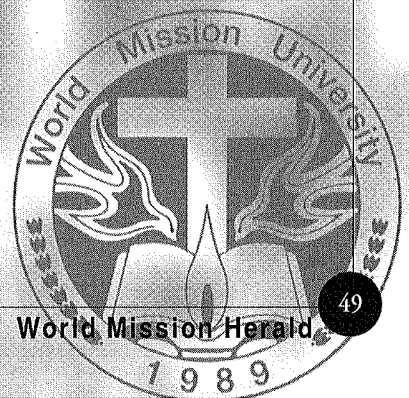
43 Hoffman,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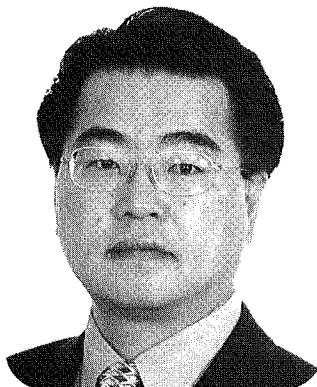
44 Moltmann, p. 34.

45 Hoffman, p. 240.

46 Schwank, p. 96

47 Minear, p. 643.

48 Moule, p. 19.

이근철 교수 [본교 성경영어 교수]

PHILOSOPHY OF LANGUAGE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o imagine a language means to imagine a form of life"-Wittgenstein

1. Introduction

In this short paper I will attempt to appropriate Ludwig Wittgenstein and J. L. Austin for reading Paul. J. L. Austin approached language as performance and occurrences of language as speech acts. Following Austin's lead, the letters of Paul can be read as doing things. I will try here to read very limited portions of 1 Corinthians in this fashion.

Anthony C. Thiselton has already taken such a path in his recent commentary on 1 Corinthians.1 Thiselton characterizes Paul's speech acts in the letter as transformative in that they are loaded with his apostolic authority, so that they carry sufficient force to transform worldviews and lifestyles.2

Such a discussion leads us to Ludwig Wittgenstein. He established language and understanding firmly within the sphere of social practice and way of life. To quote the later Wittgenstein, "to imagine a language means to imagine a form of life."3 With respect to 1 Corinthians, we want to assert that to read the text is to learn a Christian form of life.

Indeed, the Corinthian problem is one of misunderstanding the life of fellowship with God's Son (1 Cor 1:9). The misunderstanding is manifested by a number of improper social and religious practices. For instance, Corinthian Christians had been zealously promoting Paul over Apollos and vice versa (1 Cor 3:3-4; 4:6).

So I will here try to read 1 Corinthians with a view to getting at a Christian way of life, the life of fellowship with God's Son, and those basic Christian practices that constitute it. I find that the practice of sibling solidarity figures most prominently in the way of life embedded in the text of 1 Corinthians. One conspicuous piece of evidence is the fact that in the text Paul directly addresses Corinthian men and women as "brothers and sisters" twenty times.

One fundamental feature of a Wittgensteinian practice of reading Paul is that the readers accept Paul and his texts blindly or as a matter of course, that is, without requiring elaborate conditions. Obeying Paul's own exhortation to "be imitators of me"(1 Cor 4:16; 11:1) can be a sufficient condition. That is to say, the readers allow how they learn (following Paul) to determine what they learn (a Christian way of life). Here I am following Meredith William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ve role

of learning in Wittgenstein's later philosophy.4

2. Why Wittgenstein and Austin?

Nancey Murphy regards Wittgenstein's and Austin's approach to language as truly revolutionary. 5In the modern period the prevailing presupposition concerning the mind and language has been that they reflect or represent reality. The preoccupation with the reflective or representative aspect of the mind and language has been pervasive. Wittgenstein (1889–1951) and Austin (1911–1960) challenged the stubborn old tradition by emphasizing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They were concerned with giving accounts of language in action. Here I follow more or less Nancey Murphy's presentations of their works.6

Wittgenstein's strategy 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is to account for what is going on in simple linguistic situations or "language games." He devises, for instance, a language game for a construction worker and his helper.7 They are allowed only four words: "block," "pillar," "slab," and "beam." The game has a simple rule: when the worker utters "Slab, "then his helper brings a slab; and so on. In this primitive game, the language does represent reality; the words do pick out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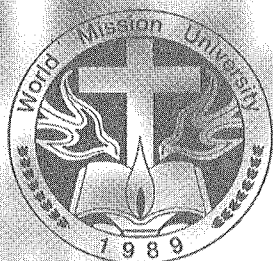
This game can be expanded by adding the numbers.8 The modified rule is that when the worker utters "Five slabs, "then the helper brings five slabs. One aim of this expanded version is to show that the numbers behave differently from the other words; the numbers do not pick out. "Think of the tools in a tool–box,"9 prompts Wittgenstein,

> there is a hammer, pliers, a saw, a screw–driver, a rule, a glue–pot, glue, nails and screws.The functions of words are as diverse as the functions of these objects. (And in both cases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above language games, all the words happen in commands.10 For example, "Slab"occurs as a command, assuming a directive function. Here we are dealing with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The performative uses of language are governed by rules. Rules determine uses, and render them intelligible. The directive use of the word "slab" makes sense because of the rule governing it.

Language happens in everyday activity; as Murphy puts it, "language is interwoven with life. "Language assumes its diverse performative functions as part of everyday practices, of everyday ways or patterns or "forms of life." The purpose of focusing on primitive linguistic situations (language–games) is, in Wittgenstein's own words, "to bring into prominence the fact that the speaking of language is part of an activity, or of a form of life."11

Austin expounds the performative aspect of language in his lectures How to Do Things with Words,12 where he assimilates language to action. To put it crudely, when language happens, it happens as an action, as a "speech act." Take, for example, Paul's words "Be imitators of me"13(1 Cor 4:16). These words happen as a command, which is a particular kind of "speech act."

At the very outset of How to Do Things with Words, Austin remarks that

traditionally philosophers have assum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language is to do one thing, namely, to state facts.14 In Austin's view, the traditional view of language misses the variety of things ordinary language can do. There is no question that words often state, describe, or report facts. But it is equally evident that words happen or engage in other, perhaps more exciting, actions. Such as: asking, thanking, encouraging, promising, rebuking, complaining, and so on.

Austin calls such linguistic actions "speech acts," more precisely, "illocutionary acts."15 One common characteristic of illocutionary acts is that they depend on the general practice of counting one thing as another. For example, taking the words "Be imitators of me" as a command is an instance of counting one thing (the words) as another (a command).

The common practice of counting one thing as another involves necessarily conventions16 and rules,17 which are part of institutions.18 To illustrate, Paul's words "Be imitators of me" can be taken as a command since they immediately follow the standard Hellenistic formula of exhortation or indirect command "I appeal to you."19

Moreover, the conventional formula of exhortation implies that the addresser has some authority over the addressee. Indeed, Paul invokes his paternal authority just prior to making his exhortation: "Indeed,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I appeal to you, then, be imitators of me"(1 Cor 4:15b–16). The father–children relationship between Paul and his converts constitutes an institutional context in which Paul's exhortation to imitation has a plausible force.

3. A Performative Reading of Paul

The preceding performative approaches to languag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ading texts such as 1 Corinthians. We recognize that a text consists of speech acts,20 which gain their performative force from relevant institutional features. Also, a text is interwoven with a form of life.

With respect to 1 Corinthians, we recognize, first of all, that Paul's words perform speech acts. To illustrate, 1 Cor 1:10–15 exhibits at least six kinds of speech acts. There are within the six verses: an exhortation to unity using the formula "I appeal to you" the direct addresses "brothers and sisters" and "my brothers and sisters" a disclosure of a report of quarrels that begins with "For it has been reported to me" four slogans, such as "I belong to Paul" a series of rhetorical questions, including "Was Paul crucified for you?" and a thanksgiving following "I thank God".

Second, the whole text of 1 Corinthians constitutes a single speech act. Through a systematic rhetorical analysis, Margaret M. Mitchell has shown that throughout the text Paul is making a sustained argument for ecclesial unity.21 Paul's specific arguments concerning specific Corinthian problems, such as the presence of an immoral individual (1 Cor 5), are used to support Paul's overall argument.

It is plausible to characterize the overall argument as one pursuing sibling solidarity. 22 That is, throughout the text Paul demonstrates how Christian men and womenin other words, "brothers and sisters"23 in Christought to work out sibling solidarity in complicated situations that cause confusions and even conflicts. In

doing so, Paul presents himself as the one person embodying the practice he is prescribing.

We can grasp Paul's general illocutionary intent (promoting sibling solidarity) and method (presenting himself as the model)24 through the metaphors of farming and building contained in 1 Cor 3:5−15. We notice that by means of these metaphors Paul is performing specific illocutionary acts of "putting the subject before our eyes."25 According to Richard Moran, such an action ("putting before the eyes") is intended to encourage the audience to actually undertake a "process of discovery."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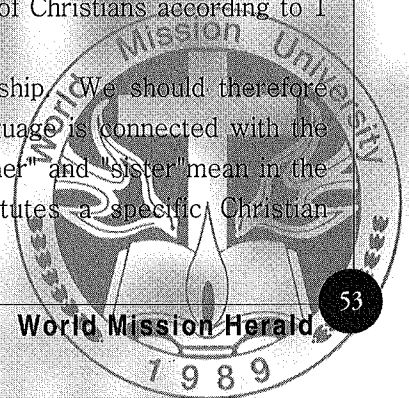
The farming metaphor underscores the fact that Paul and Apollos, a fellow missionary (3:5) and "brother" (1 Cor 16:12), worked hard and worked together, sharing "a common purpose" (literally, being "one"; 3:8). Then, with the building metaphor the attention shifts to the fact that now Paul and his Corinthian converts, who are also his own special siblings (see 1 Cor 1:11; 11:33; 15:58),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family at Corinth (3:10−11).

Third, since the performative force of illocutionary acts resides in the relevant extralinguistic features, we need to discern thos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acts that directly bear upon the text of 1 Corinthians. We concentrate at this point on the ones that immediately bear upon Paul's general argument for sibling solidarity.

The force of this argument stems both from Paul's calling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1 Cor 1:1) and from the calling of the Corinthians to be equal participants in "the fellowship of his [God's] Son" (1:9). The chief task of Paul as an apostle is "to proclaim the gospel" (1:17). As a direct consequence of Paul's proclamation, the Corinthians were brought into the fellowship of the Son of God (2:1−5). Thus, being the apostle who "in Christ Jesus became your [the Corinthians'] father through the gospel"(4:15), Paul commands transformative power over the Corinthians.

Moreover, the calling of the Corinthians as equal participants or shareholders in the life of the Son27requires, most of all, that they honor their common identity in all circumstances. Clearly this constitutes their chief concern. Such institutional and social reality empowers Paul's (speech act of) general exhortation directed to the Corinthians in 1 Cor 1:10: "Now I appeal to you, brothers and sisters,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be in agreement and . . . that you be united in the same mind and the same purpose."

Fourth, on the basis of the Wittgensteinian point that to understand a language means to understand a form of life, we can approach the text and language of 1 Corinthians as a way into a Christian pattern of life. We have just referred to the participation in the fellowship of the Son as the calling of Christians according to 1 Corinthians.

Also, we have already met the language of siblingship. We should therefore consider some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such language is connected with the mission of Christians. The question is: What do "brother" and "sister" mean in the context of the Christian community? What constitutes a specific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words?

Beginning with 1 Corinthians 5, we find Paul's instruction to Christians to shun "anyone who bears the name of brother or sister" and simultaneously engages in certain immoral behavior (5:11). The instruction is limited to "those who are inside" the Christian community and does not affect "those outside" (5:12). The rule of disengagement concerns or has something to do with aspects of the community.

Evidently, it is grounded on the concrete concern that the presence of an immoral brother or sister would substantially compromise the very nature or mission of the Christian community; just as "a little yeast leavens the whole batch of dough"(5:6). From this, we may reason that all the behaviors of a Christian brother or sister have communal bearings. The moral character of a brother or sister has a corporate face. This is part of what it means to accept the name of brother or sister.

Turning to 1 Corinthians 6, we have another important passage that enlightens the meaning of Christian siblingship. It highlights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siblings ought to bear patiently with one another, especially controlling any inclination to avenge.

One member of the Corinthian church, having "a grievance against another," goes to court to plead his case (6:1). Recapturing the issue, Paul remarks that "a believer goes to court against a believer" (literally "a brother goes to court with a brother"), seeking justice from "unbelievers" (6:6). The first part of Paul's argument against such behavior stresses that any dispute between Christian siblings ought to be settled within the Christian family.

In the second part, Paul makes a radical claim. He asserts that the very presence of ongoing disputes among siblings is "already a defeat" for the Christian family (6:7). Paul is holding the position that it is appropriate and desirable for a sibling to just accept whatever injustice done by another. He makes this point by means of two rhetorical questions. "Why not rather be wronged? Why not rather be defrauded?" (6:7).

Joseph S. Hellerman explains that what underlies Paul's reasoning is the ancient Mediterranean tradition of generalized reciprocity.28 An integral feature of generalized reciprocity is "the willingness to refrain from avenging a wrong at the hands of a brother."29 What makes Paul's reasoning radical is not that it relies on a common cultural practice of his day, but that it accepts the siblingship of Christians as genuine. Paul's words "Why not rather be wronged? Why not rather be defrauded?" belong to the language of genuine brothers and sisters and, therefore, to the Christian family.

4. Some Concluding Remarks

Although analyzing a biblical text in terms of literary and rhetorical conventions is necessary, it is more essential and more exciting to perpetually shift the focus to what the text is actually doing. Although referring to historical reality is quite necessary, it is more beneficial to sharply define thos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that actually empower the text or what it is doing. Also, it is always helpful to remember that the language of a biblical text flows out of and into a particular stream of everyday life.

5. Between Obedience and Criticism

This is a good place to consider Elisabeth Schssler Fiorenza's rhetorical approach to Paul's texts. One of her chief concerns is that readers of Paul should not simply accept Paul's persuasion or rhetoric. They should rather ask themselves what it means to be persuaded by him.30 What she is encouraging us to do is to consider shifting our focus, our attitude and our position from blind obedience to critical participation.

This is indeed a Wittgensteinian problem. It is Wittgenstein's emphasis that we cannot achieve an understanding of language without simultaneously understanding forms of life. In this manner, understanding Paul's text means to be already wading through a particular stream of life. It seems that such an active interaction denies us a critical consciousness to assess what is really happening to us.

There certainly is a tension between the necessity of trusting and following Paul and the demand for knowing and assessing what is going on. What follows is an attempt to enlighten this issue.

Here I follow more or less Meredith Williams' interpretation of Wittgenstein's notion of blind obedience.31 "When I obey a rule," Wittgenstein says, "I do not choose. I obey the rule blindly."32 This point can be considered in different contexts. Everyday life consists of a stream of interactive,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activities that are normal and intelligible. Ordinarily, the normativity or intelligibility of everyday activities is not questioned; it is not challenged at all. In this sense, everyday activities are performed blindly.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critical examination of life is unnecessary. Sometimes, our behaviors and practices, even worldviews and lifestyles, are called into question. But in questioning, we have to know, first, what we are looking for and, then, when to stop.

> "How am I able to obey a rule?" if this is not a question about causes, then it is about the justification for my following the rule in the way I do.
> If I have exhausted the justifications I have reached bedrock, and my spade is turned. Then I am inclined to say: "This is simply what I do."
> (Remember that we sometimes demand definitions for the sake not of their content, but of their form. Our requirement is an architectural one; the definition a kind of ornamental coping that supports nothing.) 33

Here the practice of rule-obeying may be replaced with any other social behavior or communal practice, say, reading Paul's letters. We notice in this quotation a practical definition of blind obedience: "This is simply what I do."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actice of questioning is normal and intelligible. But it becomes superficial when "This is simply what I do" can never or hardly count as a good reason.

There is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blind obedience. Learning or training is one social practice that is absolutely necessary in all aspects of public life. It is integral to other social practices. Concentrating on the process of learning, we can agree that learning is blind. "As novices," Meredith Williams explains, "we act blindly

in the sense that we follow the example and instruction of the master as a matter of course."34

Such a sense of blind obedience is apparent in Paul's understanding of Christian discipleship. In 1 Cor 11:1, for example, he exhorts his Corinthian converts to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Just as Christ is the absolute model to emulate for Paul, Paul himself is the authoritative model for his churches. Consider these words of Paul in 1 Cor 4:17: "For this reason I sent you Timothy, who is my beloved and faithful child in the Lord, to remind you of my ways in Christ Jesus, as I teach them everywhere in every church." We notice that Timothy is presented equally as a model student and a knowledgeable teacher. Discipleship through imitation presupposes an unreserved acceptance and faithful copying of the teacher-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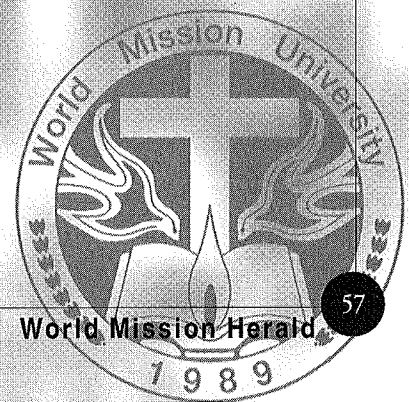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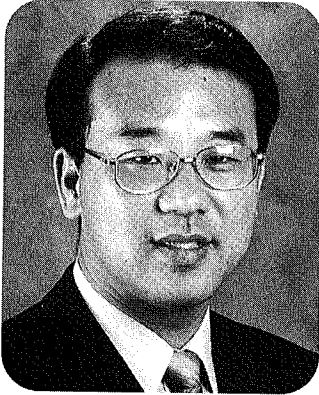
For Wittgenstein, the process of learning is pivotal. For the process of learning engenders normativity,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community. With respect to understanding, we can say that how we learn shapes or conditions what we understand. 35 In understanding, for Wittgenstein, the role of learning is determinative and constitutive. As Williams puts it, learning plays a constitutive role in the sense that how we learn a thing is constitutive of our understanding of the thing in question.36

This means for us that reading and following Paul is a part of understanding the whole shape of a Christian way of life. As we rehearse, blindly, the Christian practices embedded in Paul's words and deeds, the practices become intelligible to us and we come to grasp what Christian living is like. Things become obvious. Practices assume their normativity, governing our actions.

Notes

1.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2.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1-52.*
3.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rded.; trans. G. E. M Anscombe; New York: MacMillan, 1958), 19; cf. 241.*
4. *Meredith Williams, Wittgenstein, Mind and Meaning (London: Routledge, 1999), 206-214.*
5. *Nancey Murphy,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111.*
6. *Murphy,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112-117.*
7.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
8.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1 and 8; The Brown Book (2nd ed.; New York: Harper, 1960), 2.*
9.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11.*
10.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18.*
11.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3.*
12.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ed. J. O. Urmson and Marina Sbi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13.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4.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3.*

14.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3.
15.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98-99.
16.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14 and 107.
17. John R. Searle,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34-35.
18. John R. Searle, Speech Acts, 51-52.
19. Raymond F. Collins, First Corinthian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9), 68.
20. Cf. Murphy, Beyond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122.
21. Margaret M. Mitchell, Paul and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1-2.
22. See, Joseph H. Hellerman, The Ancient Church as Famil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92-108; S. Scott Bartchy, "Undermining Ancient Patriarchy," BTB 29 (1999): 68-78
23. Paul's usual form of direct address "brothers and sisters"occurs in the following: 1:10, 11, 26; 2:1; 3:1; 4:6; 7:24, 29; 10:1; 11:33; 12:1; 14:6, 20, 26, 39; 15:1, 31, 50, 58; 16:15.
24. Mitchell, Paul and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49-50.
25. This is Aristotle's own description of what metaphor does. The Art of Rhetoric (trans. H. C. Lawson-Tancred; London: Penguin Books, 1991), 1410b/3.10.6.
26. Richard Moran, "Artifice and Persuasion: The Work of Metaphor in the Rhetoric," in Essays on Aristotle's Rhetoric (ed. Amlie Oksenberg Ror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395.
27.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04.
28. Hellerman, The Ancient Church as Family, 105.
29. Hellerman, The Ancient Church as Family, 49.
30. Schssler Fiorenza, Rhetoric and Ethic, 28. In her own words: "What does the language of a biblical text 'do' to a reader who submits to its world of vision?"
31. Williams, Wittgenstein, Mind and Meaning, 167-169, 177-183, 197-215.
32.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19.
33.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17.
34. Williams, Wittgenstein, Mind and Meaning, 183.
35. Williams, Wittgenstein, Mind and Meaning, 179.
36. Williams, Wittgenstein, Mind and Meaning, 190.

손진락 교수 (본교 선교학 교수)

THE FACTORS OF COMMUNICATIVE LANGUAGE LEARNING

The ability to be aware of cultural differences and possession of intergrative motivation for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will help missionaries immensely

Learning the language of a people is one of the key area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or an effective cross-cultural ministry. Since language is the vehicle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it becomes intensely important for missionaries to know the language.

I have included in this papercommunicative approaches to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and effecti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rom this logical position I want to insist that a missionary who is successful in learning the languages of the people will be able to become effective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se drawn to communicative approaches to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had grown dissatisfied with the audiolingual and grammar-translation methods of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These traditional approaches tend to associate language learning with linguistic competence. That is, the learning of pronunciation, vocabulary, and grammar of a language. A learner in this method did not know how to communicate using appropriate social language, gestures, or expressions; in brief, he/she was at a loss to communicate in the culture of the language studied.

The communicative approaches to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on the other hand, emphasize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e focus is on how language is used in terms of situational appropriateness in its community. A helper in missionary language teaching should help learners to communicate in a way which will be accepted by the native speakers.

I tend in this paper to look at language use in terms only of the conveying of information. A more important factor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situation in which communication is taking place. Language carriesnot only a functional meaning, but also a social meaning in its community

Developing an Integrative Motivation

The need or desire to achieve a certain goal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As a matter of fact, motivation in language learning can come from intrinsic as well as extrinsic sources outside of the missionary language learner. In the former case, motivation comes from the learner's hopes and expectations, from his desire to be someone or to do something.

One's pattern of motivation is a habitual assumption. In speaking of various patterns of motivation, there are at least two patterns pertaining to second language learning. These can be applied to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Gardner and Lambert classify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 terms of an integrative or instrumental pattern (1972:2). They explain that the motive is "instrumental" if the purpose of language learning reflects the more utilitarian value of linguistic achievement, such as getting aheadin one's occupation, and is "integrative" if the learner is oriented to learn more about the other cultural community as if he desires to become a potential member of that group. The former is bound to a short-range pragmatic goal, the latter, to long-range and intrinsic goal. Gardner and Lambert also report that "students with an integrative orientation" are more successful in language learning in contrast with those instrumentally oriented (19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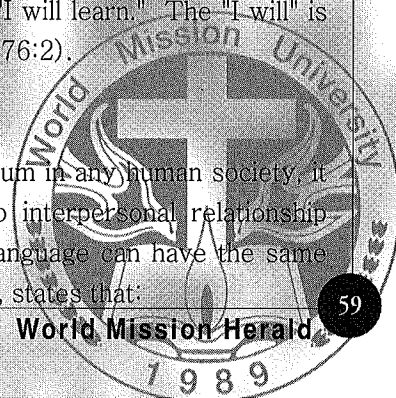
Gardner and Lambert also explain in their important findings from their studies on French students that: (1) aptitude and intelligence were independent of attitude and motivation, (2) achievement in the second language was dependent upon both aptitude and intelligence and sympathetic orientation toward the other group, (3) integrative orientation provided strong motivation to learn French, (4) integrative motivation was the converse of an authoritarian ideological syndrome and ethnocentric attitude which negatively affected achievement, and (5) students' orientation toward the linguistic group developed within the family; example, students whose parents were sympathetic to the French community were more integratively oriented (1972:5-14).

Consequently, the missionary language learner must develop an integrative motivation by being willing to identify him-or herself with members of another etholinguistic group in order to succeed in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The motive for the missionary is no less than a personal commission from God to communicate a life-saving message to spiritually dying people. The love of God, a love for God, and a love for lost people will drive the missionary to learn the emotional heart language of the people.

Good motivations, however, must be distinguished from enthusiasm. Good motivation toward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has to do with the will. It may sometimes be confused with enthusiasm. Thomas and Elizabeth Brewster explain it this way:

Motivation to learn a language is an act of the will. Some language learners make the mistake of equating motivation with enthusiasm . . . but enthusiasm is an emotion. It ebbs and flows in relation to how you feel. . . motivation is a determination which results in a decision of the will. . . "I will learn." The "I will" is far more important in language learning than the "IQ" (1976:2).

Learning a Language within the Community

Language is "the most important communication medium in any human society, it is the area where the largest number of the cues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e"(Smalley 1978:698). People who share the same language can have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round them. James Douglas, states that:

The Christian faith flows well within each piece of the mosaic, but tends to stop at linguistic and ethnic barriers. Most congregations are shut up to one language, one ethnic unit and frequently to one social of economic class (Douglas 1975:100).

Understanding people's language, then, is the first step for deep-level communication because it opens doors into the way people perceive and evaluate their environment.

Language is a vital ingredient of culture. Language learning in isolation from the culture is, therefore, inadequate. Nida writes:

Linguistic training is of great help, but it is no substitute forcultural submersion. One Indian who had been trying very hard to teach a missionary the indigenous language explained with great distress, "I do not know what to do. I have been teaching this missionary for a long time, but she just sits and studies, and seems to learn nothing. Why, a Spanish-speaking girl married one of the Indians in our village, and now in one year's time she talks very well. Why is the missionary ignorant?"The problem is not one of ignorance, but of cultural isolation, of learning a great deal about the language but not learning the language, of studying but not speaking (1954:223).

It takes time to be with people in their society. Language schools often spend time on grammar rules, memorizing vocabulary lists, and patterns of practice. This strategy is not effective for language learning. Lason has noted that:

No school can do the complete job. The principal value of a school is in teaching a person to learn how to learn: self education. Unfortunately, schools often overinsulate students and make them unnecessarily dependent upon teachers (1977:78-79).

For example, Korean students study English for six to ten years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middle school to college. In spite of this, Koreans tend to say, "I've studied English for years but I can't speak very well, or a little, or even not at all."No matter how many years the Korean students study English in the classroom, they still find themselves eventually knowing nothing at all concerning effective communicationin English. Even if they gain some basic competence of communication with a native speaker, they still face the problem of appropriate use of the English language.

Consequently, the language learner must learn a language in the community. In fact, little children never learn words or sentences apart from the people with whom they interact daily such as their family and peers. It is always in context and always real. This applies to a new missionary as he or she goes into a new environment. Good language learners view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as a social rather than an academic activity. Brewster also emphasizes that "the language is learned, not in a classroom, but in a better laboratory - among the people" (1982:4).

Thomas and Elizabeth Brewster developed a language acquisition technique known as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Lingua House 1976). In her

language learning class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Brewster assigns learners the task of finding an ethnic community nearby inwhich to make friends and locate a language helper. As friendships are established the learner begins immediately to learn the new language day by day. There are four parts to the daily learning cycle:

1. Prepare what you need for the day.
2. Practice what you prepare.
3. Communicate what you know
4. Evaluate your needs and your progress, so you will know what to prepare for tomorrow (1976:10).

Classroom sessions are utilized to familiarize the learners with the learning cycle, basic phonetics, and language learning helps. But, the real "how"of language learning takes place in the community as the learner makes daily contact with his/her language helper and then practices the language with other members of the host community. There is no isolation from people in this approach; rather, there is intimate and daily contact as well as involvement with people who know and speak the language.

Learning Culture in a Community

As partners, language and culture work together in the establishment and expression of human society. Condon and Yousef maintain that language and culture cannot be dichotomized. They state:

Language participates in our perception and in our expression of perception; we cannot divorce language from perception or thought. It predisposes us to make certain distinctions and minimize others (1981:80).

There has been much theoretical discussion in recent years on language learning. One viewpoint says that language directs the perception of objects, ideas, events, of other people and hence maintains the culture, while the other viewpoint says that culture directs language (Condon and Yousef 1981:178). Whichever viewpoint one takes,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at language and culture are inseparable. On the one hand, Hiebert defines culture as "the more or less integrated systems of ideas, feelings and values and their associated patterns of behavior and products shared by a group of people who organize and regulate what they think, feel, and do"(1988:30). Among the system of patterns are those of language. On the other hand, Larson and Smalley view language as "both a reflection of world view and one of its shapers" (1972:291). After all, the main purpose of learning a language is communication with people across cultures (Brewster and Brewster 1976:125). Figure 8 may help to clarify these relationships between thought (the whole box), culture, language and speech.

When individuals first enter unfamiliar societies, especially within cultures different from their own, they have very little common ground on which they can re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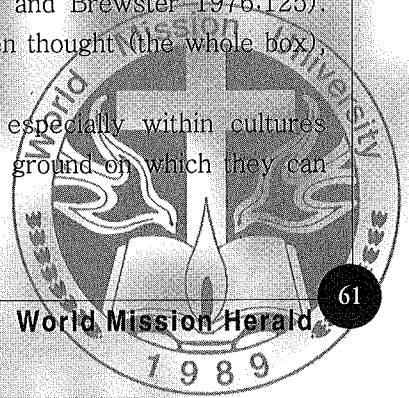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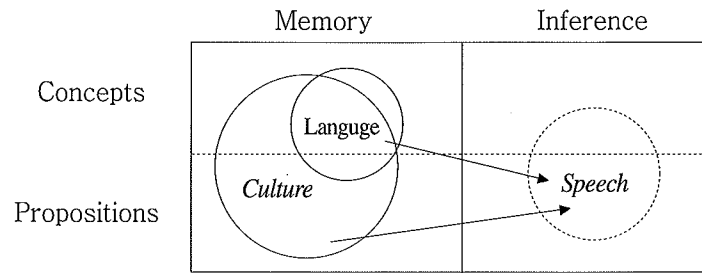



FIGURE 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OUGHT, CULTURE, LANGUAGE, AND SPEECH
(Hudson 1980:84)

to local people. According to Ward Goodenough, missionaries need to understand the resources, customs, institutions, beliefs and needs that are present in a local group (Goodenough 1963:45). To that list Schreiter adds cultural ideals and values, sources of identity, the ills that consistently befall a society, their modes of behavior and codes of conduct, and their sources of power (Schreiter 1985:40). Understanding these aspects of culture enables missionaries to engage in activities and behavior which are mutually rewarding and appropriate and give them insights into the ways in which missionaries can adapt so that they can fit into the new cultural context.

The concept of culture is very important in cross-cultural ministry. Louis Luzbetak asserts that it is "the anthropologist's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missionary endeavor. . . . Failure to grasp the nature of culture would be a failure to grasp much of the nature of missionary work itself" (1970:59).

In addition to having a desire to learn about a culture, Schreiter gives that "incarnational" reason for learning about cultures. It is "one of bonding Christ in the situatio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bringing Christ into the situation"(Schreiter 1985:39).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local cultures in thePhilippines, for example, is for the cross-cultural missionaries to live for a period of about one-month with a Filipino family. The attempt on the missionary's part to become an insider instead of an outsider as soon as possible is a big step toward successful cultural learning.

Learning a Language as a Child

Every child learns to speak his own language very well without the help of books or teachers. He, as a child, continues to explore his limited environment, moves to the stage where he associates names with important people, and with objects, and with the observable physical activity which characterizes them. In a child's language learning process we can see some additional basic principles and learn from them.

Being an Active Learner

Children learn the language by themselves without waiting for someone to teach them. They try to learn because they live with people, including their parents and friends who speak the language, and because they want to communicate with them.

Children learn tospeak by speaking. Typically, Korean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in the Philippines tend to study grammar, memorize the vocabularies, practice pronunciation in the class and try to master complicated structures instead of social ones when they approach language learning. We must learn from the children as active learners to make a great effort to continue to make progress. Dwight Gradin states in his understanding of the effective language learning attitude as a child's activity that:

Language learning belongs in the child's domain. Language is something we all learned as kids without a lot of thought or stress. It just seemed to happen. Adults, on the other hand, struggle with learning another language. Granted, for some it comes fairly easy, but for most of us who go abroad, it's one of the hardest things we'll ever do. . . . Little children who go abroad are still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ir "mother system, they are able to accommodate another one. Language is a human (and therefore developmental) activity. It doesn't fit with math, science, and history. It fits with sitting, crawling, standing, walking, and running (1990:72).

Doing a Lot of Listening

Children listen a great deal in order to learn the language. We may have noticed that a baby looks closely at the mouth of the person who is speaking to her, and sometimes even wants to touch one's mouth. She knows that she must listen a lot and pay attention to how the sounds are formed. If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also listen a great deal and notice how sounds are formed, they will learn to speak the language well.

Learning a Little and Using it a 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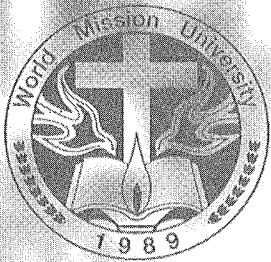
Children entertain themselves with the language. They speak and speak until even their mothers get tired of hearing the same word repeated so many times. They learn a little and immediately use it a great deal.

In the same way,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must decide to use what they know even though it may be only a few words. They should learn a little and use it a lot, speaking with people round about. Every time missionaries learn something new, they need to use it in conversation with many people. This way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will learn to speak more easily and correctly.

Learning from Mistakes

Mistak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and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should accept this. Mistakes reveal that the missionary language learner is not merely parroting but is actively dealing with the language. Thus, mistakes are useful indicators of learning progress.

Not all the language learner's mistakes stem from the same roots. The mistakes of Korean missionary language learner arise because of linguistic interference from the Korean language or even the new language itself. Other mistakes will arise from cultural interference.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must understand that mistakes are their friends,

wherever they arise from. Some language learners are so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that they don't say anything unless they are sure they can say it correctly. This leads to a vicious circle. They make errors because they have not practiced enough, yet at the same time they deprive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 to practice for fear of making mistakes. We must realize that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is a gradual process during which the learner moves through successive approximations of skill. This process requires much practice, which includes making errors and being corrected.

Learning by Bonding with People

One of the best aids to good language learning for the missionary is to become intimately identified with the indigenous people whom he or she desires to win to Christ. Such rapport is vital to the process of language learning. Donald Larson has noted this need on the part of missionaries:

Missionaries do not always jo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reside and to which they seek to minister. Too often, the missionary lives at the margin of the community's center of activity, reducing his effectiveness considerably. Many such failures arise because the missionary is simply not ready to identify closely with his host community (1977:73).

It is true that missionaries often live in missionary compounds with other missionary families. They then make forays out from the compound into the indigenous community, but they live apart and effectively isolate themselves from the people. This procedure is not conducive to good language learning or to good communication of the gospel. There must be the willingness to identify with the people by living among them.

In this connection the Brewsters suggest the term " bonding" to refer to this kind of intimate and close relationships. It is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 and the mothe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hild'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 Brewsters have noted an analogy between this bonding process and the missionaries' identification in a new culture for language learning.

There are some important parallels between the infant's entrance into his new culture and an adult's entrance into a new foreign culture. In this situation the adult's senses, too, are bombarded by a multitude of new sensations, sights, and smells, – but he, too, is able to respond to these new experiences and even enjoy them. Just as the participants in the birth experience, his adrenaline is up and his excitement level is at a peak. Upon arrival, he is in a state of unique readiness, both physiologically and emotionally to belong to his new environment. But then, just as the infant is snatched away by the hospital establishment and put into the isolation of the nursery, so the newly–arrived missionary is typically snatched away by the expatriate missionary contingency and, thus, isolated from his new target community. Bonding best occurs when the participants are uniquely ready for the experience. The way the new missionary spends his first couple of weeks in his new country is of critical importance, if he is to establish a sense of belonging with the local people (1982:4).

The benefits of this bonding process for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are obvious. The new missionary will be hearing and using the new language immediately after his arrival in the new culture when he is best prepared to enter into the host community as a "belonger."These early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will be most meaningful as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continues. The host people will do all in their power to assist the new missionary with cultural adjustments, which will be helpful in learning the new language. They will be most supportive at this crucial stage of bonding. Therefore prospects for continued language learning would be excellent. In this regard the Brewsters comment:

Normal language acquisition is essentiallya social experience, not an academic activity. As a result, gaining proficiency in the language is normal for the person who is deeply contexted and has his sense of belonging in the new society. But language study will often be a burden and frustration for the one who is bonded to other foreign missionaries. (1982:11).

Understanding Form and Meaning

The combination of meaning and expression of meaning has been called the form and meaning composite. For an idea to be communicated within a society it must be encoded in some kind of sensory form: without forms or "symbols," ideas are abstract and cannot be disseminated (Hiebert 1983:115). The form of expression communicates the specific meaning intended. In the process of change, the form may remain constant while the meaning changes or is lost completely as in the case of survivals. In certain cases, the meaning will remain constant and the form will change and become more varied, producing a member of expressions communicating the same meaning. Kraft illustrates this concept in these diagrams:

Symbol (Surface level) — Interpretation (Deep level)

Form → Meaning 1
Form → Meaning 2
Form → Meanin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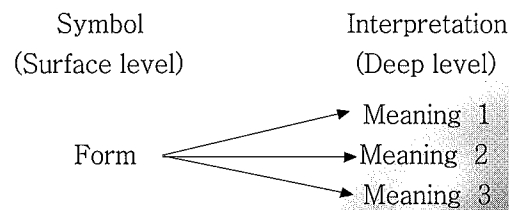



FIGURE 1
ONE FORM MAY BE ASSIGNED MULTIPLE MEANINGS
(Kraft 1991:86)

Symbol (Surface level) — Interpretation (Deep level)

Form 1 → Meaning
Form 2 → Meaning
Form 3 →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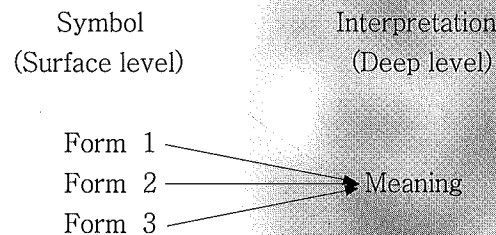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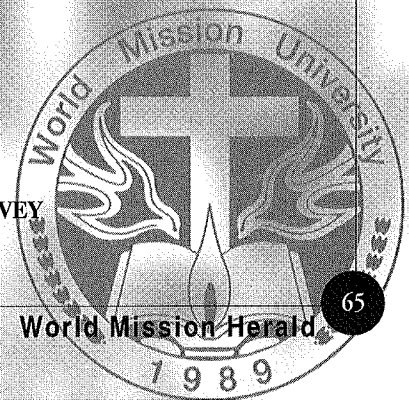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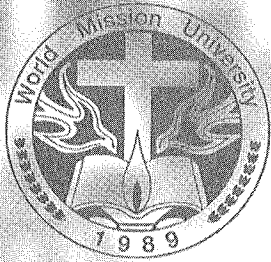



FIGURE 2
SEVERAL FORMS MAY BE USED TO CONVEY THE SAME MEANING
(Kraft 1991:87)

As the diagrams above demonstrate, one form within a single culture may be employed in several different meanings. "Siksa haseosumnikka?"in Korean, for example, is assigned different meanings such as greetings exchanged with others in a social context, as well as the question of eating which is the obvious meaning of the phrase. On the other hand, several forms in the Korean context--"Jinji jabsuseosumnikka?" Ssiksa haseosumnikka?" "Bab mekeonunya?"--are used to convey the same meaning at a deeper level. It means, "Did you eat breakfast (lunch or dinner)?"

Hiebert explains that new meanings become attached to existing behavioral forms or old meanings may be forgotten, as in the illustration given below:

An illustration of this is the lapel buttonholes on men's business suits, which once served the useful function of buttoning up the collar. Nowadays, they are almost meaningless and are often omitted altogether. The result of such changes is often "cultural lag," in which forms and meanings change out of phase with one another (Hiebert 1976:29).

People usually accept their culture's current form and meaning correlation as "correct" or "local" without questioning it. Even when people realize that one of their systems of representation is outmoded they may be reluctant to institute changes deliberately. Symbols, obviously, serve as more than the medium for ideas or concepts. They may become the message itself and in some cases determine the way people view and experience reality (Whorf 1921:72). A society's choice of symbols, then, may become as important and precious to them as the underlying concepts the symbols communicate.

Form and meaning become important structural units in the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process. There must be a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n order to demonstrate the distortion and failure of the results of communication. Nida suggests that it is not enough to know of a cultural feature or even its value, but one must know its function (1954:44).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herefore, many things happen at the some time (Figure 3). A sender wishing to communicate a message for whatever reason encodes it into symbols and transmits them to a receiver, who receives the symbols, decodes them to learn the message, and responds. All this takes place within specific contexts that affect the end result.

A language is a symbolic system. Language, then, is quite adequate for the handling of the needs of the society. However, the possession of a distinct language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obvious features which distinguishes human cultures (Nida 1954:211). Missionaries, in this communication gap, who do not understand the forms and meanings in the community cannot be effective in correct cross-cultural communication. However, missionaries who bond themselves with the people in social meanings and forms within each language can be effective commun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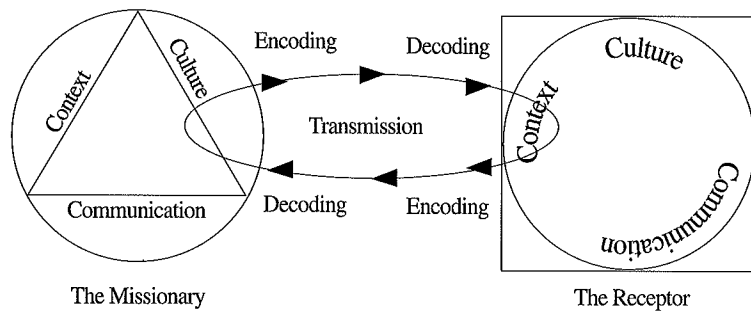



FIGURE 3
COMMUNICATION INVOLVES SENDING AND RECEIVING A MESSAGE

The communicative methodology should not be based not only on insights into the nature of knowing of a language accuracy, but also in those which involve the processes in use. Once the communication is in progress it takes place between what one knows and what one wants to know in real life. The purpose of missionaries'communication is to bridge this information gap. The following is a set of possible interactions:

A:	How old is your child now?		
B:	He is two yeas and ten months.	He is two.	He will be three on his next birthday
A:	X	And how many months?	When is his next birthday?
B:		X	In two months'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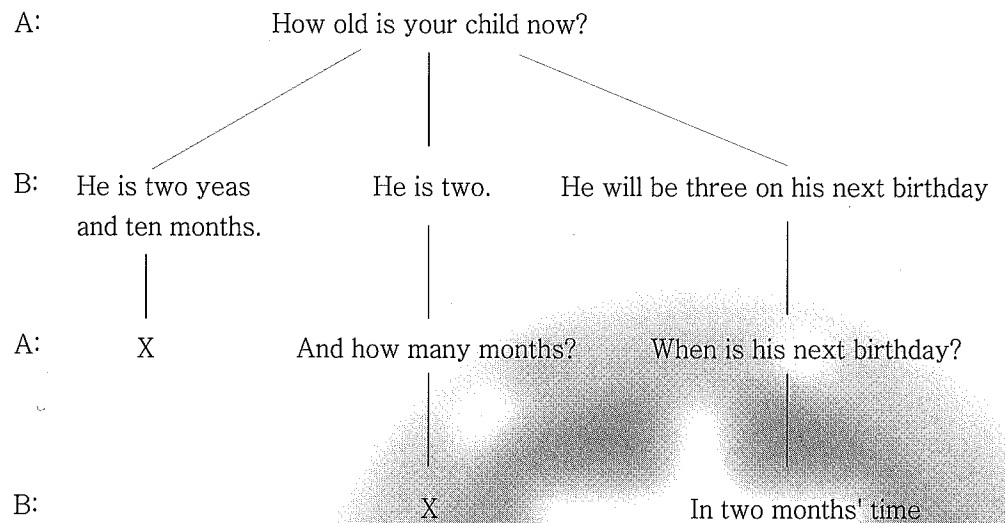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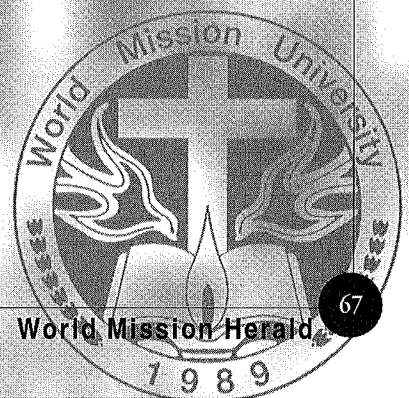



FIGURE 12
INTERACTION IN INFORMATION GAP

The ability to be involved in interaction in this manner would generally develop a language fluency through communicative approaches. The total information conveyed here contributes to information about the speaker. A listener receives a response, which relates not only to its form but also to its meaning. In order to be effective communicators in cross-cultural ministries, the form and meaning composite are considerations which missionaries must not overlook.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missionary language learners who understand forms and meanings help themselves to be good communicators in cross-cultural settings.

Summary

Learning to speak the language of the people in a particular society with a communicative approach has an influence on effecti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Languages can and must be learned well if the message of the good news is to be communicated across cultures. However, this cannot be done outside of the total framework of the society of which the language in question is an integral part. Learning a language in the new community helps a missionary to learn and understand appreciably the local people and culture. It also leads to a discovering of the receptors' needs which assists the missionary to achieve more effecti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his or her cross-cultural ministry.

The ability to be aware of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possession of an integrative motivation for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will help missionaries immensely. Culture is universally evident in all mankind, but the culture of each society is unique. Each culture has a distinct system of beliefs and values with sets of behavior patterns that express those beliefs and endeavors to meet the needs of its members. A willingness to be adaptable and the desire to bond with the people will help the missionary who is a cross-cultural language learner.

Learning the language as does a child is helpful for the missionary language learner. A child is an active learner, listens a lot, and makes many mistakes in his language learning process. He learns to speak by using these dynamics. He also learns a little and uses it a lot, speaking with people round about him.

The missionary communicator should be strongly connected i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who is at the source end of the bridge. At the other end of the bridge, the missionary must be able to bond with the receptors in their own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ner heart of the people. An understanding of the receptor's heart, or deep structures, will open up areas of communication by focusing upon the significance of particular symbolism within the culture and the difficulty one sometimes encounters in attempting to communicate clearly across cultural barriers. Missionary language learning within the society and with an understanding of social meaning is the basis for bonding with people. Missionaries can thus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people cross-culturally.

REFERENCES CITED

Brewster, E. Thomas, and Elizabeth S. Brewster
1976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 Pasadena CA: Lingua House.

1982 Bonding and the Missionary Task: Establishing a Sense of Belonging. Pasadena, CA: Lingua House.

1986 Community is My Language Classroom! Pasadena, CA: Lingua House.

Condon, John C., and Fathi S. Yousef
1981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dianapolis, IN: Bobbs- Merrill Educational Publishing.

Douglas, James Dixon, ed.
1975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 MN: World Wide Publications.

Gardner, Robert Grand, and Wallace E. Lambert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Publishers.

Goodenough, Ward Hunt
1963 Cooperation in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Gradin, Dwight
1990 "Learning Language is for Kids at Heart."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6(1):1-3.

Hiebert, Paul G.
1983 Cultural Anthropolog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Hudson, Richard Anthony
1980 Sociolinguis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ft, Charles H.
1991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Revised edi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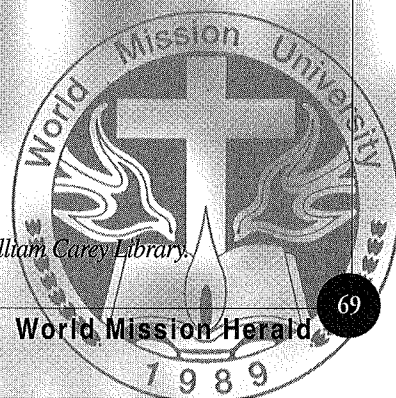
Larson, Donald N.
1977 "Missionary Preparation: Confronting the Presuppositional Barrier." Missiology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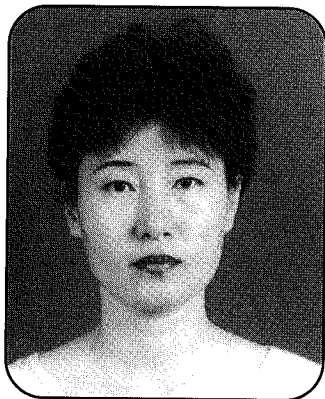
Larson, Donald N., and William A. Smalley
1972 Becoming Bilingual: A Guide To Language Learning.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Luzbetak, Louis J.
1970 The Church and Cultures: An Applied Anthropology for the Religious Worker. Pasadena,CA: William Carey Library.

Nida, Eugene
1954 Customs and Cultur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Schreiter, Robert J.
1985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NY: Orbi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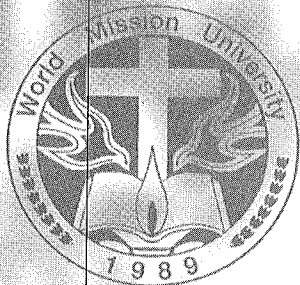
Smalley, William A., ed.
1978 Readings in Missionary Anthropology. South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한혜숙 교수 (본교 언어학 교수)

The Assistant에 나타난 윤리적 상징으로서의 유태성

나치에 의한 600만 유태인들의 체계적 학살은
백인들에게 죄책감을 주었고 수난과 고통을 당한
유태인들에게는 도덕적 권위가 부여되었다.
즉 고통을 통한 도덕적 승리로 현대와 현대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단순한 유태성을 초월한 인간적인 도덕성 회복을 나타내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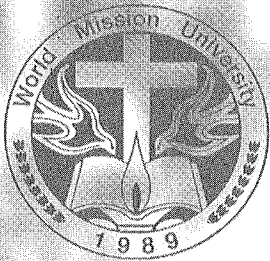
현대 유태문학은 대체로 1750년부터 1950년까지 약 200년 간의 간격을 두고 형성되었다. 1950년대 이전까지 미미했던 유태문학은 2차 세계대전을 전환점으로 소수그룹에 불과하던 유태작가들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주요그룹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유태작가들 활동도 1950년 이전까지는 극히 미미하였고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태인 사회는 유태인으로 태어난 예술가와 지식인을 후원해 줄 능력이 거의 없었다. 1910년대의 유태계 미국문학이란 초기 이민사회에서 미국에 동화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만을 이용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형상화한 Mary Antin의 The Promised Land (1912)정도였고, 20년대와 3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태인 사회의 확산과 정착을 묘사하며 Yiddish-English 회화체 문장을 사용하여 유태계 미국문학의 테두리를 형성시킨 Nathanel West와 Henry Roth 뿐이었다 (Shechner 192). 이러한 시점에서 2차 세계대전은 "Jewish-American" 문학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다. 나치에 의한 600만 유태인들의 체계적 학살은 미국의 백인들에게 호기심과 아울러 죄책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수난과 고통을 당한 유태인들에게는 도덕적 권위가 부여되어 미국 사회에 만연하던 반 유태주의가 오히려 "philo-semitism" 으로 변화되고, 유태인의 특수성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던 유태인들 스스로도 이제는 자신의 유태성을 자랑스럽게 표시하며 자신의 유태성에서 비굴과 자기증오가 아니라 긍지와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arnest Hemingway, William Faulkner, John Steinbecks 등 戰前의 작가들이 사라진 뒤의 공백을 J.D. Salinger, Saul Bellow, 그리고 Bernard Malamud가 소위 "Jewish Renaissance" 를 이루면서 미국문학의 중심 작가 군을 형성하게 되었고, Philip Roth로 그 막을 내리기까지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태계 작가들이 미국문학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부여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며 강력한 요인은, 현대 문학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소외의 과세와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 가 유태계 작가들에게는 생득적이기 때문이었다.

II

Saul Bellow와 함께 "Jewish Renaissance Group" 의 대표적 작가인 Bernard Malamud는 가장 중요한 현대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회 세력 속에서 개인의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고통과 갈등을 통해 긍정적 인간성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소설의 발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Allen 332).

Malamud의 소설 세계는 유태인의 정신적 유산과 미국적 전통이라는 두 개의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현대 미국소설의 계보 속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문학적 위치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의 복합성에서 근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복합성을 바탕으로 한 Malamud 작품의 주제와 배경은 다양하지만, 유태인들로 상징되는 현대의 주변인간(marginal man)이 겪는 고통과 갈등을 통해서 자기승화에 이르는 인간상을 드러내어 생을 재긍정 하는 인간성 회복과 도덕적 진지성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점에 관해 Malamud 자신은 1958년 The National Book Award 수상 연설에서, 현대 미국소설은 사회적 병폐와 性的타락, 분열 된 인간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가치가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신 "love, beauty, hope" 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ershba M2).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절하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본인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면서, 작가로서 자신의 임무를 "자기 파괴적인 문명을 더 이상 황폐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이라고 했다 (Hicks "His Hope" 32). 오늘날과 같이 비인간적인 폭력과 무질서, 무가치가 만연 된 사회에서 작가가 해야할 일은 문명이 황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는 끊임없이 개인을 억압하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긍정적 인간성의 발견 및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Malamud는 주장한다. Philip Roth 역시 Malamud의 도덕적 관점에 관해 "What it is to be human, to be humane, is his subject: connection, indebtedness, responsibility, these are his moral concerns" 라고 언급하면서 뒷받침하고 있다 (229). 인간의 생활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시련 속에서 개인은 억눌려 희생되고 좌절한다. 그러나 Malamud는 종래의 자연주의 작가들의 비관적인 결정론을 넘어서고 있으며 또 모더니스트들이 그리는 황무지적 허무감을 탈피하고 있다. 그는 고통과 박해 속에서 한 순간 진실을 포착하고,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나름대로 도덕적 승리를 얻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이러한 고통과 사회악을 증오하며,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인간 정신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습을 Malamud는 고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유태인 주인공을 통해 나타내는데, Malamud 자신은 유태인의 환경과 역사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체 인류의 문제와 고통을 상징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Charles Alva Hoyt도 "Bernard Malamud에게 유대인의 고난은 그의 예술세계에서 주된 소재이자 본질" 이라고 말한 것처럼 (65), 유태인의 고난은 Malamud 작품에서 중심 소재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19세기말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동구 유태인의 이민 급증으로 뉴욕은 Yiddish 문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Malamud는 주로 뉴욕에 거주하면서 Yiddish를 사용하는 유태인들의 미국생활을 다루었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이들 동구 유태인들의 포부?투쟁?분노를 Malamud는 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그가 "the Jews are absolutely the very stuff of drama" 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Hershinow 7). 그리하여 Malamud는 뉴욕에서 Yiddish를 사용하는 자들을 미국생활의 리듬과 어조로서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작품 세계로 창조하였다.

Malamud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꾸준히 유태인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Hershinow는 Malamud가 등장인물에 구현시킨 유태성이 종교적 신념이라기 보다는 민족적 정체와 도덕적 관조에 토대를 둔 관념적 유태성이라며 "Malamud is secular Jew whose Jewishness is an ethnic identity and moral perspective far more than it is a religious persuasion" 이라고 설명한다 (7)

역사적으로 볼 때 유태인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간 존재의 전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들은 수 천년의 방랑생활과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 대학살 속에서, 그들의 생존과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수난과 극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유태민족의 소외와 고통은 곧 현대인의 정신상태에 부합되는 것이다. Malamud는 Field 부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유태인을 실존주의적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비극적 경험의 상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handle the Jew as a symbol of the tragic experience of man existentially. I try to see the Jew as universal man. Every man is a Jew though he may not know it. The Jewish drama is a ???symbol of the fight for existence in the highest possible human terms. Jewish history is God's gift of drama. (Collection 7)

생존을 위해 어려운 투쟁을 하는 Malamud의 유태인들은 외로이 고립된 상황에서 고통당하지만, 본능적인 위엄과 선천적인 인도주의 사상을 소유한 원형적 도덕가(archetypal moralist)들이다 (Benson 30). Malamud는 이런 인물상을 통해 수세기 동안의 굴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동구 유태인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유태인들은 현대 세계의 여러 비인간적인 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용감하게 투쟁해 나가는 선량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상징이라고 Hershinow는 강조하고 있다.

Malamud uses Jewishness as an ethical symbol. In his works the Jew becomes a metaphor for the good man striving to withstand the dehumanizing pressures of the modern world. (8)

선량한 인간의 은유로서 Malamud의 유태인이란 혈연, 종교, 또는 사회 조직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과오와 불운과 슬픔의 반복 속에 고통받는 보편적인 인간, 즉 공통적 운명에 결합 된 인간을 말하므로, 극심한 고통을 인내하면서 도덕적 열망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유태인이라 할 수 있다. "All men are Jews." 라는 명제를 내세운 Malamud는 반유태적인 것은 반인간적이라는 신념으로, 유태성의 거부는 곧 도덕성의 거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유태성을 바탕으로 인간 모두가 처하는 갈등과 고난을 인류가 공유한 속성이라고 간주하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고난의 인류적인 보편성을 Malamud는 강조하는 것이다. Malamud의 " 최근 작품 중 가장 강하면서도 뛰어난 작품 "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The Assistant는 이러한 Malamud의 도덕적 관심사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다 (Hicks "Generations" 220).

IV

Malamud 작품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평범하면서도 고독하고 버림받은 모습을 지녔고, Yiddish 민속에 근원을 둔 schlemiel의 이미지를 소유하였기에, 그의 유태성이 나타내고자 하는 도덕적 목적에 매우 적합한 인물로 사용되고 있다. Yiddish 문학에 등장하는 schlemiel은 모든 선의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불운한 인간이므로, 끊임없는 고통에서 생존해 나가야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러므로 유태인을 실존주의적 상황에서 20세기 인간이 겪는 비극적 경험과 희망?두려움?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고통받는 유태인과 schlemiel이 전달하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Malamud의 유태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Yiddish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schlemiel은 "moral bungler"를 가리키는데 (Pinsker 89), 이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道를 준수하는 善人이며 의인인데도,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패배를 거듭하는 불운의 상징적 존재로서, 2천년 유배생활을 통하여 굳어진 유태적 인간상이기도 하다. 사회적 압제와 역사의 중압을 심하게 받으면서 생존해 온 유태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쓴 Malamud는 환경적 상황이나 물질적으로는 패배와 좌절을 맛보지만 정신적인 성공을 거두는 schlemiel형 주인공으로 고통을 수용하는 도덕원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only a schlemiel would choose the intangible spiritual rewards of goodness over the material benefits of narrow self-interest"라는 Hershinow의 말에서 일 수 있다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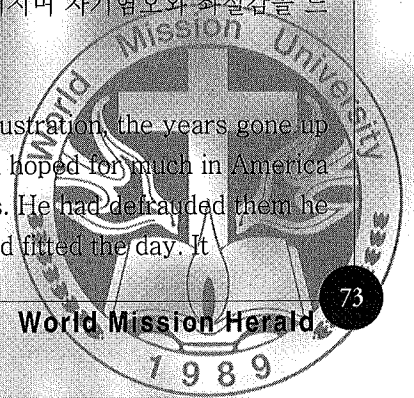
Malamud에게 있어 schlemiel은 유태인에 대한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도덕적 위치를 측량하는 수단이다. 즉 도덕적 위기와 인간가치의 평가절하를 극복하는 고통받는 사람의 유형을 schlemiel이란 인물을 통해 Malamud는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 Charles Alva Hoyt는 Malamud가 그려내는 주제에 실제로 schlemiel가 가장 적합한 인물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The Assistant에서 Morris와 Frank같은 인물이 schlemiel에 해당된다고 한다 (71). 그들은 schlemiel 같이 우둔하기 때문에 세상 악과 타협할 줄 모르며, 타인을 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받는다. 그러나 역으로 말해서 그들만이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The Assistant에 등장하는 Morris는 철저한 schlemiel형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60평생 더 나은 생활과 행운을 희구하며, 고된 노력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불운한 자기의 생을 후회하며 다음과 같이 고뇌에 빠진다.

He felt weightless, unmanned, the victim in motion of whatever blew at his back; wind, worries, debts, Karp, holdupniks, ruin. He did not go, he was pushed, He had the will of a victim, no will to speak of. 'For what I worked so hard for? Where is my youth, where did it go?' The years had passed without profit or pity. Who could he blame? What fate didn't do to him he had done to himself. The right thing was to make the right choice but he made the wrong. Even when it was right it was wrong. (Malamud 183, 이하 페이지 수만 표기)

전형적인 "Jewish sufferer"의 본보기인 Morris의 敵은 인생 그 자체로, 그는 환경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희생자이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Morris는 schlemiel로서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해 양쪽 다 희생자로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의 생을 끝마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잠이 더 필요하지만, 폴란드 여인에게 3센트짜리 롤빵을 팔기 위하여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Morris는 그의 처 Ida와 하루 16시간씩 고된 일을 하지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 나갈 뿐이다. 우연히 장사가 잘 되었던 어느 날 저녁, 주류상 Karp의 상점 대신 초라한 Morris의 식료품 가게에 강도가 들이닥친다. 강도 중의 한 명이 Morris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자, Morris는 소리 없이 쓰러지며 자기혐오와 좌절감을 느낀다.

felt sick of himself, of soured expectations, endless frustration, the years gone up in smoke, he could not begin to count how many. He had hoped for much in America and got little. And because of him Helen and Ida had less. He had defrauded them he and the bloodsucking store. He fell without a cry. The end fitted the day. It

was his luck, others had better. (28)

미국이라는 거대한 물질추구 사회에서 Morris는 분명 낙오자이며, 강도를 당한 그 날의 운과 그의 불행은 잘 어울리는 것이다. 가난과 유태인 학살 때문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Ida를 만나고, 약제사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Brooklyn에서 식료품 가게를 시작한 이래, 아내 Ida는 오래 전 유태마을에서 자신을 이교도 사회로 데려온 Morris를 원망하고 있으며, 딸 Helen은 원하던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집안을 돕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만 한다. Morris의 딸 Helen도 자신의 아버지를 정직에서 탈피할 수 없는, 점점 가난해지기만 하는 불운의 주인공으로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Morris는 결코 성공 할 수 없으며 언제나 실패만 하는 인물이다. 친구이자 한 때 동업자였던 Sobeloff에게도 사기를 당했으며 22년간이나 상점에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의 정직성은 그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뿐이다.

Morris의 유태성은 희생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같은 유태인인 주류상 Karp와 법률학교에서 다니는 Nat의 양친 Pearl 부부와는 달리, 구역질나는 빈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Morris는 물질추구의 미국사회에서 끝나지 않을 듯한 경제공황이라는 환경의 피해자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태인 Karp가 Morris가 세 들어 있는 자신의 건물을 Schmitz에게 넘겨줌으로서 Morris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새 주인이 된 Schmitz가 독일인이라는 점에서 Morris의 곤경은 역사적 희생의 상징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독일인에게 곤란을 당하는 유태인으로서 Morris는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운이 좋아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Karp와 항성 善을 추구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Morris가 서로 비교, 대립된 관계로 그려짐으로서 고통받는 Morris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Morris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Karp가 단순히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 건물의 빈 점포를 독일인 Schmitz에게 팔아버린 것은 Morris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유태성 그 자체를 배반한 행위이다.

Karp가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Morris는 선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선인이다. 이러한 Morris를 Karp는 "shlimozel"라고 부르며 경멸한다 (134). 왜냐하면 Karp의 눈에는 Morris가 어리석고 불운한 인물로밖에는 비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Karp의 물질중심의 인간평가와는 달리, Morris에게는 동전 한 푼보다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Frank가 Morris에게 고객을 대할 때 다른 상점처럼 왜 속임수를 쓰지 않느냐고 묻자,

"when a man is honest he don't worry when he sleeps. This is more important than to steal a nickel." (78)이라고 Frank를 깨우쳐 주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Morris의 정직성은 파산 직전의 곤경에 빠져 있을 때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놓아주겠다는 직업 방화범의 제의를 뿌리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공교롭게도 Ward Minogue로 인해 불은 Karp의 가게에 나게되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는 사람은 유혹을 느꼈던 Morris가 아니라 부유한 Karp이다. Morris는 비도덕적인 동기에서 돈만을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의 동정심은 무의식적으로 불운을 초래하게 만드는 설계자이다. 가난하기에 외상값을 갚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상을 주는 Morris의 동정심은 그의 정직성과 잘 조화되어 있다. Morris의 장례식 때 랍비가 들려주는 Morris의 살아생전의 행동에 잘 나타나듯이, 그는 고객이 잊고 간 5센트 동전을 돌려주기 위해 눈 속을 두 구간이나 달려 간 일도 있다.

그러나 정작 Morris는 폐렴에 걸려 죽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가족부양도 제대로 하지 못한, 無를 위한 낭비된 삶이었다고 후회한다: "I gave away my life for nothing. It was the thunderous truth." (200) 자신의 선한 행동에 정당한 보상 없이도 한 평생을 완강히 정직하게 살아온 Morris가 전형적 schlemiel이라고 Hershinow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He[Morris] is like the character from Yiddish folk literature who is repeatedly knocked down by fortune but who always struggles to his feet to try his luck again, hoping for the best but expecting the worst, constantly aware of the absurdity of his situation and his actions in the face of an unlucky fate. (38)

Morris의 정직은 도덕적 자산이지만, 바로 그 정직성 때문에 그는 정신적 승리의 대위법적 적대자인 물질적 고통을 받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Morris에게 있어 고통은 존재의 본체로서 욥처럼 고통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음의 말에서 알 수 있다.

In Morris Bober we see the quintessential Jewish sufferer, a Job-like character who suffers simply because it is his lot in life. Suffering is central to Morris's identity; he needs it, expects it, and receives it in generous doses. But suffering is also an essential part of his goodness??? (Hershinow 34)

Morris는 모진 운명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다시 행운을 얻으려고 애쓰며,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을 기대하고, 불운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처지와 행동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Jewish schlemiel' 을 통해 Malamud는 The Assistant에서 고통을 통한 재생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비록 실패한 것 같은 Morris의 희생적이고도 고통스런 삶은 가게의 점원인 Frank의 삶을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Morris의 영향으로 점원 Frank가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 책임과 연민, 사랑의 관계를 서서히 인식하며, 결국에는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는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Morris의 고통은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Theodore Solotaroff는 Malamud의 주인공들이 실패와 잘못을 통해 정신적 유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Malamud's Jews (and his Gentil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not by religious and social ties but by a common fate of error and ill luck and sorrow, of having lost much by their mistakes and recovered little by their virtues. (236)

새로운 삶을 찾아 서부에서 온 이탈리아계 Frank는 고아이며 부랑자이고 Morris의 상점을 턴 강도이다. 그는 사랑?성공?만족 같은 것은 조금도 모르고 자란 불우한 청년이다. Frank가 처음 Morris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실패투성인 과거에 대해 토로한 것처럼, Frank는 노력의 결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순간에 무언가 실수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또 하나의 실수가 다른 실수를 낳아 결국 그가 원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런 Frank를 Robert Alter는 이탈리아형의 schlemiel이라고 한다 (33). 그러나 Morris와 달리 Frank의 "schlemielhood" 는 거의 끊임없는 자신의 나쁜 행동에서 기인한다. 수시로 Morris의 금전계산기에서 푼돈 훔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다가 Morris에게 발각되어 Frank는 해고당하게 되고, Helen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순간에 그녀를 겁탈하여 그녀의 사랑마저도 잃게된다. 이런 Frank를 Morris도 "The clerk was an unfortunate man" (152)이라 생각하며 측은히 생각한다. Frank는 항상 자신을 좋은 일로 이끌어나가고자 시도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쁜 곤경 속으로 빠지게 되는 희생자로서, Morris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양상의 schlemiel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Giles B. Gunn의 지적과 같이 패배를 경험함으로써 Frank는 정신적인 성장과 재생을 이루게 된다.

Thus the experience of failure in Malamud's fiction is simply the testing-groun of character; its purpose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moral development an even spiritual regeneration which follow a recognition of the fact of failure. (65)

Morris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Frank는 Morris 무덤 속으로 넘어짐으로서, 이전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단순한 실패자로서의 schlemiel이 아니라, Morris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schlemiel로 변모하게 된다.

Schlemiel형 실패자로서 Morris와 Frank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끊임없는 수난자들이다. 물질적으로는 그들에게 가해지는 바깥 세상의 고통이며, 정신적으로는 그들 삶이 빗어내는 것들에 대한 자아 경멸감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schlemiel인 두 주인공은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현대인의 원형으로서 만인을 대표하는 Malamud의 'Jewish schlemiel hero' 들은 비록 내적 갈등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답게 되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극히 도덕적인 인물들이다. 작가로서 Malamud의 주된 관심은 도덕적인 인간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그에게 있어 도덕적인 인간이 되다는 것은 곧 유태인이 된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Malamud가 그리고 있는 유태성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Field부부는 말하고 있다.

We believe that his definition of Jewishness includes such universal human virtues as moral obligation to one's follow man and the community;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being involved in the suffering of others; and learning form one's own suffering. (Collection 4)

Malamud가 제시하는 유태성이란 때묻고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책임이란 모든 도덕성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자진해서 책임을 지려는 의도이며, schlemiel 자신이 이용당함으로써 소극적 역할에서 한 발 나아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 고난의 원천적인 근원이며 그의 긍지가 된다. 그러므로 Malamud가 나타내는 도덕성은 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통한 책임감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란 숙명이므로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절망하지 않고 이를 통해 오히려 선한 삶으로 이어 나아가는데 Malamud의 긍정적 비전이 담겨져 있다. Morris는 파산의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친절과 선의로 고객을 맞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그가 극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참된 의미를 자각하고 있으며, 언제나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good heart' 의 표현이자 그의 생활신조이다. 인생이 던져주는 불가피한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생득적 가능성을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그림으로서 Malamud는 Morris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Jewish schlemiel인 Morris는 고통 받는 유태인의 진수, 즉 고통이란 인생에 있어 하나의 숙명처럼 되어버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성격의 면모를 발견하게끔 해 준다.

Frank는 마치 고난 받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Morris에 대해 의혹을 견디다 못해 Morris에게 도대체 유태인이라 무엇인가 묻는다. Frank의 질문에 Morris는 유태인이란 착한 마음을 지닌 고통받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정직과 선함 그리고 율법을 위해 고통받고 있다고 대답한다. Morris가 말한 율법이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도덕률이며, 유태인이란 고난과 소외의 역경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 계속해서 Morris는 인간

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량해야 되며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Frank에게 인생의 의의를 설명 해 준다.

'to be a Jew all you need is a good heart.'
What do you say?
'The important thing is the Torah. This is the Law—a Jew must believe in the Law This means to do what is right, to be honest, to be good. This means to other people. Our life is hard enough. Why should we hurt somebody else? For everybody should be the best, not only for you or me. We ain't animals. This is why we need the Law. This is what a Jew believes.' (1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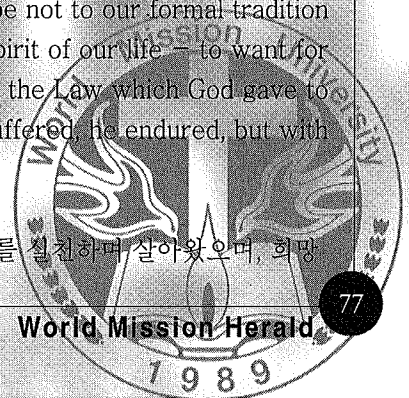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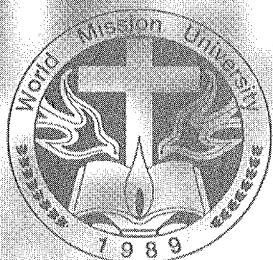
Morris가 이야기 해주는 고통의 의미를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Frank는 유태인들이 마치 고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다는 조소 섞인 말을 한다.

'It seems to me that they like to suffer, don't they?'
'Do you like to suffer? They suffer because they are Jews.'
'That's what I mean, they suffer more than they have to.'
'If you live, you suffer. Some people suffer more, but not because they want. But I think if a Jew don't suffer for the Law, he will suffer for nothing.'
'What do you suffer for, Morris?' Frank said.
'I suffer for you.' Morris said calmly. (113)

"도대체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느냐?" 라는 Frank의 질문에 "바로 너 때문이지." 라는 Morris의 대답은 그가 Frank를 위해 고통받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이웃 심지어 자신의 상점을 턴 Frank에게까지 사랑과 희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Morris를 Frank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Frank의 생활은 변화되고, 작품이 끝날 쯤에는 Morris가 보여주었던 가치관들을 Frank 자신 스스로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개인을 성장시켜 참다운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고통에 관해 Marc Ratn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he general theme of Malamud 's work is the humanistic value of suffering as a way towards man's ennoblement and enlightenment???" (663—4)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고통을 잔인한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것이라 생각할 때 비로소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Morris가 걸어 온 고통의 긍정적 수용의 길은 그의 장례식 때 랍비가 한 설교 중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Morris Bober was to me a true Jew because he lived in the Jewish experience, which he remembered, and with the Jewish heart." Maybe not to our formal tradition — for this I don't excuse him — but he was true to the spirit of our life — to want for others that which he wants also for himself. He followed the Law which God gave to Moses on Sinai and told him to bring to the people. He suffered, he endured, but with hope. (203)

이와 같이 Morris는 "Jewish experience" 와 "heart" 를 실천하며 살아왔으며, 희망

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가치를 Frank가 받아들일 때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Frank를 이처럼 성장시킨 고난을 Hershinow는 도덕적 성장과 개인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속죄적인 고난" 이라고 지칭한다 (139).

유태인을 경멸하기에 Morris의 가게를 털었고, 그를 포용해 준 Morris의 가게에서 계속해서 돈을 훔쳐내던 일이 발각됨으로서 가게에서 쫓겨났으며, Morris의 딸 Helen을 겁탈함으로서 그녀의 사랑마저 잃어버린 Frank가 Morris의 영향으로 고통과 고뇌의 참 의미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면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Morris의 장례식 날 "Suffering, ???like a piece of goods. I bet the Jews could make a suit of clothes out of it." (204)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Frank가 Morris의 뒤를 이어 이 고통의 의복을 입게 된다. 이어 계속되는 "The other funny thing is that there are more of them around than anybody knows about." (204)라는 Frank의 생각은 Malamud의 명제, "모든 인간은 유태인이다." 에서 나타나듯이 유태성의 보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Frank가 짊어지는 고통은 새로운 삶을 깨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며,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를 배워나가게 되고, 종국에는 초극하는데 Malamud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The Assistant에서 고통은 "human redemption and condition of humanity" 의 수단으로서 (Rahv x), 현실 생활에서는 패배자로 비쳐지는 schlemiel인 Morris와 Frank를 정신적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고통을 통한 도덕적 승리로 현대와 현대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단순한 유태성을 초월한 인간적인 도덕성 회복을 나타낸 것이다.

V

물질문명에 의해 소외되어가고 자아가 상실되어 가는 현대인의 고통을 "Jewish experience"를 사용하여 파헤친 Bernard Malamud는 유태인의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배경으로 평가절하 된 인간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오늘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삶과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세계의 급속한 산업발달, 황금만능주의 팽배, 인간성 상실 등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태계 미국작가들 중 Malamud는 인간의 삶 속에 잠재해 있는 부조리함을 드러내어 인류에게 긍정적 좌표를 제시하는 문학세계를 형성시켰다.

그의 작품 속에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고통의 의미' 이며, 그 고통이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Malamud 작품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유태인은 곧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보편 상황의 상징적 구현이며, 고통은 인간구원의 수단이자 'humanity' 에의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1957년 발표 된 The Assistant 는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한 가난한 유태인이 꾸려나가는 상점을 고난받는 인류의 상징적 소재지로 표현하면서, 그 속에 사는 아이러닉한 불운의 두 주인공 Morris Bober와 Frank Alpine이 장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Morris의 도덕적 교훈을 Frank가 본받아 정신적으로 재생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욥과 같은 인내와 자제심으로 Morris가 고통을 감수 해 나가는 것을 봄으로서,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조수(assistant)' 인 이교도 Frank가 점차 성장하여 상징적인 유태인이 됨으로써 Morris의 '선(goodness)' 과 고통을 이어나가게 된다. 방황하던 부랑자 Frank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인 Morris에게서 자기가 동경하던 St. Francis의 성스러움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충동적인 악한 행동의 밑바닥에 묻혀 있는 자아를 재발견하려고 고통스런 재생의 길을 걷는다.

이처럼 Malamud는 유태성을 하나의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여, 고통을 통한 재생이라는 그의 주제를 더욱 잘 구현하고 있다. Yiddish 문학에서 실패만 거듭하는 Schlemiel을 주인공의 삶의 존재 양식으로 제시하면서, 유태성을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 상징으로 나타내었다. 진정한 유태성을 지닌 Morris 비록 세속적으로

는 실패하지만, 그의 유태성은 Frank를 정신적으로 재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Works Cited

Allen, Walter. The Modern Novel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E.P. Dutton and Co., 1964.

Alter, Robert. "Jewishness as Metaphor."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Field, L. and Field, J. 24-42.

Astro, Richard & Jackson J. Benson. The Fiction of Bernard Malamud. Corvallis: Oregon State UP, 1977

Balakian, Nona & Charles Simmons, eds. The Creative Presents. New York : Doubleday & Co., Inc., 1963.

Benson, Jackson J. "An Introduction: Bernard Malamud and the Haunting of America." Astro and Benson 22-48.

Field, Leslie A. & Joyce W., eds.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5

---.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New York: New York UP, 1970.

Gunn, Giles B. "Bernard Malamud and High Cost of Living." Scott 51-79.

Hershinow, Sheldon J. Bernard Malamud.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80

Hicks, Granville. "Generations of the Fifties: Malamud, Gold, and Updike." Balakian and Simmons 202-239.

---. "His Hope on the Human Heart." Saturday Review 49:37 (Oct. 1963):31-33.

Hoffman, Daniel, ed. Harvard Guide to Contemporary American Writing. Cambridge: Harvard UP, 1979.

Hoyt, Charles A. "Bernard Malamud and the New Romanticism." Moore 52-88.

Malamud, Bernard. The Assistant. New York: Penguin Books, 1957

Moore, Harry T. Contemporary American Novelist.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P,1964.

Pinsker, Sanford. The Shlemiel as Metaphor: Studies in the Yiddish and American Jewish Novel. Carbondale and Edwardville: Southern Illinois UP, 1971.

Rahv.Philip. Introduction. A Malamud Reader.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7. vii-x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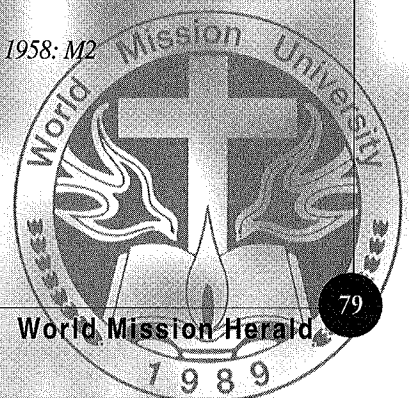
Ratner. Marc L. "Style and Humanity in Malamud's Fiction." Massachusetts Review 5:4 (1964): 66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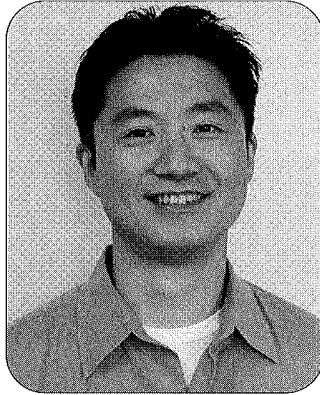
Roth, Philip. "Writing American Fiction." Commentary 31 (March 1961): 223-33.

Scott, Nathan A. Jr., ed. Adversity and Grace: Studies in Recent American Literature. Chicago: U of chicago P, 1968.

Shechner, Mark. "Jewish Writer." Hoffman 183-198.

Solotaroff, Theodore. "The Old Life and the New."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Field, L. and Field, J. 224-246.

Wershba, Joseph. "Not Horror but 'Sadness'." New York Post 14 Sept. 1958: M2

John Park (Director of Development)

Elements Of A Great Church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Acts 2:41)

There are many churches today of all sizes, ethnic make up and denominations. Some churches are growing and others declining. It's not uncommon to hear people say such and such church is a great church. But what makes a church great?What factors do people look at? For some they look at the worship and if it suites their style then they love it. Other people look at the pastor and his message. Some people look at what the church does in the community. Others look at what the people are like, was it a friendly church? Did they make me feel welcomed? Luckily for us we have a model in the Bible that we can look to measure our current churches and see in what areas we fall short and see what elements make a church a great church.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was no ordinary church. This was an extraordinary church that I believe exemplified all the great characteristics that God intended for his church. In Acts 2 as the believerswere gathered for the day of Pentecost something miraculous took place.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Acts 1:1-4). 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these people were able to speak a language they did not know. They spoke languages perhaps they had never heard before. This was indeed a miraculous event. Things like this don't happen all the time. Many of us would love to wake up one day and speak Spanish, French or whatever language.These believers were given the ability to speak a new language with no training or without studying.

In Jerusalem at the time there were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Acts 2:5). They were amazed that these Galileans were speaking their language. It wasn't just one language but each person from all different nations heard his/her language. Imagine the scene that day as these Jews began to speak these various languages. Imagine what people must have thought. There was no way to explain it as some tried. Some people accused them of being drunk (2:19)

but that wasn't the reason, but rather the Holy Spirit empowered them. This is known as Pentecost, a day when the Holy Spirit made His presence known. He was the promised "counselor"that Jesus referred to in John 16:7.

Peter addressed the crowd and preached that day and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Acts 1:37–38).

And with that invitation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Acts 2:41). What a remarkable day, a day that stands out in history of the church because it marked one of the first occasions where so many people put their faith in Jesus. Since then many have done the same thing. Acts 2 introduces us to one of the first group of believers. This group or church is a model that I believe accurately reflects what the church should be all about.

A closer look at the early church in Acts 2:42–47 reveals so much about what a great church this wa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Four things stand out in this verse. First,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Seco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Thir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fourth,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Devoted is asteadfast and single–minded fidelity to a certain course of action, to commit by a solemn act, to give over or direct (as time, money or effort) to a cause, enterprise or activity. These early believers were committed to these things, they focused on these four things with their all. It was ingrained as a part of their live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which probably wasthe teaching about Jesus which was considered authoritative. They also accepted the apostles' teaching. They desired to learn as much about Christ as possible and what better source for them than the very men who spent so much time with Jesuswhile he was teaching on Earth? I picture a group of people hungering for the Word, I sense that they couldn't wait to hear the Apostles'teachings, I picture them waiting with great anticipation for the next time, next session, next lesson, which came the next day. There was a real hunger to know more, to hear more. They were excited to be receiving this information about the teachings of Jesus.

They loved the teaching and they also loved 'The' fellowship. The definite article 'The' fellowship impliesthat there was something distinctive in the gatherings of the early believers. Something set it apart from other gatherings. What could have set this fellowship or gathering apart from any other? Was it the Holy Spirit? Was it what they did when they got together? Was it where they met? Something about this gathering differed from all the others that it would be called 'The fellowship'. The latter verses reveal that when these believers gathered together there was lots of love. Their love for one another clearly set them apart from other gatherings but it's also because they were united by and in Christ. Christ was the common bond that brought them together. It's amazing that people could see the difference in this gathering.This is the natural outcome that a relationship to Christ should have on us.

An outward change, a difference in the way one lives, a difference when a group c Christians meet together should show non-Christians that there is somethin special about this group.

The reason is that the church is built upon Christ. Christ is the foundation of th church, the most important piece. In 1 Peter 2:6 Peter quotes Isaiah 20:16 "See lay a stone in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trusts i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Believers are encouraged to build on the Lord wh is immovable and unchangeable for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 and forever"(Heb 13:8). It is not in man that we put such faith but in Christ. In th church it is not the pastor or the elder that we put our faith inbut the focus is o Christ and ought to be Christ for he is th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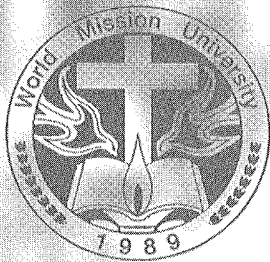
The church is described as the body of Christ. As a body, the ultimate purpos for the church is to bring glory to Jesus Christ who is the head. In 1 Corinthians 1 Paul says the following: "The body is a unit, though it is made up of many parts; an though all its parts are many, they form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For we wer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whether Jews or Greeks, slave or free-- and we were all given the one Spirit to drink. Now the body is not made up of on part but of many. If the foot should say, "Because I am not a hand, I do not belong t the body," it would not for that reason cease to be partof the body. And if the ea should say, "Because I am not an eye, I do not belong to the body," it would not fo that reason cease to be part of the body. If the whole body were an eye, wher would the sense of hearing be? If the whole body were an ear, where would th sense of smell be? But in fact God has arranged the parts in the body, every one c them, just as he wanted them to be. If they were all one part, where would the bod be? As it is, there are many parts, but one body. The eye cannot say to the hand, ' don't need you!" And the head cannot say to the feet, "I don't need you!" On th contrary, those parts of the body that seem to be weaker are indispensable, and th parts that we think are less honorable we treat with special honor. And the part that are unpresentable are treated with special modesty, while our presentable part need no special treatment. But God has combined the members of the body and ha given greater honor to the parts that lacked it,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 the body, but that its parts should have equal concern for each other. If one par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if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rejoices with i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The church is the body and Christ is the head. Paul talks about the important rol that each person plays. All the partsare necessary for the whole body to functior No one part is bigger than the other, no one part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All parts are of equal importance for the whole body to function effectively. Bu people don't value all the parts equally. They think a hand is better than a foot o the eye is better than a tiny bone in the foot. Paul's words clear every part i important and everyone needs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no insignificant parts One person may feel like their contributions are insignificant but everyone mus understand the value of even the smallest part for the function of the whole body Every part is important but there is one that is the greatest. The greatest part of

the body is the head, which is Christ Jesus. The church cannot exist without Christ and apart from Christ for as Dietrich Bonnhoeffer in his book Life Together says, "Christianity means community through Jesus Christ and in Jesus Christ. No Christian community is more or less than this. Whether it be a brief, single encounter or the daily fellowship of years, Christian community is only this. We belong to one another only through and in Jesus Christ". We are thebody of Christ and we belong to Christ, there is no one part that is more significant than another.

The early Christians also got together and broke bread. What is breaking bread? The New Living Translation translates it as a "Love feast or the Lord's communion". The problem here, which has caused much debate is whether Luke refers to the ordinary meal as in Luke 24:35 or to the Lord's Supper. The same verb 'klao'is used in both of these verses of breaking bread. It isgenerally supposed that the early disciples attached so much significance to the breaking of Bread at the ordinary meals that they followed the meal with the Lord's Supper at first, a combination called "love feasts". They gathered for a meal and they also remembered the Lord's work through communion. Whatever it was I believe it was more than a simple, ordinary meal. The gathering of Christians would have inevitably been an occasion for joy.It was a joy to meet with other Christians and eat, share infellowship and learn and grow. With the persecution they faced these times were probably a comforting time as well. Are our church gatherings an occasion of joy? Do you look forward to meeting together with other Christians to share life, food? They met and they celebrated through food and remembering the Lord's work on the cross.

Something amazing was happening in the church that caused everyone to be "filled with awe" (verse 43). The "everyone" refers to all the non-believers in Jerusalem at the time. They were witnessing som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at were being done by the Apostles. Are churches today causing non-believers to be "filled with awe"?Are things occurring in our churches that people can see?

Lastly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Prayer is an essentialtool for each believer to develop and make part of their daily lives. Jesus prayed often and he prayed to his Father. He prayed for strength and he prayed for guidance. Throughout church history a common ingredient of faithful men and women is prayer. They are often found on their knees praying. There is something about those who spend a lot of time praying. We attach the title of "prayer warrior" to them. The early believers were no different as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Since they got together every day it's likely they also prayed everyday. We remember Daniel who prayed in the midst of adversity even though he knew it was against the law at the time. Those who opposed Daniel set up a trap by coming up with a plan that would prohibit praying to anyone but the king. Daniel 6:10-15 explains the plan that Daniel's enemies came up with. The helped set up a rule or a decree that prohibited anyone to pray to another god or anyone one besides the king for thirty days or be faced with the punishment of death by being cast into the lion's den. Daniel was faced with a decision to continue his practice as he had always done or change his daily routine. Daniel ignored it and as a result was thrown into the

lion's den. He could have prayed in secret, he could have prayed without opening the blinds but he chose to pray the same way as he always did. That is how highly he regarded prayer to his God that is how important prayer was to him. Daniel prayed three times every single day.How many times are we found on our knees praying to God each day? Richard Foster in his book Prayer Finding The Hearts True Home says Prayer is the "place of deepest intimacy, where we know and are known to the fullest". There is a level of intimacy about prayer; those who pray often and who have a deep prayer life seem to be so much closer to God. During their times of prayer they develop a very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Are you looking for that level of intimacy? It is only a prayer away.

Prayer is so important that Jesus taught us how to pray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Matthew 6:9-13). Prayeris essential and these early Christians devoted themselves to it everyday.

There was more than these four things that made the early church great. This early church was characterized by sharing and serving one another. They sold their possessions and goods and gave to anyone as they had need. The early believers were very generous in the use of what they had. They met everyday in the temple courts for worship. Worship was a daily practice for them. They delighted to come together daily at the temple without any complaints. The key word here is daily. This is very different from many people who profess to be Christians today who think it's okay, are content or feel good enough to come to church just one day a week or to read the Bible only when they need it. These early believers came together every single day. What would happen if this same practice were practiced today in our churches? What would happen if there arose a group of Christians who delighted to come together everyday for prayer, worship, breaking bread and to hear the Word? They would start making some noise for God in their communities. They will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s and people will take notice because lives will be transformed.

These early Christians also ate together everyday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They loved meeting together, they enjoyed being together, and they wanted to come together as often as they could. Food is one of the best ways to get people together but we must not forget why we get together. Some groups enjoy eating too much and that's all they do when they get together. They sprinkle it with some prayer at the end and think that is enough. These early Christians came together to eat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They seemed to have enjoyed a sense of community, a communal lifestyle. There are positives to coming together often as the early Christians did. There is support, encouragement and fellowship. The early church was on to something but since the church has gone away from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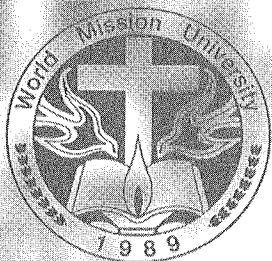
As all these things were occurring in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verse 47). People saw what was happening and it was a powerful witness and people were being saved

each day. When you get three thousand added to the church in one day, that is remarkable and it kept growing.

As the early church went about their daily lives they were a witness to the community and through it the gospel message was both shared and lived. The church is called to share the love of God to all. There are three major purposes of the church. First is evangelism, sharing the gospel to all, especially the non-believers so that "all men might believe"(John 1:7). Second is to encourage other believers, encourage one another. Third is to Worship.

The great commission in Matthew 28:18-20 gives instruction to what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All Christians are called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This responsibility is not only up to pastors but also to every single believer worldwide. I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to evangelize,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who have not heard, to tell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hich is the love of God. The church as a whole and Christians individually must understand this mission. Some churches today have not done this and yet they think they are a great church. Can that really be possible?

Jesus calls us to become his disciples and to make disciples of others. Then Jesus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save it"(Luke 9:23, 24). Marshall and Roberts in their book Reclaiming God's Original Intent For The Church add "Following Jesus involves a total, whole-life commitment to his lordship: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Luke 14:33). Jesus is clear about the cost of following him. The early church seemed to understand the cost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we see evidence of persecution and suffering for the sake of following Jesus". It costs something to follow Christ. These early Christians followed Jesus in the midst of persec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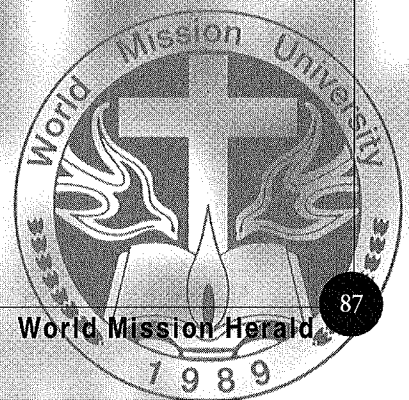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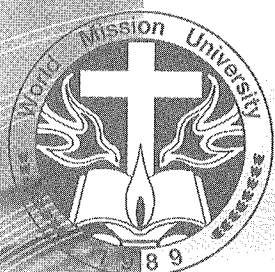
The second purpose of the church is to edify or build up believers by encouraging them and loving them. Paul says in 1 Thessalonians 5:11 "Therefore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just as in fact you are doing". The church in Thessalonica was doing well in this area and Paul commends them for it. But so as to not get their heads big, he reminds them to keep on doing it. There is no rest once a certain level is reached, but it is to be a lifelong practice. The writer of Hebrews says,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Heb 3:13). This is an urging to encourage every single day. If you do something everyday it becomes a part of your life, it will form a habit. This takes a lot of work because it's difficult and unnatural for many to compliment and encourage others. Bu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to encourage one another and to the early Christians I believe this came very naturally. They just seemed to have lived with a lot more joy.

Third the church is called to worship. The early church met together regularly to worship the Lord. The writer of the Hebrews encourages his reader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Heb 10:25). There is value in coming together. When Christians come together they are inaccountability with other Christians and support that will help them live lives honoring to God. Worship is the praise and exaltation of God. We were created to worship God because he is worthy to be praised. Millard Erickson says, "In the Book of Revelation and elsewhere, the people of God are represented as recognizing and declaring his greatness. It is appropriate that the church centers its attention upon who and what God is, not upon itself". Worship is not about us but it's about God. We enter into worship declaring the praises of God. We were created to Worship God. "Ascribe to the Lord, O families of nation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bring an offering and come into his courts.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tremble before him, all the earth" (Psalm 96:7-9). This is a call to all nations to worship the Lord. Not once a weekor when we feel like it but every moment of every day. John Piper in Desiring God writes, "Worship must be vital and real in the heart. An act of worship is vain and futile when it does not come from the heart". It's impossible to worship God when one's heart is not in it. Allen and Borror in their book Worship Rediscovering the Missing Jewel write, "Many of our questions about worship are like those of the Samaritan woman. We ask where and how questions, for we want to settle issues of form". Jesus said,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John 4:23). Worship comes from the heart. If there is no heart, there is no worship.

When I look at the church today it's clear that overall something is different, it is not the same picture as the early Jerusalem church.Some of these elements are missing. Very few churches have all of the same elements as the early Church did. Christianity has become self focused and not God focused. Christians want their needs met, they want their questions answered, and they want their concerns addressed. Jesus never concerned himself with such things. He was all about putting his own needs, concerns and life in the back and his Father's will first.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Matthew 20:28). Jesus came to serve others, at no point was he selfish or strayed away from that purpose, he was always in tune with his Father's will. Love compelled God to send his son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John 3:16). Love compelled Jesus to go to the cross and face the horrendous punishment, suffering and death. The church is a place where that love is to be alive and well. If all churches were like this then our churches would be a far different place than it is. But unfortunately most churches most likely resemble the church in Laodicea.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r the other! So because you are lukewarm neither hot nor cold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Revelations 3:15, 16). This lukewarm church is symbolic of too many churches and Christians today. They are neither hot, fully devoted to God nor

cold, totally turned away from God. Rather they are somewhere in the middle, this lukewarm state. They are merely going through the motions. They give halfhearted effort to their Christian faith and that will not do.

God's intent is for His dearly beloved children to love Him more than anything else or anyone else. His desire is that they be devoted to Him and that they delight to come into His presence daily. Something clearly set this First century Jerusalem church and the early Christians apart from the typical church or Christians today.They embraced Christ and lived each day to honor him. They put into practice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They did not regard their own possessions as their own but viewed it as belonging to the community. They were not selfish, they did not covet, and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one another. We see the servant's heart, we see the daily gathering for food, prayer, worship and breaking of bread. We see unity and love. The early church was a model for their community. They shared, they loved and above all they modeled Christ. The church was off to a great start and the gospel message was spreading. It must have been exciting times. They were persecuted but it didn't matter, it couldn't stop them and they continued to grow in spite of it all.

It is time for the church to look in the mirror and rediscover God's intent for the church. Are these elements present in our church? There are a few that are there and a few that are not there. Let us commit to building up our church like that of the early Jerusalem church that will serve as a model to the community, a place of unity, love and joy.When we do this I believe our churches will be transformed to loving communities that will impact the world for God just as the early church did. I believe that when this occurs people will take notice and we will return to operating in a way that honors God and who knows maybe just maybe we too will see "three thousand added to our number".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배움의 목적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의 목적은 실천하기
위함 이다.
배운바 은혜를 세상에
사랑으로 실천하자.

방연옥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 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인생의 늦깍이로 그래도 깨닫고 염치없이 눈물로 시작한 신학공부였습니다.
이제 뒤돌아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과정을 마치며, 어색하나마 졸업을 하는 스테이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끝없이 펼쳐지는 말씀에 대한 갈망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갑자기 내 마음가운데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일생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당황하고 조급해 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며 부끄러운 나의 결단을 부추기는 사랑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실천이 없는 결단은 나 자신조차도 용납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우유부단함이 한 번뿐인 나의 일생에 커다란 후회로 평생 나를 자책하는 고통으로 남을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장거리를 경주하던 마라톤 선수가 이제 승리의 골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하며 뛰어야 하는 그러한 다급한 지경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고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이 내 일생에 후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며, 멈춰 서 있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결정을 보게 되어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로 이어져 온 삶이었기에 말씀은 늘 충분히 내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려 평생 삶에서 기우뚱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는데, 오늘까지 방향을 지켜주신 세심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름대로 똑바로 걷는 삶으로 노력하며,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인생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린 나이로 시작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 중심에서 늘 평생 지니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평생 나의 과제였습니다. 평생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늦깍이 학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고, 세밀한 지도로 오늘날까지 키워주신 월드미션 대학의 은혜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사랑과 배움에 어떻게 보답하여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20세기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설교가이시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평생 후배들을 키워오신 사랑많으시고 훌륭하신 총장님을 만나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오며,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신 우리 교수님들 인격에 매료되어 그 가르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우고자 열심히 하루도 결석 없이 수업에 매혹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철없이 무식한 질문으로 덤벼드는 학생들을 이해시키시고 달래(?) 시느라 지난 어려운 시간들도 제게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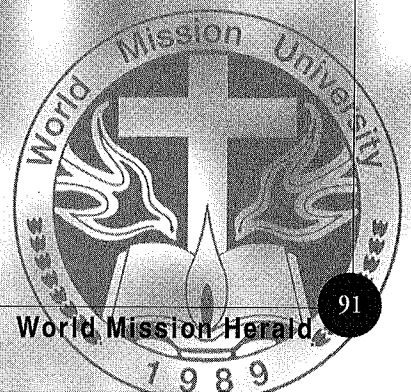
저희 학생들의 끝없는 학구열을 위하여 세심하게 가르침을 주신,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로 깨달음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가르치시는 월드미션대학 교수님들의 신앙 정신이 항상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잘 가르치시느라 먼 여행전이나 여행 후에도 곧 바로 강의실로 오시는 총장님의 투철하신 책임감과, 몸소 실행하심으로 사역자의 됨됨이를 가르치시는 배움에 늘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일일이 살피시는 그분의 자상하신 통찰력 또한 놀랍습니다. 앞날에 더욱더 강건하시며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세계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수고하심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부족했던 저희들에게 힘과 수고를 다하여 가르치시느라 애쓰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너무 어려웠고 Report도 많이 써야 하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귀하고 소중하였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던 말씀의 진리를 배우며 너무나도 감격하였던 귀하고 소중한 깨달음 들이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의 목적은 실천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를 알고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실천하는 섬기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를 위함이라 하셨사온데 배우고 깨달을 수록 더욱 소중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깊은 이치와 깨달음을 배우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격합니다.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여온 우리 월드미션 선지 동산에 많은 훌륭한 후배들을 보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대를 움직여 나갈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선지 동산으로 더욱더 부흥 발전해 나가기를 고대하며 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월드미션 대학에서 M. Div. 과정을 마치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월드미션을 힘껏 도와 주시는 동양 선교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통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자비로 이 부족한 당신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격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광찬 장로

영성훈련을 통해 건강한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는 영성과 겸손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본이 되는 지도상으로 임동선 목사님을 추천한다.

우리 신학교가 오랫동안 희구해 오던 AABC 가입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와 헌신으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신학교로 자리 잡기 위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또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학문적 탁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 훈련이 신학교에서 철저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 할 때에 영성에 대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을 배신하고 저주한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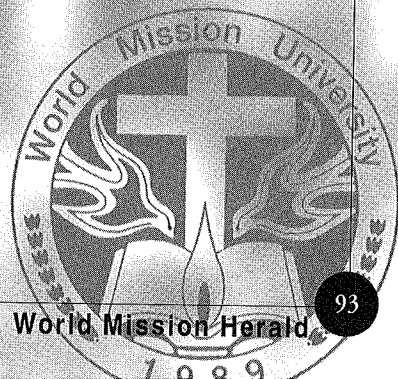
현대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신학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 직분이 겸손과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에만 치중하여, 결국 직분 상승처럼 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목회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득이 함으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우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어버이가 되십시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시대의 목자 상으로 임동선 목사님을 꼽는 이유가 바른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분은 80세의 백발 노구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들을 대해서도 꼭 존대어를 쓰십니다. 그 분의 겸손한 모습은 세월이 더할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시는 알곡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분의 눈에서는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흘리시는 눈물,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또한 감격하여 흘리시는 눈물, 그 분은 삶 그 자체로 성경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미션 신학생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탁월한 신학과 경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셨지만, (사 53: 2절 이하) 그러나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겸손과 눈물, 그분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행13: 27). 그들은 지식에는 능하였지만 결국 삶의 적용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바로 건강한 영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부단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는 더욱 위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 / 이인미

해맞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 8:6)

매일 나서는 외출인데
홍포의 빛 무리 거느리고
저 고운 빛단장을 잊지 않네

지구 끝 어느 나무 아래
첫 사랑을 찾으러
오늘도 눈이 부신가

빛살 떨리는 저 웃음 소리
소나무 가지위에 걸쳐 둔
내 마음에 불꽃이 튄다

심장 한켠 웅크리고 있던
검게 그을린 비둘기 한 마리
푸드득 푸드득
날개짓을 털며 날아 오른다

나 아직 그대 향한
첫 사랑이라고

김영준

플로이드 맥클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읽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저주에 놓여있을 때 우리보다 더욱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셨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인 '아버지'로 영접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위한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디 멀리 계신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친히 우리를 체휼하시며 어루만지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듯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필치로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일깨운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다음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 1장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나 냉대는 오랫동안 그의 의식에 남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그의 사랑의 치유로 회복시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품성이나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완벽하게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인자와 사랑의 주님이셨고,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따뜻한 관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제 2장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다음의 7가지 편견이 있다.

권위: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불행했던 기억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믿지 못하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장애가 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자식에게 화를 내고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신뢰: 오늘날 산산 조각난 가정의 보금자리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으며,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가치관: 종종 어릴 때 부모들의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기도 한다. 집안의 물건을 다룰 때, "조심해라", "가만히 두어라", "그것은 만지지 마라"등의 말은 계속적으로 듣는데,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의 듣지 못한 채 성장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자칫 부모들의 이러한 자녀 양육은 자녀로 하여금 물질을 자신의 가치보다 높이 두는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물질에 가치를 두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소유물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물건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사랑: 부모들의 엄한 자녀 교육은 종종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

현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여 자녀들의 사소한 일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몸짓하나, 미소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시다.

받아들임: 우리의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어떤 행위나 결과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 이러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결과나 실적을 과정이나 더욱 본질적인 것들보다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원리로 대하시리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만을 바라실 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교제: 마음을 열고 부모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버지와는 더욱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와 나누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경우일 때가 많다.

제 3장 당신의 마음이 고통당할 때

이 세상에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상처는 어릴 적에 받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간과 순수하고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런 상처받은 감정이 치료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 치료를 성화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이 아니실 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셨건만,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죽였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과 죄악의 순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바로 용서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상처를 입는지를 몸소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는가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자를 낫게 하시며, 분열이 있는 곳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키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당할 때,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다. 이럴 때, 우리 내면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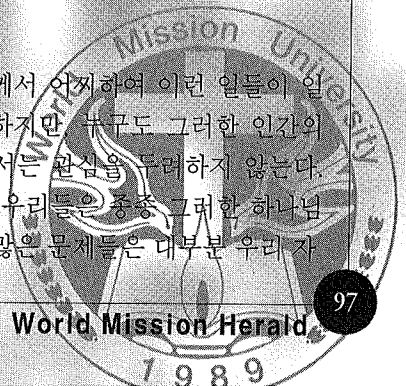
제 4장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실망 등 모든 것을 고백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찾아가 마음 문을 열며, 만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쌓아 둔 안좋은 감정은 곧, 마음의 병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치료뿐 아니라, 감정의 상처가 다시 곪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명약이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실패한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자비, 긍휼,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치유에는 우리의 인내도 필요로 하신다. 실패했다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일어서는 과정에 우리의 인내가 요구된다.

제 5장 실망한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은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여 수개월 혹은 수년동안 우리로 마음의 상처와 불신, 화냄, 비통, 낙심, 두려움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그 실망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한다. 마음 속에 실망감이 생길 때,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또한 이것을 통해 인내심, 유순함, 하나님의 방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키우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을 보이신 것과 일치한다. 실망의 순간에 그 순간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시려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묵상한다면 그 순간은 곧 우리 영혼의 성숙과 축복된 삶으로의 순간이 될 것이다.

제 6장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관하시는가?'하는 불만어린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러한 인간의 불행을 인해 겪으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깨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욱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들은 종종 그러한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원망하며 거부한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자

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죄악의 피해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속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괴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만 계시지 않고 뭔가를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우리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상처 입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심으로인해 하나님께서 느끼신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없으실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이. 바로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통로됨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제 7장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원하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나 돌아올까 찢어진 가슴을 움켜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앞으로 나아오기로 결심할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게되는 순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슬그머니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시고 크게 슬퍼하시지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성품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것이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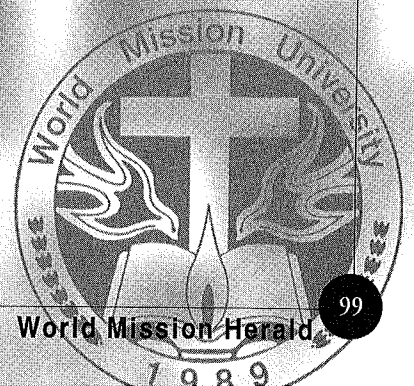
제 8장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상처와 거절감으로 이 사회의 후미진 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고아가 된 기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고아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 안에서 양육받은 적이 없어서 고아된 사람도 있다. 그들 또는 남들의 잘못으로 인해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건전한 성경의 원칙으로 조언받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권면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도와 줄 영적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절실히 필요하다.

맺는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고통에 찬 신음을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나설 때, 비로소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현실로 이뤄질 것이다.

나의 삶의 적용: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었다. 그 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애 가운데서 변함없이 말없는 탄식과 사랑으로 언제나 문 밖에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한없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 특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에게 영적 '아버지' 와 '어머니' 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깨달음이 어떤 의무나 필요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반응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안에서 소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Duck Seoung Yang

My story

Through difficulties in my life, I have been remembered of my promise to God for my full devotion to him.

When I arrived in America in 1978, I had no interest in learning about Jesus Christ, no one had ever spoken to me about him. Although I didn't have any interest in learning about Christ I attended a church to get together with my family. For many years I attended the church but I did not personally meet Jesus Christ. [In July of 1983 while experiencing my first painful situation of being an immigrant, I wasn't able to sleep. I stayed up all night then I found myself praying to God. Then I personally met Jesus Christ for the first time.] I was able to quit smoking and drinking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got involved in many church activities. But eventually I got tired because I was involved in too many church activities. Then My family moved to Mission Viejo from Buena Park. I could no longer attend my church since the distance to the church was too far. I decided to attend Bethel Korean church. At Bethel Korean Church I had a chance to grow spiritually. God's word through Pastor Peter Sohn's message touched my heart deeply. In that church, I tried to attend all types of programs for my spiritual growth. Based on God's word I was getting new serving attitude. I started to have a joyful life. But working as a real estate broker, I was experiencing a conflict between my work attitude and my Christian morals by helping my clients being dishonest with their tax report and other documental problem. I decided rather to be honest and quit my real estate job. Closing my real estate office, I purchased a wholesale laundry station. Due to the strain on small businesses such as the continuous increase in minimum wages and in insurance premiums I was losing money year after yeae. Many smallbusiness owners were not willing to pay their taxes honestly and give their employees benefits in that time because of this reasons. That was strong temptation to me also to report talsely to the Government to save money and survive. Based on my Christian beliefs, I couldn't do that. Two years ago I converted my wholesale laundry shop to include a retail dry cleaning business. My business was streched beyond capacity that I could handle. Therefore it swallowed my entire financial resources. Finally I reached the point to sell my business. My wife and I were looking for a buyer who was qualified to buy my business. We felt that we should not sell our business to another person or family unless they are qualified for the business because we didn't want to hand over the hardships of the business to an other family. There were a number of unqualified buyers, so my wife and I decided to close our business instead of selling the business to someone else. Closing my business I was looking for another path in my life. While searching for another job I remembered my promise and devotion to God. I had forgotten that promise for a long while. Even though I was very hesitant, God strongly expressed his will and his purpose for my life through my wife, my senior pastor and especially my older brother. I could no longer deny God's dream and vision for my life. His vision to help my fellow Koreans, North and South, and neighbors in pain was giving me a strong feeling that made me cry out. I have been hearing God's voice through the people in pain and need. My only choice is my devotion to God to serve him and follow his will.

서상민

떠나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1)

본문 : 행 8:1~3

대지 1. 떠남에 동반되는 것들
소지1. 포기하는 것
소지2. 순종
대지 2. 떠남의 결과들
소지1. 복음의 전파
소지2. 축복의 성취
결론 : 포기하고 순종하여 떠나자! 땅 끝까지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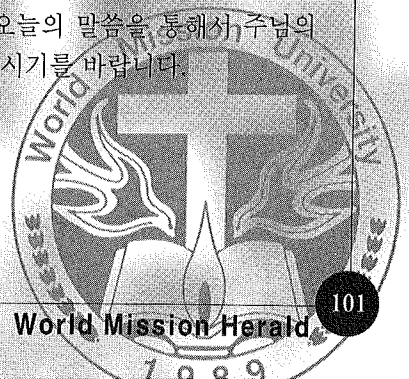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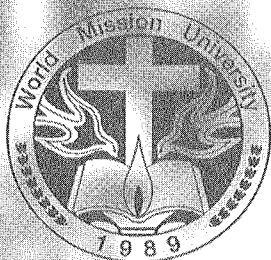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의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러기 위해서 떠나라" 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오게 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떠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그렇다면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 할까요?

첫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의 일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비즈니스와 일터들, 그리고 의지가 되었던 친척 일가들 모두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약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라거나 어디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은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에 해왔던 일들을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위대한 포기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지식에, 때로는 인맥에 의존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돈과 권력과 더불어 인맥이 중요시 되는 세대입니다. 종교계나 학계나 정치, 경제계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불편해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우리들 눈앞에는 상상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자신들의 전부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온 세계가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는 말씀은 너의 생각과 고집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핍박과 악조건들이 평화와 안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는 [순종의 결과 → 상황의 극적 변화 + 물질적 축복=아멘, 할렐루야! 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 → 핍박 + 포기 = 온 땅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도록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나 자신이 변화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가겠다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힘과 능력에 맡기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순종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것은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에 대하여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다 준 것은 영광이나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 이었습니다. 그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그 날에 오히려 시작되는 핍박입니다. 핍박의 결과는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 온천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 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였으며 그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날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이것은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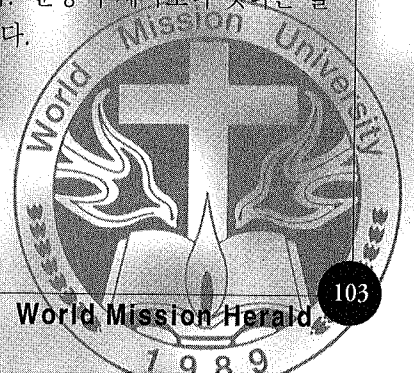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절망이기도 하며, 망망대해에 떠있는 난파선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같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극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현실은 각 집안의 남녀들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소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와 세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구원의 복음이 온 땅, 온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테두리로 막을 수 없으며, 내가 가진 것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 되기를 원하시며, 나의 발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테두리를 열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테두리를 열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학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물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하여 떠날 시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는 순종하라, 떠나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내려놓을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나타나는 땅 끝은 다를 것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오직 자신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포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의 결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시키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 지금 거하고 있는 평화롭고 안전한 이곳을 떠나면 땅 끝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분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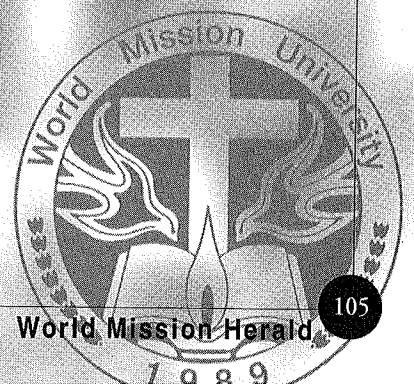
QSSQ (The Queen of Sheba visits Solomon. She came to test him with hard Questions)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어려울 때마다 주신 여러 기발한 생각이 나의 성경읽기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몇십년을 성경 한번 제대로 통독 못하고 지내던 내가 특별한 계기/은혜로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한 것은 1981년,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은 것 같다. 그 동안 성경읽기에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가면서 변화도 많이 겪으며 특별히, 성경읽기가 지루해지고 최우선순위가 바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속에서 갖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주시며 말씀을 계속 읽도록 독려해 주신 것은 '그저 감사하다고만 할수 없는 은혜' 라고 길게 수식하게 된다. 그 주신 것들을 역시 말씀(1 Kgs 10:1)에서 제목을 얻어 QSSQ (The Queen of Sheba visits Solomon. She came to test him with hard Questions)라 이름 짓고 모으며, QSSQ로 인하여 성경읽기에 조금이라도 흥미/도전/독려/가 된다면, 이 또한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일부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개그로 푼 이름

기 죽은 자 다 내게로 오라: 기-드오니
폭주가: 나발
더 이상의 신유의 은사는 없다: 나아라
당신은 칼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도마
완벽한 도청방지: 들릴라
라면과 햇반의 만남: 라-반
솔로몬 재판 도우미: 막-반내
달동네의 희망: 비-돈
비게는 싫어: 살만
IRS 담당관: 실사
리스 안 주고 못 배겨: 아-리스-다고
부를 때마다 아픈 이름: 아야
부를 수록 거룩한 이름: 오-홀리-압
경상도의 아들: 우리-아
목욕하는 여자 봐: Bath-she-ba
포근한 여인: 학깃
백인이 꺼리는 이름: 힌놈

개그 Guinness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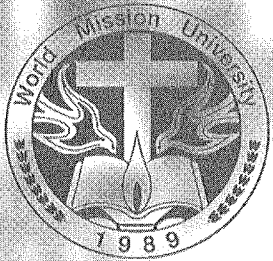
하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은? 갓(Gad)
<가장> IQ가 <낮은> 개는? 무지개
<가장 가난>한 여인은? 다비다
<가장> 한 맺힌 사람은? 욥(6:2-3) "나의 분한을 달아 보며...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가장 짧은> 이름은? 단(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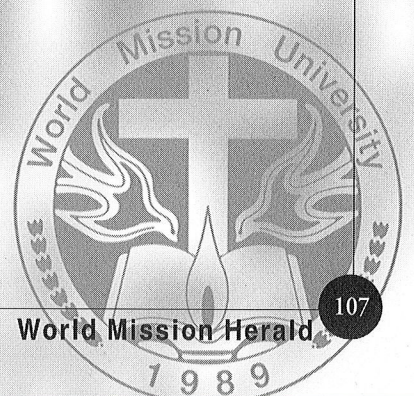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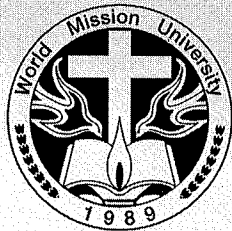
<가장 큰> 이름은? 빅 - 단
<가장 날씬>한 여자는? 마르다
<가장 날씬>한 남자는? 솔로몬(왕상12:10)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최초>로 '황금률'의 본을 보인 사람은? 아비멜렉(창21:23)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행할 것이니라"
성대묘사의 <원조>는? 야곱(창27:19)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가장> 몸이 단단했던 사람은? 나발(삼상25:37)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왕(列王) 중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삼하17:27-29)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침상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으로 먹게 하였으니" 胃大하시도다!

개그로 푼 선호 성구

불임부부 비전 성구: 사66:9
여인숙에 붙은 성구: 렘31:26
Bakery에 붙은 성구: Isa55:2(NIV)
Lotto 독려 성구: Eccles10:19
주막에 붙은 성구: 마20:22
은행에 붙은 성구: 눅19:23
자린고비가 생선 대신 붙여 놓은 성구: 눅17:32
머리염색약 광고 카피 성구: 왕상2:6
식인종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 갔다. 추장이 은혜 받고 길게 붙여 놓은 성구:
요6:53-57

개그로 푼 기피 성구

작가 기피 성구: 계22:15
남극, 북극 주거민 기피성구: 마8:11
주방 보조 기피 성구: 마25:21
주식시장 기피 성구: 사7:23
제화업계 기피 성구: 신11:24

넌센스 Quiz

이삭이 가장 두려워 했던 사람은? 눅 6:1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보다 먼저 쓰신 것은? 어린나귀(눅 19:31)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데, 예수께서 우러러 보신 사람은? 삭개오(눅19:5)
혹은 비행기, 혹은 기차를 선호하나 마귀가 선호하는 탈 것은? (엡4:27)
천국에 없는 동물은? (계22:15)
야곱은 칠년을 수 일 같이, 그런데 수 십년을 몇 날 같이 여긴 사람은? (창27:44)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식품은? (신22:6-7)
항상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요21:18)
신학자들도 바울의 병명을 정확히 짚어 말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확신있게 언급한 사람은? (행24:5,2)
베데스다 못 가에 많은 병자들이 진치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다가 물이 동하면
서로 먼저 들어 가려고 아귀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 성질 한 번 부리지 않고 잠잠했던 병자 그룹은?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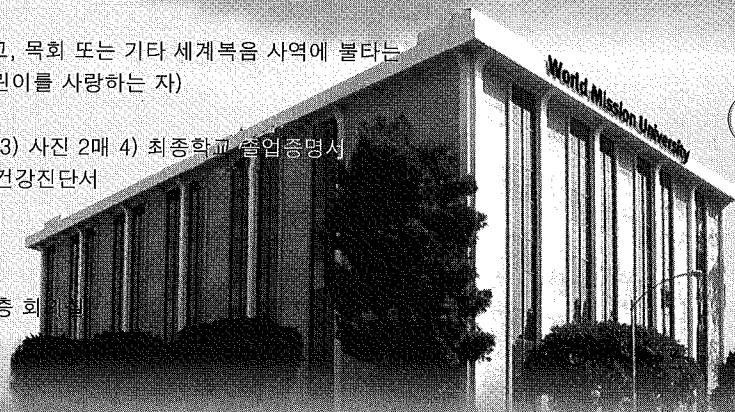
www.wmu.edu

2004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1.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성경/선교/상담	126	4	고졸
M.A	신학과	64	2	대졸
M. Div.	목회학과	96	3	대졸
통신과정	BA, MA, M. Div	126/64/96	4/2/3	고졸/대졸
ESL	영어학과	36	1	고졸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15	1학기	
	원장자격증	18		

2. 신입생 입학요항

a. 지원자격 :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타 세계복음 사역에 불타는 소명감이 있는 자(유아교육과: 세례교인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
b. 원서마감 : 2004년 8월 20일(금) 오후 7시까지
c. 구비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추천서2통(소정양식) 3) 사진 2매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6) 개인 신앙간증서 7) 건강진단서
d.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어학시험 및 성경 입학시험) [단 유아교육과는 서류심사]
e. 시험일자 : 2004년 8월 23(월) - 24일(화) 오후 3시-6시
f. 장　　소 : 필기시험 - 본교 "501호"강의실 면접 - 본교 5층 회의실
g. 원서교부 : 본교 사무실
h. 신입생 학과등록 : 2004년 8월 26일(목)
i. 개강 부흥회 : 8월 30일(월) - 31일(화)
j. 개강일자 : 2004년 8월 30일(월) (*개강 첫 주간은 부흥사경회로 모임)
k. 신입생 환영 및 교수소개 : 2004년 9월 2일(목)

교수 및 강사진

전담 교수진 : 임동선, 강준민, John Mckenna, 남종성, 김진광, 임성진, 신선묵, 변명혜, John Park

학교 강사진 : 안성희, 안송주, 조종남, 조경현, 조석환, 한혜숙, 황마리아나, 김찬희, 김종경, 김건태, 김석웅, 김성원, 김유경, 권대식, 이근철, 목만수, 손진락, 석태운, 황의정, 우상범, 유의영, 유기성, Chalres Van Engen, Daniel Shaw, Dean Gilliand, Earl Grant, David J. Agron, John Lane Scott 외 다수 (무순)

본교 장학금 제도

1) 총장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주은장학금 4) 선교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부부장학금 7) 일반장학금 8) 승용장학금 9)성환장학금 10) 경애장학금 11)봉모장학금 12) 경혜장학금 13) 건춘장학금 14) 진호장학금 15) 승천장학금 16) 북방장학금 17) 에녹장학금 18) 근홍장학금 19) 순자장학금 02) 동순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17개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특별히 M. Div.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을 수여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월드미션 대학교, 신학 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500 Shatto Pl., Suite # 6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E-mail : info@wmu.edu Website : www.wmu.edu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본교 교무처,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 주시면 입학원서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총장: 임동선 박사 Ph. D., D. Min,
부총장 강준민 목사, Dr. John E. Mckenna Ph. D

2004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ww.wmu.edu